기출 PICK

정답과 해설

현대사회와 윤리

01 현대인의 삶과 실천 윤리

개념 확인 문제 6쪽

001 가치 002 이론 003 역할 교환 004 윤리적 005 홉스
006 실천 007 규범 008 생명 009 순자 010 로크

난이도별 필수 기출 6~17쪽

011 ④ 012 해설 참조 013 ② 014 ⑤ 015 ⑤
016 해설 참조 017 ③ 018 ③ 019 기술 윤리학
020 ④ 021 ③ 022 ③ 023 ① 024 ③ 025 ②
026 ⑤ 027 ④ 028 ⑤ 029 ② 030 ② 031 ①
032 ① 033 ④ 034 ② 035 ④ 036 ② 037 ①
038 해설 참조 039 ③ 040 ② 041 해설 참조
042 해설 참조 043 ② 044 ③ 045 ④ 046 ②
047 ⑤ 048 ④ 049 ② 050 ① 051 ④ 052 ②
053 성무선악설, 로크(고자) 054 맹자 055 ①
056 (가) 사양지심, (나) 시비지심 057 ② 058 ②
059 ③ 060 ⑤ 061 ② 062 ③ 063 해설 참조
064 ② 065 ③ 066 해설 참조 067 ⑤
068 갑: 순자, 을: 홉스 069 ⑤ 070 ④

011 제시된 글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윤리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도덕 원리와 규범의 정당화를 핵심 과제로 삼는 이론 윤리학의 특징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서 정립한 도덕 원리를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②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③, 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며,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한다.

012 **모범 답안** ㉠은 실천 윤리학(응용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실천 지향적이고,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013 (가)는 규범 윤리학, (나)는 이론 윤리학, (다)는 실천 윤리학이다.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루며, 이론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실천 윤리학은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불린다.

바로알기 |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선', '악', '옳음', '그름'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 판단의 정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술 윤리학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등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014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와 판단의 정당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공동체의 관습과 풍습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015 제시된 글은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싱어의 입장이다. 싱어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시민이 숙고하고 판단하며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돕는 윤리학의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기능이다. ③ 개인의 감정 표현을 정리하는 것은 윤리학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윤리학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분석 윤리학)의 기능이다.

016 **모범 답안**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는 전통적인 윤리 이론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017 그림의 강연자는 기술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관습과 규범 등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바로알기 | ①, ②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다. ④ 윤리 이론을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분석) 윤리학이다.

018 (가)는 이론 윤리학이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판단의 정당화를 탐구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도덕규범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ㄱ. 도덕적 언어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ㄷ.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 개념 보충

윤리학의 분류

구분	관심	특징
규범 윤리학	도덕적 당위와 판단 기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탐구.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과 기준을 제시. 이론 윤리학(공리주의, 의무론 등)과 실천 윤리학(생명윤리, 과학 윤리 등)을 포함
기술 윤리학	도덕 현상의 사실적 기술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관습과 규범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
메타 윤리학	도덕 언어와 도덕 판단 분석	'옳다', '선하다'와 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판단의 정당성을 분석

019 기술 윤리학에서는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등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020 제시된 글의 '나'는 규범 윤리학, '어떤 사람들'은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규범 윤리학에서는 메타 윤리학에 대해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적 판단과 해결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윤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② 도덕 관습을 객관적 사실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③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한다. ⑤ 보편적 도덕규범을 정립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다.

021 갑은 기술 윤리학, 을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기술하고자 하며, 실천 윤리학에서는 현대사회의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바로알기 | ㄱ.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의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ㄹ. 도덕적 언어 및 의미의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탐구의 본질로 삼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022 갑은 메타 윤리학, 을은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진술의 객관적 참·거짓 판단에 회의적이고, 규범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통해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을 당위의 학문으로 보고,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긍정한다. ②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중시하고,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기술한다. ④ 이론 윤리학은 보편적 원리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메타 윤리학은 윤리적 진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⑤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023 제시된 글에서는 이론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②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습과 풍습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③ 윤리 이론을 구체적인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④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⑤ 이론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탐구하여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

024 그림의 '나'는 이론 윤리학, '어떤 사람'은 기술 윤리학을 지지하고 있다. 이론 윤리학에서는 기술 윤리학에 대해 윤리학이 인간 행동의 보편적 원리와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도덕 현상의 객관적 서술을 핵심 과제로 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②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관습을 경험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④ 실생활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⑤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025 갑은 실천 윤리학, 을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려 하고,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의 이론적 정당화를 중시한다.

바로알기 | ㄴ.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ㄹ. 윤리적 문제를 가치 판단 없이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026 을은 이론 윤리학, 병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공통적으로 규범 윤리학에 해당한다.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027 메타 윤리학의 입장은 안락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도덕적 판단과 언어의 의미 및 정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028 갑은 실천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이 현대사회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적용되어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밝히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ㄴ. 윤리학이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029 갑은 이론 윤리학, 을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 모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규범 윤리학에 속한다.

바로알기 | ㄴ. 도덕적 언어의 객관적 분석을 윤리학의 본질로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ㄹ.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공통적으로 규범 윤리학이며,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을 당위의 학문으로 본다.

030 갑은 기술 윤리학, 을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실천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ㄴ.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들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며, 도덕적 행위의 올바른 방향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다. ㄹ.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규범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속하지만, 기술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속하지 않는다.

031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고, 실천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생명, 환경 등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②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관습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③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④ 사회적 관습과 도덕 현상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⑤ 윤리적 문제를 여론 조사와 통계 자료와 같은 객관적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032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본 원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알기 | ②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 탐구를 윤리학의 본질로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③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④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⑤ 도덕 판단에 사용되는 단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033 갑은 메타 윤리학, 을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와 판단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론 윤리학은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ㄱ. 윤리 이론을 실제 사회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ㄷ. 윤리학을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034 갑은 메타 윤리학, 을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따라서 (가)에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 도덕 현상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도덕 개념, 도덕 판단의 의미와 정당성을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관습을 경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기술 윤리학이다. ㄷ. 윤리 이론을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035 제시된 글은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판단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바로알기 | ①, ② 규범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제시한다. ③ 사회의 도덕 관습과 규범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⑤ 도덕 원리를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036 (가)는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생명·환경 등 현대사회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다룬다.
바로알기 | ㄴ.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관습과 규범을 가치 판단 없이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ㄷ.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037 제시된 글의 '나'는 규범 윤리학, '어떤 사람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 보편적인 도덕규범과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규범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윤리학과 관련해서 경험적 사실의 축적을 중시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③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④ 윤리학은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관습을 사실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⑤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로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038 모범 답안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학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과 인간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039 평화 윤리 영역은 국제 분쟁과 전쟁, 국제 정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며, 국가 간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③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시민과 윤리 영역이다.

040 사랑과 성 문제는 생명윤리이고, 직업윤리와 시민불복종은 민주시민과 윤리이며, 예술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계는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이다.
바로알기 | ㄴ.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민주시민과 윤리에 해당한다. ㄷ. 예술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바람직한 관계는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에 해당한다.

☑ 개념 보충

현대사회와 다양한 윤리적 쟁점

구분	핵심 쟁점 및 주요 문제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사랑과 성 문제, 자연환경 보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등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문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민주시민과 윤리	직업윤리, 시민불복종,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문제 등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예술 및 대중문화 문제, 의식주와 소비 생활의 윤리, 다문화 사회 문제 등
평화와 공존의 윤리	사회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 문제, 국제 정의,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 등

041 모범 답안 친구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042 모범 답안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영역의 주요 쟁점으로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쟁점, 환경 개발과 보존에 대한 쟁점 등이 있다.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영역의 주요 쟁점으로는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쟁점, 과시 소비와 기호 소비의 쟁점 등이 있다.

043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 영역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으로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문제, 인공지능 문제 등이 있다.
바로알기 | ① 사회적 갈등과 사회통합 문제, 통일 문제는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 해당한다. ③ 예술 및 대중문화 문제, 의식주 생활 및 소비 생활 문제는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에 해당한다. ④ 직업윤리 문제, 시민불복종 문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문제는 민주시민과 윤리에 해당한다. ⑤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사랑과 성 문제는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에 해당한다.

044 남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는 원리가 다른 사례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반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증 사례 검사이다.
바로알기 | ①, ② 역지사지 검사, 역할 교환 검사는 도덕 원리를 자신의 입장에 적용했을 때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방법이다. ④ 삼단 논법은 도덕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검토하여 그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⑤ 보편화 검사 결과는 모두가 해당 도덕 원리를 따를 때 발생할 결과를 검토하여 도덕 원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개념 보충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 도덕 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구분	설명
역할 교환 검사	도덕 원리를 자신의 입장에 적용했을 때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보편화 결과 검사	문제가 되는 도덕 원리를 모두가 채택할 때 일어날 결과를 고려하여 원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
반증 사례 검사	도덕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045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A), 옳지 않다(B), 나쁜 댓글을 다는 것(C)로 보면, 대전제는 A→B, 소전제는 C→A, 결론은 C→B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

046 ㉠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제시한 대전제로,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대전제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나 일반적인 사실을 제시한다. ③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론 단계이다. ④ 소전제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대한 사실 판단을 제시한다. ⑤ 결론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며, 전제와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047 을은 모든 사람이 같은 원리로 행동할 경우 발생할 결과를 따져 그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편화 결과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④ 역지사지 검사, 역할 교환 검사는 도덕 원리를 자신의 입장에 적용했을 때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방법이다. ② 삼단 논법은 도덕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검토하여 그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③ 반증 사례 검사는 도덕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토 방법이다.

04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인간이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윤리적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도구적 존재란 인간이 도구나 제도를 만들어 자신의 삶과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② 사회적 존재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상호 작용하며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 국가를 이루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③ 정치적 존재란 인간이 공동체의 존립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⑤ 종교적 존재란 인간이 유한한 삶 속에서 죽음이나 불안과 같은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나 절대자를 믿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049 ㉠은 유희적 존재, ㉡은 사회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인간은 이해관계를 떠나 기쁨과 재미를 추구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적 활동인 놀이를 즐기는 유희적 존재이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상호 작용하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050 인간은 동물적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성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바로알기 | ② 도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사회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유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화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051 (가)는 성악설, (나)는 성무선악설의 입장이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대표 사상가로 순자와 홉스가 있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관점으로, 대표 사상가로 고자와 로크가 있다.
바로알기 |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표 사상가로 맹자와 루소가 있다.

052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맹자와 루소이다.

053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성무선악설이며, 이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로크와 고자가 있다.

05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며, 이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하기 위한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055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차마 타인의 불행을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다툼이 생긴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③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 중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은 고자이다. ④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하므로 예로 교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⑤ 인간의 본성이 후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것은 고자이다.

☑ 개념 보충

인간 본성에 대한 동양 사상의 관점

구분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대표 사상가	맹자	순자	고자
인간 본성	본래 선함	그대로 두면 악으로 흐름	본래 선도 악도 아님
도덕 실현 방법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수양	예(禮)와 교육을 통한 교화	교육과 올바른 선택
공통점	윤리적 삶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육, 노력과 실천 등이 중요하다		

056 맹자는 인, 의, 예, 지의 인간의 선한 덕과 이로부터 나오는 선한 마음인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강조하였다.

057 맹자와 루소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이나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맹자와 루소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058 갑은 고자,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 또는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맹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고자와 맹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고자와 맹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059 그림의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라고 보았지만,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타락하여 이를 사회 계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은 상태라고 본 것은 로크이다. ㄹ.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본 것은 홉스이다.

060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성정에 어긋나더라도 예로써 인간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과 의라는 도덕적 기준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이 사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은 맹자이다. ② 순자는 예의 실현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인간의 본성이 식욕과 성욕과 같은 생리적 욕망이라고 보는 것은 순자이다. ④ 인간이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은 순자이다.

061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닌다고 보았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인위로 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선한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성인이 제정한 예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고자이다.

06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예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인위로 보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타인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타고난다고 본 것은 맹자이다. ㄹ. 순자는 본래 타고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063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예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6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본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다툼이 발생하므로, 교육과 인위적인 교화를 통해 군자다운 덕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ㄷ.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덕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맹자이다.

065

갑(순자): 사람의 성(性)과 정(情)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폭동으로 귀결된다. → 성악설

을(고자):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본능을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 → 성무선악설

갑은 순자, 을은 고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타고난 욕망을 그대로 따르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예로써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고자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은 맹자이다. ② 인간의 본성이 선하므로 본성을 확충하는 수양을 중시한 것은 맹자이다. ④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예를 통해 교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066

모범 답안 맹자는 인간이 측은지심과 같은 선한 마음의 싹인 사단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고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도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맹자는 고자에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067

갑은 고자, 을은 순자이다. 고자는 인간 본성에 선악이 없으나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순자는 예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교육과 선택을 통해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고자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ㄴ.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맹자이다.

068

갑은 순자, 을은 홉스이다. 순자와 홉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069

갑은 순자, 을은 홉스이다. 순자와 홉스는 성악설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외적 규범과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본성이 선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성선설의 입장이다. ②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것은 맹자이다. ③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투쟁한다고 보았다. ④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성무선악설의 입장이다.

070

갑은 루소, 을은 홉스이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고 보았다. 반면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경쟁과 불신으로 충돌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본 것은 홉스이다. ㄷ. 홉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0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개념 확인 문제 20쪽

071 효제 072 연기 073 무위 074 동기 075 최대 행복
076 소국과민 077 벤담 078 자연법 079 제물
080 자유주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20~33쪽

081 ④ 082 ④ 083 ① 084 ② 085 해설 참조
086 ① 087 ⑤ 088 ④ 089 ㉠ 유교, ㉡ 불교 090 ④
091 ③ 092 ④ 093 연기(설) 094 ④ 095 ⑤
096 ② 097 소요유 098 해설 참조 099 ④
100 ⑤ 101 ④ 102 ④ 103 ③ 104 해설 참조
105 ② 106 ④ 107 ① 108 ② 109 ②
110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111 ③ 112 ① 113 ②
114 ③ 115 ② 116 ① 117 ⑤ 118 갑: 밀, 을: 벤담
119 ④ 120 ④ 121 ② 122 ⑤ 123 ⑤
124 해설 참조 125 (가) 행위 공리주의, (나) 규칙 공리주의
126 ⑤ 127 ⑤ 128 아리스토텔레스 129 ③ 130 ④
131 ④ 132 ③ 133 ⑤ 134 ④
135 (가) 자유주의, (나) 국가 136 ③ 137 ⑤ 138 ③
139 ③ 140 ④ 141 ① 142 ③ 143 ① 144 ②
145 ① 146 ⑤ 147 해설 참조 148 ①

081

제시된 글에서는 공자가 주장한 유교의 이상 사회인 대동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불국토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② 소국과민은 노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로,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어 소박하게 사는 공동체를 말한다. ③ 유토피아는 모어가 제시한 이상 사회로, 사유 재산이 없는 평등한 사회이다. ⑤ 뉴 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이 제시한 이상 사회로,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이다.

08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의 실천과 효제충서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인과 덕에 기반한 도덕적 통치를 강조하였다. ② 행위의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주의이다. ③ 연기설에 따라 모든 존재에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이다. ⑤ 무위자연에 따라 인위적 욕심을 버리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이다.

083

제시된 글은 맹자의 사단과 사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맹자는 선한 마음의 네 가지 단서인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각각 인의예지의 선한 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마음은 수오지심이고, (나)에 들어갈 마음은 시비지심이다.

084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과 존비친소에 따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공자는 인의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공자는 인을 존비친소의 기준에 따라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85 모범 답안 충(忠)은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恕)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086 제시된 글에서는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제와 충서를 꼽았다.
바로알기 | ② 인위적인 분별과 지식을 버리고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가 사상이다. ③ 욕망과 집착을 끊기 위해 팔정도를 실천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 사상이다. ④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을 깨닫고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 사상이다. ⑤ 좌망과 심재의 수양으로 만물과 하나 되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자이다.

08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예와 교육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순자이다. ② 깨달음을 얻어 집착을 버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교 사상이다. ③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법가 사상이다. ④ 인위적인 가치 판단을 버리고 자연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가 사상이다.

088 (가)는 유교, (나)는 도가 사상이다.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의 덕목을 실천하는 개인의 수양과 도덕적 공동체 실현을 강조하였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도를 따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였으며,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내면을 수양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인위적 분별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무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가 사상이다. ㄷ.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발휘하는 수양을 강조한 것은 맹자이다.

089 ㉠은 유교, ㉡은 불교 사상이다. 유교 사상은 인의예지의 덕목을 강조하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중시하였다. 불교 사상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해야 하며, 영원한 것은 없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개념 보충

동양 윤리의 주요 관점 정리

구분	유가	불교	도교
추구	도덕적 인격 수양	고통 극복과 깨달음	자연스러운 삶
실천 방향	인간관계 속 도덕 실천	집착 제거, 열반, 해탈 추구	인위 제거
수양 방법	수기안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팔정도, 육바라밀, 삼학	좌망, 심재
이상적 인간	군자, 성인	아라한(소승불교), 보살(대승불교)	지인, 신인, 천인, 성인
이상 사회	대동 사회	정토, 불국토	소국과민

090 갑은 맹자, 을은 장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사단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장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체득하는 좌망과 심재의 수행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제물 사상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위적인 구분 없이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맹자는 부정, 장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③ 맹자와 장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⑤ 맹자는 긍정, 장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091 제시된 글은 불교의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다. 사성제는 현실 세계의 결과(고성제), 현실 세계의 원인(집성제), 이상 세계의 결과(멸성제), 이상 세계의 원인(도성제)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법과 형벌로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법가 사상이다. ② 존비친소에 따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자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묵자이다. ④ 인위적인 규범과 작위를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가 사상이다. ⑤ 예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순자이다.

✓ 개념 보충

사성제 –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구분	주요 내용
고제(苦諦)	현실 세계의 삶은 생로병사와 같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집착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함
집제(集諦)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 무명에 있으며, 특히 집착이 고통을 끊임없이 만들어 냄
멸제(滅諦)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하면 괴로움도 사라져 열반(涅槃)이라는 궁극적 평화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
도제(道諦)	괴로움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실천의 길로, 팔정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수행을 강조함

092 제시된 글은 불교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원인과 조건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생멸한다고 주장하였다. 불교의 삼학은 계, 정, 혜의 수행 방법을 의미한다. 도가에서는 좌망과 심재의 수양으로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유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교에서는 효제, 충서의 덕목을 실천하여 덕을 갖춘 군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093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설을 주장하였다.

094 제시된 글은 불교의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욕망을 제도와 예로 교화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순자이다. ② 인간의 본래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정치와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맹자이다. ③ 인과 예의 실천으로 도덕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 것은 공자이다. ⑤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가 사상이다.

095 (가)는 자연의 도를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도가의 무위자연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모든 것이 서로 생성과 소멸의 원인과 조건이 된다는 불교의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096 (가)는 도가, (나)는 불교의 입장이다.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가치 판단과 분별이 도를 흐리게 한다고 보았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고 상호 의존하는 사물의 참된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도가에서는 도(道)의 실현을 위해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ㄹ. 도덕적 수양으로 본래의 선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맹자이다.

097 소요유는 도가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시비선악의 구분을 초월하여 인위적 가치나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의미한다.

098 모범 답안 도가에서는 진인, 신인, 천인, 성인 등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도가의 이상적 인간은 모두 인위적인 분별과 욕망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들은 무위자연의 삶을 실천하며, 욕심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099 제시된 글의 사상은 도가이다. 도가에서는 인간이 인위적인 가치 판단과 욕망을 버리고 도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인간의 본성인 사단을 확충하여 사덕을 완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맹자이다. ② 정명을 실현하여 모든 구성원이 도덕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공자이다. ③ 모든 존재는 여러 원인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불교 사상이다. ⑤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불교 사상이다.

100 제시된 글의 사상은 도가이다. 도가에서는 지혜, 인, 의, 효제 등 유교에서 중시하는 덕들이 인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연을 따라 무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인위적 기준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도가의 입장과 일치한다. 또한 지나친 지식과 욕망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도 지혜와 기교를 버리면 백성이 이익을 얻고 도적이 사라진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바로알기 | ㄱ. 도가에서는 인위적 구분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무위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예와 의를 가르쳐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유교이다.

101 질문지에 대답한 내용으로 보아, 대답자는 도가의 입장을 지지한다. 도가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시비분별을 잊는 좌망의 수양법,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 무위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몸, 입,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한 계율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은 불교 사상이다.

102 도가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인위를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무위자연이다.
바로알기 | ① 효제충신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다. ②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한다. ③ 인의예지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덕이다. ⑤ 수기안인은 유교에서 제시하는 수양법이다.

103 노자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무위자연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자는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아가 없다고 본 것은 불교 사상이다. ② 성인이 제정한 예에 따라 백성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④ 도가에서는 예를 인위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 것은 불교 사상이다.

104 모범 답안 물처럼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105 그림의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 규범, 지나친 지식 등이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낳기 때문에 자연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무위를 실천하며,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자는 ㄱ, ㄴ, ㄹ에 대해 부정의 대답을, ㄷ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ㄱ. 도가에서는 인의를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무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선약수를 강조하였다. ㄴ. 도가에서는 예의와 법령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무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도가에서는 시비선악의 구분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영원법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108 제시된 글의 사상은 자연법 윤리이다. 자연법 윤리는 인간의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행위(연명 치료 중단·자기 생명 단절)를 경계할 것이다.

10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가치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의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ㄹ.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110 벤담은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11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선의지를 따르는 것,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감)에서 도덕적 가치를 찾았다.
바로알기 | ① 행위의 결과를 비교하여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주의이며, 결과주의 사상에는 대표적으로 공리주의가 있다. ② 반복적인 실천으로 형성된 훌륭한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덕 윤리이다. ④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자기 보존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법 윤리이다. 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도덕적 동기로 삼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11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이익이나 비용과 같은 결과가 아닌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칸트는 법적 처벌의 문제와 관계없이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④, ⑤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11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의 동기가 선의지에 따르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ㄷ.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 행위자의 품성을 강조하는 것은 덕 윤리이다.

11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이성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나 결과가 아니라, 의무감 또는 선의지와 같은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였다.

115 (가)는 의무론, (나)는 공리주의 사상이다. 의무론 사상가인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리주의에서는 공동체의 행복 증진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바로알기 | ㄴ. 의무론에서는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옳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덕 윤리의 입장이다.

116 (가)는 의무론, (나)는 덕 윤리의 입장이다. 의무론에서는 보편적 도덕 법칙과 의무를 중시하고, 덕 윤리에서는 습관적 실천으로 덕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자기 보존의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은 자연법 윤리 사상이다. ③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서 도덕적 가치를 찾는 것은 의무론 사상이다. ④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선을 찾고자 하는 것은 공리주의 사상이다. ⑤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최대 행복의 크기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 사상이다.

☑ 개념 보충

서양 윤리의 주요 관점 정리

사상가	윤리 유형	핵심 관심	주요 내용 및 특징
칸트	의무론	도덕 법칙	도덕적 행위는 의무와 동기에 의해 판단됨
공리주의		쾌락과 고통	행위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량으로 판단됨
벤담	양적 공리주의	쾌락은 양적 차이만 있음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봄
밀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질적 차이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봄
아리스토텔레스	덕 윤리	인간의 성품	덕은 습관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며 중용을 강조함

117 제시된 글의 사상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적으로 증진되는 행복의 크기로 판단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 속 가족의 결정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증진시켰으므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8 밀은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쾌락의 양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119 갑은 밀, 을은 벤담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으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쾌락의 양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밀은 쾌락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쾌락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행위자의 동기와 의무 의식에서 찾는 것은 칸트이다.

120 제시된 글의 A는 자신의 딸에 대한 안락사를 고민하고 있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도출하는 쾌락이 고통보다 크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A에게 ㄴ, ㄹ과 같이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생명 보존의 의무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법 사상이다. ㄷ. 행위가 선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칸트이다.

121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모든 쾌락을 질적 구분 없이 비교,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ㄱ, ㄹ에 대해 벤담은 긍정, 밀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ㄴ. 벤담과 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ㄷ. 벤담은 부정, 밀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122 (가)는 규칙 공리주의, (나)는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행복을 낳는 규칙의 준수를 중시하였다.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개별 행위의 결과가 행복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유용성(행복의 증진)을 도덕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ㄱ.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은 칸트이다. ㄴ.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도덕 규칙에 대한 존중감이 아닌,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 개념 보충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구분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도덕 판단의 기준	• 각 개별 행위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 상황마다 가장 많은 행복을 낳는 행동을 선택	• 어떤 규칙이 사회 전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 일반적으로 지켜질 때 최대 행복을 낳는 규칙을 설정하고 준수
장점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 가능	예외를 줄여 도덕적 안정성 확보
한계	행위에 따른 결과를 계산하고 예측하기 어려움	규칙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123 제시된 글의 사상은 규칙 공리주의이다. 개별 행위가 낳는 쾌락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행위 공리주의와 달리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관련 규칙이 산출하는 최대의 행복을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개별 행위가 낳는 유용성이 아닌 최대의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행위 공리주의이다. ②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칸트이다. ④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나 성품의 선악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124 **모범 답안**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행복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갑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옳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지갑을 돌려줌으로써 지갑 주인의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막고, 사회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125 (가)는 개별 행위가 산출하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 공리주의이고, (나)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칙을 기준으로 유용성을 판단하는 규칙 공리주의이다.

126 그림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습관적 실천으로 형성되는 품성으로 보았고, 옳은 행위를 중용에 따른 선택으로 이해하였다.

바로알기 | ① 사회 전체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규칙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②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자기 보존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을 판단하는 것은 자연법 윤리이다. ③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칸트이다. ④ 행위로부터 산출되는 행복과 쾌락의 총량을 기준으로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1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으로 구분된다. 특히 도덕적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바로알기 | ①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며,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②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③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의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것이 자연법이며, 이를 토대로 실정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④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칸트이다.

128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과 습관화로 유덕한 성품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2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을 일시적 쾌락이 아니라 덕에 따른 지속적인 삶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덕이 반복적 실천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②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하는 사상은 공리주의이다. ④ 도덕적 행동을 자연 선택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은 진화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뇌의 특정 부위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신경 윤리학의 입장이다.

130 제시된 글은 덕 윤리의 입장이다. 덕 윤리에서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유덕한 행위자의 실천적 판단과 중용의 덕에서 찾았다.

바로알기 | 도덕적 판단이 뇌의 기능과 부위 간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신경 윤리학의 입장이다. 인간의 도덕성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행동 양식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라고 보는 관점은 진화 윤리학이다.

131 그림의 사상가는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덕 윤리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과 맥락 안에서 개인의 덕성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②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자연법에 드러나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법 윤리이다. ③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은 칸트의 입장이다. ⑤ 행위의 결과가 산출하는 행복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132 제시된 글에서는 진화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화 윤리학은 상호 협력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적응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133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을 이성적 사고와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작용으로 설명하였으며, 진화 윤리학은 이타적 행동의 기원을 자연 선택에 근거한 진화의 결과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보편적 도덕 법칙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려는 접근은 의무론적 접근이다. ㄴ. 도덕 판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선과 옳음의 의미를 밝히려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134 제시된 글은 도덕 과학적 접근법 중 신경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신경 윤리학에서는 뇌 영상 촬영 등 과학적 실험을 통해 도덕 판단에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① 보편적 도덕 법칙과 규범의 정당성을 탐구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② 사회마다 다른 도덕 관습과 규범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③ 도덕적 판단을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⑤ 사회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135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개인이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6 제시된 글의 사상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중시하였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양심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공동체의 전통과 공유된 가치에 부합되는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이다. ④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이다. 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이다.

137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구성원과의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였다.

138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며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ㄹ. 개인과 사회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만의 입장이다.

139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개인을 원자적 존재로 본다는 점은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140 제시된 글의 전문가들은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공동체의 가치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

141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자아로 보았다. 무연고적 자아란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42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선 참여를 중시하였고, 자유주의에서는 국가의 가치 중립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공동체의 전통과 무관하게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입장이 무제한적으로 모든 가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ㄹ. 사회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 개념 보충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구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기본 관점	• 개인을 사회의 출발점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봄 •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 공동체를 개인 형성의 토대로 보고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중시함 •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
국가의 역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역할 수행	공동선 실현을 위해 일정 수준의 개입과 역할 필요
도덕 판단 기준	개인의 선택과 권리 존중	공동체의 전통, 관습, 공유된 가치 중시

143 제시된 글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자아로 보았으며, 공동선과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보편적 인권을 근거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144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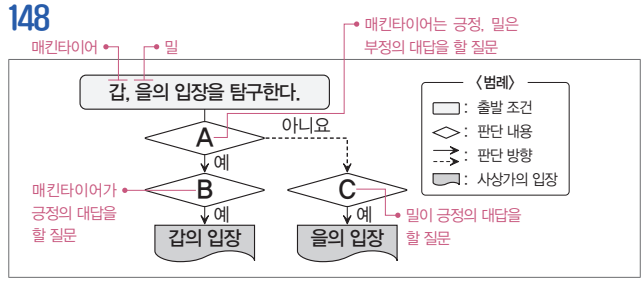
145 제시된 글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특정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국가는 공동체가 오랜 시간 형성해 온 전통적 덕목을 시민이 실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ㄹ. 국가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동선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146 제시된 글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147 **모범 답안** 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공동체주의에서는 국가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148



갑은 매킨타이어, 을은 밀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라고 보았다. 반면 밀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국가가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ㄷ.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1~02강 | 34~35쪽

149 ③ 150 ① 151 ④ 152 ① 153 ⑤ 154 ⑤
155 ① 156 ④

149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악으로 흐르기 때문에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보면 사회 혼란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순자가 맹자에게 제기할 수 있다. ㄷ. 예법과 같은 인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1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자연법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151 갑은 칸트, 을은 밀이다. 칸트는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행위의 동기가 있을 때 행위의 도덕적 가치가 생긴다고 보았다. 밀은 행위의 결과로 산출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했을 때 쾌락이 많을 경우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행위자의 품성을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덕 윤리의 입장이다.

152 (가)는 불교, (나)는 도가, (다)는 유교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② 예를 통해 욕망을 절제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 것은 유교 사상가인 순자이다. ③ 예와 악이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묵자의 주장이다. ④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엄격한 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⑤ 인간의 선천적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153 갑은 메타 윤리학, 을은 이론 윤리학, 병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언어와 추론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론 윤리학에서는 윤리 이론을 통해 현실 문제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실천 윤리학에서는 구체적 사회 문제

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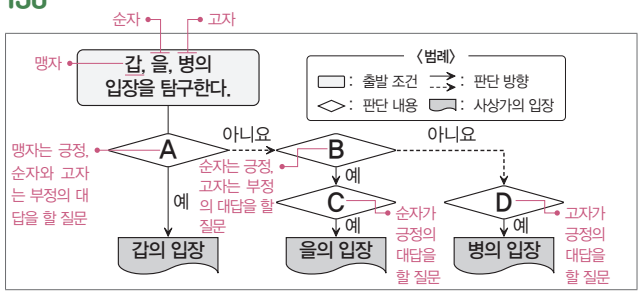
바로알기 | 윤리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도덕 문제 해결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윤리 문제를 타 학문과의 연계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154 갑은 밀, 을은 벤담, 병은 칸트이다. 밀은 높은 질의 쾌락을 추구하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벤담은 쾌락의 양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닌 의무를 따르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보는 의무론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밀은 쾌락보다 금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밀이 벤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공리주의자인 밀은 쾌락과 행복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③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였다. ④ 벤담은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155 (가)는 기술 윤리학, (나)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반면 규범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에 주력하는 정도(X)'는 낮고, '행위 구속력을 지닌 도덕규범의 제시를 중시하는 정도(Y)'와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보편적 도덕 법칙의 규명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156



갑은 맹자, 을은 순자, 병은 고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았고, 순자는 본성의 악함을 주장하였으며, 고자는 본성은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예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보았으며, 후천적 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03 삶과 죽음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38쪽

157 출생 158 일회성 159 윤회설 160 감각(기능) 161 소극적
162 기 163 육체 164 인공 임신 중절 165 불살생 166 비자발적

난이도별 필수 기출 38~45쪽

167 ③ 168 ⑤ 169 해설 참조 170 ① 171 ①
172 ③ 173 갑: 공자, 을: 석가모니 174 ④ 175 ④
176 ⑤ 177 해설 참조 178 ⑤ 179 ② 180 ②
181 이데아 182 ① 183 해설 참조 184 ⑤
185 ⑤ 186 한계 상황 187 ③ 188 ④ 189 ④
190 ② 191 ② 192 ② 193 ② 194 ④
195 해설 참조 196 ① 197 ② 198 해설 참조
199 ② 200 ② 201 ① 202 ② 203 ⑤
204 해설 참조 205 ③ 206 ④

167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출생이다.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며,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삶의 첫걸음이 된다. 또한 세대 간의 연결과 사회의 지속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168 죽음은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찾아오며, 한번 죽은 뒤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일회성을 지닌다.

바로알기 | ⑤ 인간은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169 **모범 답안** 죽음으로부터 연상되는 삶의 유한성은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를 숙고하게 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170 (가)에는 유교, (나)에는 애도가 들어가야 한다. 유교 사상가인 공자는 죽음보다는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교에서는 상례와 제례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171 제시된 글에는 불교 사상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즉 생로병사 중 하나로 보았으며,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다른 생으로 연결되는 윤회의 과정이므로 현세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연기(緣起)를 깨달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불교에서는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가르친다. ㄷ. 불교의 연기설에 따르면 삶과 죽음 역시 인과 관계를 초월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

17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장자는 죽음을 윤회의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 ② 불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④ 장자는 현세의 도덕적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⑤ 장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인 내세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173 갑은 공자, 을은 석가모니에 해당한다.

174 갑은 공자,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죽음을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매우 자연스러운 필연적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죽음을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받아들이며 초연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과 인륜적 삶을 중시하였다. ② 장자는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보았다. ⑤ 공자와 장자의 죽음관이 아니다.

175 갑은 장자, 을은 공자이다. 공자는 알 수 없는 사후 세계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장자에게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② 장자는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공자는 죽음을 고통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다. ⑤ 장자와 공자 모두 죽음을 삶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았다.

17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죽음을 이해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의 구속과 감각적 억압에서 해방되어 순수하고 참된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다. ② 야스퍼스의 죽음관이다. ③ 장자의 죽음관이다. ④ 플라톤에 따르면 불멸하는 영혼은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177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순수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17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그에 따르면 죽음은 모든 감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살아 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A에게 인간은 죽음 이후에 고통을 느낄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조언을 제시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②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신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③ 하이데거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④ 장자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17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죽음을 원자가 흩어지는 것으로 보고, 인간이 죽은 뒤에는 감각을 상실하게 되므로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불교의 죽음관이다. ③ 에피쿠로스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④ 플라톤의 주장이다. 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180 갑은 플라톤, 을은 장자이다. 플라톤은 장자와 달리 죽음을 영혼의 해방으로 보았으며, 죽음 이후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과 장자는 모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플라톤은 육체 안에 갇혀 있던 영혼은 인간이 죽을 때 육체와 분리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간다고 보았다. 즉 플라톤에게 죽음이란 영혼의 해방을 뜻한다. ㄹ. 장자는 삶과 죽음을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였으므로 삶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81 갑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만이 참된 실재이고,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은 죽음이란 영혼의 해방이며, 인간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182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영혼은 죽음 이후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 영혼과 육체가 모두 소멸한다고 보았으므로 플라톤은 에피쿠로스에게 죽음 이후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죽음이 감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③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소멸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④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의 해방으로 해석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⑤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이는 에피쿠로스 사상의 핵심이므로 에피쿠로스가 간과한다고 할 수 없다.

183 모범 답안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모두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인간은 죽음을 직시할 때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동시에,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직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삶의 유한성을 깨달음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은 타인이 대신 경험할 수 없는 현존재의 고유한 사건이다. ②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다. ③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해야 실존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 현세를 희생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18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윤리적 의미를 고민하는 A에게 삶의 유한성을 깨달음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조언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하이데거는 죽는다는 사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는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보았다. ② 하이데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물은 자신의 죽음을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못한다. ③ 플라톤의 죽음관이다. ④ 하이데거는 죽음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본래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186 야스퍼스는 죽음을 '한계 상황'으로 규정하고, 인간이 실존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 고난, 투쟁 등과 같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처음에는 좌절하지만, 결국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게 된다.

✓ 개념 보충

죽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

구분	사상가	죽음에 대한 관점 및 태도
동양	공자 (유교)	• 죽음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 현실의 도덕적 삶을 중시함 • 죽음에 대한 정성스러운 애도를 강조함
	석가모니 (불교)	• 죽음을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이자 업(業)에 따른 윤회의 과정으로 봄 •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함
	장자 (도가)	• 죽음을 기(氣)의 모임과 흩어짐,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순환 과정으로 봄 •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서양	플라톤	•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현상이라고 규정함 • 죽음은 순수한 지혜(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봄
	에피쿠로스	• 죽음을 원자의 해체에 따른 감각의 상실 상태로 봄 • 죽음은 경험할 수 없고 고통도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하이데거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봄

187 갑은 인간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 을은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갑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배아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갑과 같은 입장에 따르면 배아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을에게 배아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세포 덩어리에 불과함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을은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존재라고 볼 것이다. ② 을은 난치병 환자의 치료보다 배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할 것이다. ④ 갑은 배아 복제 기술을 허용하는 관점을 지니므로 배아 복제 기술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⑤ 을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므로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볼 것이다.

188 (가)는 배아를 도구로 간주하며 난치병 치료와 같은 유용성을 근거로 배아 복제를 허용하는 입장이고, (나)는 배아가 지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배아 파괴를 수반하는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에 따르면 배아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나)는 배아가 지닌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고, 배아의 생명이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가)는 배아를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다. ② (가)는 배아가 장차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적 과정을 밟는 것 자체는 과학적 사실로서 인정한다. ③ (나)는 배아가 유용성과 무관하게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지닌다고 본다. ⑤ (가), (나) 모두 배아 복제가 특정 성별의 인권 보호와 직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18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태어나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우생학과 복제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생명 공학 기술의 간섭과 조작 가능성이 커질수록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 가능성은 차단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가져다줄 좋지 않은 결과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② 요나스는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⑤ 요나스는 태어나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90 갑은 유전자 강화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격상시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갑은 유전자 강화를 인류의 잠재력을 완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보의 수단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을은 유전자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유전자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③ 을은 유전 공학을 통한 질병 치료 자체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④ 을은 유전자 강화가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질병 치료 목적의 유전자 치료'와 '자질 향상 목적의 유전자 강화 기술'을 구분하여 각자의 도덕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

191 갑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도 질병 예방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을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동의하나,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갑, 을은 모두 환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에는 동의한다. 다만 갑은 질병 예방을 위해 생식 세포 치료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며, 을은 후세대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므로 생식 세포 치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을은 후세대의 동의를 구할 수 없고, 우생학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강하게 반대한다. ㄹ. 갑, 을은 모두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갑은 허용, 을은 반대한다.

192 그림의 강연자는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하여 생명 옹호주의 입장을 지닌다. 생명 옹호주의 관점에서는 태아가 비록 현재는 온전한 이성이나 의식이 없을지라도, 장차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닌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는 선택 옹호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193 제시된 글은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하여 선택 옹호주의 입장을 지닌다. 이 관점은 여성의 소유권(신체에 대한 권리), 정당방위권, 자율권 등을 근거로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선택 옹호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신체는 여성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질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나 타인의 강요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자율권 보장을 지지한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생명 옹호주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이다.

194 갑은 태아를 온전한 생명체로 보아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생명 옹호주의 입장을, 을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선택 옹호주의 입장을 취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지니는 자율적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존엄성, 잠재성 논거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한다. ② 을은 소유권, 자율권 논거를 통해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한다. ③ 갑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미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모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

195 **모범 답안** 생명 옹호주의 입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근거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간과한다.

☑ 개념 보충

인공 임신 중절을 둘러싼 핵심 논거 비교

찬성 논거	반대 논거
• 자율권 논거: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 소유권 논거: 여성의 신체는 여성 자신의 소유이며, 태아는 여성 신체의 일부이므로 임신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여성이 결정함 • 정당방위권 논거: 원치 않는 임신이 여성의 건강과 삶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때, 여성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음	• 존엄성 논거: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완전한 인격체이므로 무고한 생명을 살해해서는 안 됨 • 잠재성 논거: 태아는 비록 이성적 사고 능력은 없으나, 장차 도덕적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니므로 보호받아야 함 •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죄 없는 인간으로서 태아는 그가 지닌 신성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됨

196 (가)는 유교 사상가인 공자, (나)는 불교, (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① (가)에 따르면 자살은 부모에 대한 효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바로알기 | ② 불교에서는 불살생의 계율을 근거로 자살을 금한다. ③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살이 신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그리스도교의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⑤ 불교와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두 자살을 금한다.

197 (라)를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자살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일이라고 보았으며, 자살은 도덕 법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칸트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살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보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ㄷ.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할 수 있다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198 **모범 답안** 자살을 예방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명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복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니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안락사에 찬성하는 진술이므로 칸트가 해 줄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200 제시된 글의 맥락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 존엄성 실현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은 환자의 자율적 의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③ 제시된 글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④, ⑤ 안락사를 반대하는 진술이므로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201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며,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부당한 안락사나 안락사를 빙자한 살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알기 | ㄴ, ㄷ.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02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은 ① 인간이 자기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③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④ 연명 치료가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⑤ 치유 불가능한 환자는 생명권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중시할 수 있다고 본다.

203 (가)는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의 주장을 (나)의 삼단 논법으로 탐구할 때 소전제 ㉠에는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위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는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므로 ㉠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 ②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진술이다. ③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이므로 ㉠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 ④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를 진술한 것이므로 ㉠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

204 **모범 답안** 연명 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

205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뇌가 죽으면 인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며,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갑: 뇌사는 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인간의 통합적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대하려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심장과 폐가 활동하는 이상 아직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기 이식의 유용성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장기 이식의 유용성 등을 근거로 뇌사에 찬성한다는 주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봄

갑은 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를 근거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을은 심폐 기능이 살아 있는 한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닌다. 따라서 두 사람이 토론하고 있는 대화의 핵심 쟁점은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가?'이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⑤ 갑과 을 모두가 긍정할 내용이다.

206 ㉠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을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죽어가는 다른 난치병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장기 이식의 유용성이다. 즉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의 논거가 된다. 반면 ㉡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들은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04 사랑과 성 윤리

개념 확인 문제 48쪽

207 사랑 208 보수주의 209 성적 자기 결정권 210 배려 윤리
211 상경여빈 212 자유주의 213 보수주의 214 공감 215 효
216 동기간

난이도별 필수 기출 48~55쪽

217 ⑤	218 ②	219 보호, 책임, 존경, 이해			220 ③
221 ④	222 ④	223 ①	224 ①	225 ⑤	226 ④
227 ⑤	228 해설 참조		229 ⑤	230 ⑤	231 ①
232 ⑤	233 ④	234 해설 참조		235 ②	236 ①
237 해설 참조		238 ⑤	239 ①	240 해설 참조	
241 ④	242 ①	243 ①	244 해설 참조		245 ①
246 ①	247 ④	248 ③	249 ④	250 ③	251 ⑤
252 ③	253 ②	254 ④			

217 스턴버그는 사랑이 친밀감(정서적 요소), 열정(동기적 요소), 헌신(인지적 요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하고 이상적인 성숙한 사랑(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스턴버그에 따르면 우애적 사랑, 도취적 사랑, 공허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③ 헌신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은 친밀감, 열정, 헌신의 완전한 결합을 성숙한 사랑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한 스턴버그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21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보호, 책임, 존경의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프롬이 말하는 존경이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상대방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희생적 요소가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고유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 ① 프롬이 주장한 진정한 사랑의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진술이다. ③ 사랑의 요소 중 이해를 표현한 진술이다. ④ 사랑의 요소 중 존경을 표현한 진술이다. ⑤ 사랑의 요소 중 보호를 표현한 진술이다.

219 ㉠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프롬이다. 프롬은 사랑이 하나의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해, 보호, 책임, 존경을 사랑의 필수 요소로 제시하였다.

22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경하는 것이지 지배하거나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프롬은 사랑도 하나의 기술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점을 긍정하였다. 따라서 〈가상 대담〉에 참여한 프롬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책임, ②는 이해, ④는 존경, ⑤는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221 갑은 보수주의 입장, 을은 중도주의 입장을 지닌다. 중도주의 관점에서는 사랑 없는 성적 관계를 반대하며, 사랑이 성의 인격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본다. 중도주의에 따르면 성적 관계의 본질적 근거는 사랑에 있으므로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바로알기 | ① 보수주의는 종족 보존과 직결된 생식적 가치를 중시한다. ② 보수주의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을 허용한다. ③ 중도주의는 성적 관계의 정당화 근거로 자발적 동의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⑤ 보수주의와 중도주의는 모두 성적 관계도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개념 보충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윤리적 관점

구분	핵심 가치 및 정당화 조건
보수주의	• 성의 생식적 가치를 중시함 •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 중시 → 혼전에 맺는 성적 관계에 부정적임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부부간의 신뢰를 강조함
중도주의	• 성의 인격적 가치를 중시함 • 사랑이 전제된 관계를 중시함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연인 간의 진정한 사랑과 정서적 교감이 전제된다면 성적 관계를 허용함
자유주의	• 성의 쾌락적 가치를 중시함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발적 동의를 중시함 • 성인 간의 자발적 합의와 해악 금지 요건이 충족되면 성의 목적(사랑, 출산 등)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함

222 칸트는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하여 보수주의 입장을 지닌다. 칸트는 인간의 인격을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정언 명령을 제시하였다. 칸트는 상호 간에 무한한 책임과 헌신을 서약하는 혼인 관계를 벗어나 쾌락만을 위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단지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칸트는 모든 성적 관계가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칸트에 따르면 실천 이성은 쾌락을 무제한으로 추구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다. ⑤ 칸트는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 없이 쾌락만을 위해 성을 즐기는 행위를 비판하였으므로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23 제시된 가상 편지는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자유주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성숙한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중도주의에 해당한다. ③ 보수주의에 해당한다. ④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⑤ 자유주의는 성의 쾌락적 가치를 중시한다.

224 (가)는 성적 관계의 정당화 조건으로 해악 금지와 자발적 동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입장이고, (나)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만을 정당하다고 보는 보수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에 비해 '성의 쾌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도(X)'가 낮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으며, '성적 관계에 있어 부부 간의 신뢰를 강조하는 정도(Z)'도 높다.

225 갑은 보수주의, 을은 중도주의 입장에서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본다. 보수주의 입장에 따르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란 법적 계약이 필요하며, 중도주의 입장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아니어도 연인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두 입장 모두 성숙한 성인 간의 성적 관계가 항상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ㄴ. 보수주의에서는 결혼을, 중도주의에서는 사랑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226 갑은 자유주의, 을은 보수주의 입장에서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본다. 자유주의 입장은 보수주의 입장을 향해 성적 관계의 도덕적 정당성을 결혼과 출산이라는 엄격한 조건으로 묶어 두는 등 지나친 윤리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도주의이다. ② 자유주의는 어떠한 윤리적 제약도 없이 성적 관계가 방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③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때 성적 관계가 정당하다고 본다. ⑤ 보수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므로 (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2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하여 보수주의 관점을 지닌 칸트이다. 칸트는 성적 관계가 인간을 감각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으며, 오직 결혼을 통해 서로의 인격 전체를 책임질 때만 성적 관계가 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A에게 인격을 수단화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 없이는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칸트는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법적 계약인 결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성적 쾌락이 행복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지 않았다.

228 **모범 답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229 제시된 글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랑과 성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러한 입장은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성을 유희의 도구로 삼거나 상품화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바로알기 | ① 중도주의에 해당한다. 자유주의는 자발적 동의와 해악 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성적 관계의 정당성을 논한다. ② 자유주의는 성의 쾌락적 가치를 중시한다. ③ 자유주의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④ 보수주의에 가깝다.

230 제시된 글에 따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알기 | ①, ② 제시된 글은 주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따라서 글의 입장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③ 제시된 글의 입장에 따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④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자신이다.

23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성을 도구로만 취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칸트는 〈문제 상황〉 속 A에게 성 상품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지 않는다. ③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입장에 어긋난다. ④ 칸트는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볼 것이다. ⑤ 칸트는 인간의 성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232 (가)는 성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는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다. (가)는 성 상품화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상품화가 인간의 가치를 격하한다고 비판한다. (나)는 성도 상품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개인의 신체에 대한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성 상품화를 반대하는 (가)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며, (나)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을 들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어떠한 제약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233 갑, 을, 병, 무는 성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은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다.

234 **모범 답안** 성에 관한 개인의 올바른 의식 함양과 더불어 성 상품화를 규제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23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보부아르이다. 보부아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다움이나 여성성이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남성을 주체로,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며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① 보부아르는 여성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③ 보부아르는 성차별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④ 보부아르는 사회적·문화적 산물인 여성다움을 거부할 때 참된 실존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보부아르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를 근거로 사회적·권력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23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보부아르이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여성다움은 생물학적 숙명이 아니라 후천적 산물이며, 남성과 여성은 모두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알기 |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보았으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자율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7 **모범 답안** 정의 윤리는 보편적 도덕 원리나 규칙, 이성, 권리 등을 중요시하는 윤리 이론이다. 반면에 배려 윤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갈등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성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살펴보는 것을 중시하는 윤리 이론이다.

238 (가)는 배려 윤리, (나)는 정의 윤리에 해당한다. 정의 윤리는 보편적 도덕 원리나 규칙, 이성, 권리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정서나 감정을 경시한다. 배려 윤리는 배려의 관점을 중심으로 도덕적 문제 상황의 특수성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이성적 판단보다 공감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배려 윤리이다.

239

정의 윤리는 공정성을 추구하며,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와 규칙 등을 중시함

(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서나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이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공정성, 보편적 도덕 원리 등이 중요하다.

(나) 도덕적 갈등 상황은 저마다 특수한 상황과 맥락하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공감과 같은 감정이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유대감, 책임 등이 중요하다.

배려 윤리는 배려와 공감을 추구하며,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구체적 상황의 맥락 등을 중시함

(가)는 정의 윤리, (나)는 배려 윤리의 관점을 보여 준다. 배려 윤리는 정의 윤리에 비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도(X)'가 낮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있어 관계와 책임을 중시하는 정도(Y)'는 높으며, '도덕적 문제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240 **모범 답안** 보부아르는 여성다움이란 사회적·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여성들이 주체성을 자각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았다.

241 제시된 글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까닭과 성차별이 불러올 문제를 언급하면서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에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타파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법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특정 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알기 | ㄹ. 성별만을 근거로 경쟁의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차별을 심화한다.

242 그림의 강연자에 따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행사할 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바로알기 |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에 따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타인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다면 책임과 배려를 실천하기 어렵다. ㄷ.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243 ㉠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는 부부이다. 유교에서는 부부가 예를 갖추어 서로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헤겔은 결혼을 서로가 사랑으로써 합일을 이루는 계기라고 보고, 결혼으로 성립되는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44 **모범 답안**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부부이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는 부부는 각자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부유별과, 부부는 서로 손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상경여빈 등이 있다.

24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선 시대 유학자인 이황이다. 이황은 부부간의 윤리로 상경여빈(相敬如賓)의 태도를 언급하며 부부가 상대방을 손님 모시듯 존중하고 공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A에게 부부 사이에는 마치 서로를 귀한 손님처럼 정성을 다해 공경해야 한다는 상경여빈의 자세를 기억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은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것은 부부유별에 어긋난다. ③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실천해야 할 윤리이다. ④ 음양론의 관점에서 부부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⑤ 부부는 배우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246 제시된 칼럼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부부간의 윤리를 소개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남녀의 역할을 구별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부부유별과 부부상경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부부유별은 남녀의 신체적 차별이나 억압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각자의 역할에 따른 분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교에서는 부부 관계를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며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부부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서로 이끌어 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권면해야 한다. ㄹ. 부부유별은 서로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원리가 아니다.

247 헤겔은 결혼을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적 계약이나 자연적 본능의 결합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결혼을 두 인격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인륜적 결합이라고 보았으며, 가족을 인륜의 시초로 규정하였다.

바로알기 | ① 결혼을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적 계약으로 격하하는 것은 헤겔의 관점과 대치된다. ② 헤겔에 따르면 인륜의 첫 단계는 가족이며 인륜의 마지막 단계는 국가이다. ③ 헤겔은 결혼과 관련하여 영속적 결합을 중시하였다. ⑤ 헤겔은 결혼이 유대감 없이 법적 구속력만을 갖는 형식적 계약이라고 보지 않았다.

248 유교에서는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효를 제시한다. 여기서 효란 자식이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넘어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 자체를 말한다.

24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는 친애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지는 친애의 특성이 다르며, 각자의 탁월성과 기능, 사랑하는 이유 또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부모와 자녀의 친애는 동일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존재와 역할에 합당한 것을 되돌려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① 부모와 자식은 각자 서로에게서 동일한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②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는 친애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지는 친애는 서로 같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다. ③ 부모와 자녀는 각자 서로 다른 탁월성을 지니며, 해야 할 기능도 다르다고 보았다. 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본성적 친애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50 가상 대화 속 스승은 유교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유교의 입장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천륜으로 맺어진 하늘의 인연이며, 자녀는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효(孝)를 실천해야 한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애(慈愛)를 실천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유교 사상을 따르는 스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유교 사상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적 도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251 제시된 글은 유교 경전 중 『효경』의 일부이다. 유교 사상을 강조하던 전통 사회에서는 효의 실천 방법으로 불감훼상, 양지, 봉양, 입신양명 등을 강조하였다. 자녀는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봉양(奉養)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부모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양지(養志)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훌륭히 성공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효의 완성으로 이루어야 한다.

바로알기 | ㄷ. 유교 사상에 따르면 불감훼상(不敢毁傷)은 효의 완성이 아니라 효의 시작이다.

252 형제자매는 '동기간', 즉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공유한 존재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형제자매는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형우제공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가족 관계 윤리에 따르면 〈문제 상황〉 속 고등학생 A에게 형우제공(兄友弟恭)의 윤리적 자세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오직 부모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② 형제자매 관계는 수직적 질서와 수평적 관계가 공존하므로 무조건 동생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형제자매 간에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효의 실천과 직결된다. ⑤ 형제자매 간의 윤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를 배우는 기반이 된다.

253 형제자매는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 동기간이므로 ㉡ 당사자들의 선택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라는 내용은 옳지 않다.

✓ 개념 보충

가족 관계 윤리

관계	핵심 윤리 및 사상
부부	• 부부는 인륜의 시작임 • 부부유별: 남녀의 위계적 차별이 아니며 각자의 고유한 가정 내 역할을 존중함 • 상경여빈: 가장 친밀한 사이일수록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함
부모와 자식	• 자애: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함 • 효: 자식은 물질적 봉양을 넘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함
형제자매	• 같은 부모의 기운을 공유한 동기간임 • 형우제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해야 함 • 형제자매 간 윤리는 사회적 윤리와 교우 관계를 학습하는 훌륭한 기반이 됨

254 제시된 글은 오늘날 1인 가구 급증과 출산율 저하 현상이 불러온 사회적 고립과 가족 해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가치에 주목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오늘날 가족과 관련한 사회 문제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시된 글은 부모와 자녀를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로 보고, 가족 구성원이 인과 예를 바탕으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사회 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가족 해체 현상은 가족 간 공동체 의식이 약화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② 출산율 감소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③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어렵다. ⑤ 가족 구성원은 인과 예를 바탕으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한다.

05 자연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58쪽

255 간접적 256 괘고 감수 257 연기설 258 책임
259 지속가능한 260 베이컨 261 생명 외경 262 천인합일
263 기후 264 교토 의정서

난이도별 필수 기출 58~67쪽

265 ④ 266 ① 267 ⑤ 268 ② 269 ① 270 ④
271 ③ 272 해설 참조 273 ④ 274 ②
275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276 ④ 277 ③ 278 ③
279 해설 참조 280 ② 281 해설 참조 282 ①
283 ⑤ 284 ④ 285 ③ 286 슈바이처 287 ⑤
288 ② 289 ① 290 ① 291 ⑤ 292 ③
293 해설 참조 294 ⑤ 295 ③ 296 해설 참조
297 ② 298 ③ 299 ④ 300 ③ 301 ③ 302 ②
303 ④ 304 ③ 305 ① 306 ⑤ 307 ⑤
308 해설 참조 309 ⑤ 310 ③ 311 요나스 312 ④
313 해설 참조 314 ②

265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이익,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하므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이다. ②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내재적 가치가 아닌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 ③ 생명 중심주의 혹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탈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26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며 과학 지식을 통한 자연 정복과 인간의 생활 개선을 강조하였다. 베이컨은 목적 없이 방치된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고 과학적 지식을 쌓는 목적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함으로써 인간이 물질적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베이컨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지배를 장려하였다. ③ 베이컨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로 보았다. ④ 베이컨은 인간 이성과 관찰에 관한 신뢰를 토대로 자연을 분석하고 지배하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26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는 정신(영혼)과 물질(육체)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간만이 존엄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반면에 동물은 이성과 영혼이 없는 단순한 물질이자 시계와 같은 자동 기계에 불과하므로 감각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데카르트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을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지 않았다. ② 데카르트는 자연이 의식을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③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데카르트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동물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레건의 입장이다.

268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아퀴나스는 동물을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진 도구적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이 동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자연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여 인간을 우위에 두었다. ③ 두 사상가 모두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니므로 자연이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보지 않았다. ④ 두 사상가 모두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지 않았다. ⑤ 두 사상가 모두 생태계 전체를 위해 개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았다.

269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를 따를 수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 → 칸트는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고 봄

> 인간은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행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이러한 행위는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하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고 봄 →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동물과 관련된 의무는 인간의 도덕성을 위한 간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은 사상가는 싱어이다. ㄹ. 칸트는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보았다.

270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도덕적 지위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였지만, 당장 눈앞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 결국 미래 세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류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②, ③, ⑤ 인간의 이익을 중시하지만, 인간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271 갑은 베이컨, 을은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동물과 관련한 의무는 인간을 위한 간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이컨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칸트는 동물이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⑤ 데카르트와 칸트는 모두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므로 인간을 우위에 두는 관점을 지녔다.

272 **모범 답안** ㉠은 인간 중심주의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인간 중심주의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정당화하여 환경 문제를 불러왔다는 한계도 지닌다.

27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상 대담〉의 (가)에 들어갈 말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가?'이다.

바로알기 | ①, ③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다. ② 생명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다. ⑤ 어떠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므로 싱어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27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동물들이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추론이나 대화 능력을 지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의 이익 또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⑤ 싱어는 이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동물이라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④ 생명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테일러의 입장에 해당한다.

275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즉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건이다. 레건은 지각과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쾌고 감수 능력, 선호와 복지 등을 지닌 인간과 일부 포유류 등은 모두 삶의 주체로서 결코 타인을 위한 자원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일부 포유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레건은 의무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에 대한 동물 실험에 반대하였다. ⑤ 레건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277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레건이다. 레건은 이성이 없고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못하는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며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레건은 이성이나 언어 능력이 없는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ㄹ.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는 지각, 기억, 쾌고 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식과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지닌다.

27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건이다. 레건에 따르면 이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등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

바로알기 | 레건은 이성이 없는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삶의 주체인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데 반대하였다.

279 모범 답안 갑은 싱어, 을은 레건이다. 두 사상가는 동물 중심주의 자연관을 토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80 갑은 싱어, 을은 레건이다. 싱어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레건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삶의 주체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였다. 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을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281 모범 답안 갑은 레건, 을은 싱어로, 두 사상가 모두 동물 학대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레건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 개념 보충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의 입장 비교

구분	싱어	레건
주요 관점	공리주의	의무론
도덕적 고려 기준	쾌고 감수 능력	삶의 주체
핵심 원리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삶의 주체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됨
공통점	•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음 • 공장식 축산, 맹목적인 동물 실험, 동물을 유희의 도구로 삼는 관행 등을 비판함	

282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식물과 같은 다른 생물의 종이나 생태계의 균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알기 | ②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관행을 비판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③, ⑤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

283 갑은 동물 실험이 난치병 치료와 같은 인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대신 실험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동물 실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는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가?'이다.

바로알기 | ① 갑, 을 모두 동물이 이성적 존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② 갑, 을 모두 동물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③ 갑, 을 모두 동물 실험이 현대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을은 의학적 발전이 중요하더라도 동물 실험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갑, 을 모두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규제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284 갑은 칸트, 을은 레건이다. 칸트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간접적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았으며, 레건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는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두 사상가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고,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도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ㄷ. 레건은 개체론적 입장에서 대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삶의 주체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285 개체론은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 윤리 이론으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개체론은 생태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알기 | ①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②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 모두 무생물이나 식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고 보지 않는다. ④ 인간 중심주의에서 부정할 진술이다. ⑤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동물의 고통 경감보다 인간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항상 우선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86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한 사상가는 슈바이처이다.

28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슈바이처이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동등하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할 때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위한 생명체의 희생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진술은 슈바이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288 자연 존중을 위한 네 가지 의무를 주장한 사상가는 테일러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테일러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 고유한 선을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테일러는 인간도 지구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므로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③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④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개체론적 관점을 지닌다. ⑤ 테일러는 고유한 선을 지닌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테일러의 자연 존중을 위한 네 가지 의무

의무	핵심 내용
악행 금지의 의무	고유한 선을 지닌 생명체에게 이유 없이 함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소극적 의무
불간섭의 의무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생태계 전체를 인간의 목적에 따라 조작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성실(신의)의 의무	인간의 즐거움이나 유희를 위해 사냥이나 낚시 등으로 야생 동물을 기만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등 불가피하게 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28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테일러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지니는 고유한 선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개체론적 관점을 지닌다. 생태계 전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레오폴드의 입장에 가깝다.

290 갑은 테일러, 을은 레건이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관점에서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 모두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테일러는 의식이 없는 식물도 생존과 성장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ㄹ. 레건은 도덕적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삶의 주체라면 본래적 가치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29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테일러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는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모든 식물과 동물은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생존과 번식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ㄴ. 이성적 존재인 인간도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이므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292 (가)에 들어갈 말은 생명 중심주의이다. 생명 중심주의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잡초나 들꽃과 같이 의식이나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다. ②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중 싱어의 입장과 가깝다. ④ 테일러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⑤ 생명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체론적 관점을 지닌다.

293 **모범 답안** 갑은 슈바이처, 을은 테일러이다. 두 사상가 모두 생명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다. 이 관점은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개별 생명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29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생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가 인간의 이해와 무관하게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레오폴드는 대지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② 레오폴드는 인류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이자 정복자에서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생태계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③ 레오폴드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 등의 무생물까지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④ 레오폴드는 개체론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일론적 관점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시하였다.

295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동물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레건의 입장이다. ㄹ. 레오폴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지 이용을 인정하되, 윤리적·심미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6 **모범 답안** 갑은 레오폴드, 을은 네스이다. 두 사람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생태 중심주의란 전일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확대하는 관점을 말한다.

29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식물뿐만 아니라 흙과 물 등을 포함하는 대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④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다. ③ 레오폴드는 동식물과 무생물 또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다. ⑤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개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전일론적 관점을 지녔다.

298 갑은 테일러, 을은 레오폴드이다. 테일러의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다.

바로알기 | ㄱ. 테일러는 부정, 레오폴드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식물을 자원이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299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서 무생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았지만,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관점에서 생명체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에 레오폴드는 긍정, 테일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⑤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테일러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00 제시된 칼럼에서는 생태 중심주의가 지닌 윤리적 의의와 함께 그 한계를 제시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 관점에서 개별 생명체를 넘어 생태계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통찰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생태계의 온전성이라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 파시즘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다. ②, ④, ⑤ 생태 중심주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301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사상가이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사상가로서 전일론적 관점을 지닌다. 그에 따르면 개별 생명체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우선한다.

바로알기 | ① 칸트가 아닌 싱어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레건은 일부 동물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⑤ 레오폴드에 따르면 대지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302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면서 개별 유기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테일러는 고유한 선을 지닌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되, 불가피하게 생명체를 해쳐야 할 때는 우선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계 전체를 중시하는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생명체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 테일러를 향해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 공동체까지 확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레오폴드는 개체로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였으므로 레오폴드가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다. ③ 테일러가 간과하는 진술이 아니다. ④, ⑤ 개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명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테일러가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다.

☑ 개념 보충

개체론적 관점과 전일론적 관점

구분	개체론적 관점	전일론적 관점
핵심 내용	• 각각의 개체가 도덕적 존중의 궁극적 대상이자 내재적 가치의 주체라고 봄 • 생태계는 개체들의 합에 불과하다고 봄	• 개체보다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봄 • 생태계 전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이 도덕 판단의 궁극적 기준이라고 봄
한계	무생물(물, 토양 등)의 가치를 배제하고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안정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음	생태계 전체의 선(善)을 위해 특정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 파시즘이라는 비판을 받음

303 ㉠은 유교 사상이다. 유교 사상은 하늘(자연)을 도덕적 근원으로 보았으며, 인간이 자연의 도덕성을 본받아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다. ② 순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유교 사상의 입장과 달리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보고자 하였다. ③ 불교 사상의 입장에 가깝다. ⑤ 도가 사상의 입장에 가깝다.

30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불교의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연기설을 토대로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만물이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뭇 생명을 향해 차별 없는 큰 사랑인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다. ② 불교에서는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경제적 효용성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④ 불교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⑤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이라고 보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설에 어긋난다.

305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즉 모든 존재는 각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과 조건 아래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여 모든 생명을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② 불교에서는 만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연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므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단순한 외부 대상이나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지 않는다. ③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제법무상(諸法無常)의 입장을 취하므로, 자연 속에서 불변하는 실체를 찾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④ 무위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 사상에 해당한다. 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생명체를 차별 없이 대하는 자비의 실천을 중시한다.

306 제시된 글에는 도가 사상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도가에서는 자연을 무목적의 질서로 보면서 인간의 인위적인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또한 도가 사상에 따르면 도의 관점에서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하며, 인간이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처럼 행동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ㄱ. 도가 사상은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이 사회 혼란과 자연 파괴를 불러온다고 비판한다.

307 유교에서는 하늘을 도덕적 가치의 근원으로 보고,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인(仁)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지향함

(가) 군자는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仁愛)하며 만물을 아낀다. –『맹자』

(나) 한 개의 작은 티끌 가운데서 수많은 세계를 보며, 온갖 세계가 그 안에 있다. –『화엄경』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봄

(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덕경』
도가에서는 인간이 도에 따라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가)는 유교, (나)는 불교, (다)는 도가 사상의 자연관을 보여 준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자연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바로알기 | ①, ③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에 가까운 진술이다. ②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④ 동양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308 **모범 답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은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309 그림의 강연자는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 정의의 실천과 전 지구적 협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기후 변화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본다.

310 기후 변화에 따른 부정의는 기후 위기를 불러온 행위자와 피해를 보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기후 정의를 실현하려면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는 각국의 경제 성장 정도나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알기 | ① 기후 변화에 대한 A국의 역사적 책임이 크지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A국 홀로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후 정의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④ B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의 생존과 직결된 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⑤ 각 국가가 오직 자국민의 생존권만 보호한다는 것은 국제적 연대와 윤리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이므로 기후 정의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311 제시된 글과 같은 새로운 정언 명령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그는 인류가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세대가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기술이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게 되면서 인간 행위가 미치는 인과적 범위가 전례 없이 시공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현세대의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므로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자연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예견할 수 있는 결과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및 자연 사이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교환하는 호혜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책임의 근거를 현세대의 인간만이 지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두었다. ③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막연한 희망보다는 예견되는 공포로부터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의 의무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는 곧 자연과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로 직결된다고 강조하였다.

✓ 개념 보충

요나스의 책임 윤리

구분	주요 내용
책임의 대상	윤리적 책임의 대상을 현세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의 인류와 자연(생태계)으로 확장함
책임의 성격	• 권리와 의무를 상호 교환하는 호혜적 책임을 넘어선 일방적·비호혜적 책임을 강조함 • 미래 세대나 자연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현세대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함
책임의 근거	오직 현세대의 인간만이 책임의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님 → 그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류 존속을 위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무조건적 당위가 됨
도덕적 지침	인류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공포의 발견술을 바탕으로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 및 비의도적 결과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함

313 모범 답안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314 국제 사회는 국가 간 합의를 통해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교토 의정서(1997년), 파리 협정(2015년)을 맺었으며, 습지를 보존하고자 람사르 협약(1971년)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 등을 규제하고자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를 맺었다.

바로알기 | ㄹ.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3~05강 | 68~71쪽

315 ②	316 ②	317 ②	318 ③	319 ⑤	320 ②
321 ④	322 ②	323 ③	324 ⑤	325 ③	326 ⑤
327 ④	328 ②	329 ⑤	330 ②		

315 갑은 공자, 을은 장자이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 예를 갖추어 애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장자는 죽음이란 자연적 과정이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공자 입장에서 장자에게 타인의 죽음에 대해 예(禮)를 갖추어 애도해야 함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사후 세계나 내세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집중하므로 공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③, ⑤ 공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④ 장자는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함을 강조한다.

316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죽음 이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소멸한다고 보았으며, 죽음을 감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의 해방으로 보았으며, 죽음을 통해 순수한 진리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 없어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ㄹ. 플라톤은 인간은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데아에 대한 앎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죽음의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317 갑은 인간 배아가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될 잠재성을 가지므로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배아를 파괴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면에 을은 인간 배아가 잠재적 인간일 뿐이며, 현재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을 찬성한다. 즉 갑과 달리 을은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갑, 을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을과 달리 갑은 배아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갑, 을은 배아를 질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갑과 달리 을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난치병 치료 등의 유용성을 근거로 배아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을만 긍정하는 진술이다. ㄷ. 을은 배아에게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본다.

318 갑은 태아의 잠재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생명 옹호주의 입장을 지닌다. 반면에 을은 여성의 몸에 대한 소유권과 자율성을 근거로 체외 생존이 불가능한 시기의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선택 옹호주의 입장을 지닌다. 갑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을은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여성의 선택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갑, 을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②, ④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적 쟁점이 아니다. ⑤ 제시된 토론만으로는 모체의 건강 상태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319 제시된 칼럼은 소극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약물을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칼럼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칼럼은 소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③ 칼럼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통만 주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지속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④ 칼럼은 치료 효과가 없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320 갑, 을은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다. 갑은 장기 이식이라는 사회적 유용성을 근거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규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을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유용성에 따라 죽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바로알기 | ① 갑은 뇌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다. ③ 을은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을 우려한다. ④ 을은 유용성을 근거로 죽음의 기준을 정하자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⑤ 을만의 입장이다.

321 그림의 강연자는 프롬이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능동적 활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자, 상대방의 개성을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며, 상대를 지배하

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ㄴ. 프롬이 말하는 존경이란 상대를 자신의 목적대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게 존경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가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32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성적 관계가 인간을 감각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혼인 계약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법칙에 의한 필연적 계약으로, 서로가 성적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

바로알기 | 칸트는 사랑이 전제되더라도 혼인이라는 법적 계약이 없다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성과 사랑의 관계를 보수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칸트에 따르면 자발적 동의만으로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23 갑은 중도주의, 을은 자유주의 입장을 지닌다. 중도주의에서는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랑이 전제된다면 성적 관계가 정당하다고 본다. 자유주의에서는 자발적 동의와 해악 금지가 충족된다면 성적 관계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바로알기 | ㄱ. 중도주의는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ㄹ. 자유주의는 성적 관계의 정당화 조건으로 해악 금지와 더불어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한다.

324 제시된 글에는 부부간의 윤리에 대한 유교의 입장이 나타난다.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음을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효와 인륜의 시작으로서의 부부 관계를 중시한다. 이러한 유교 사상에 따르면 부부 관계는 인륜의 시작으로,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하며,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 상황〉의 A에게 부부는 서로 공경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알기 | 유교 사상에 따르면 ① 부부는 각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다해야 한다. ② 부부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 예(禮)를 지켜야 한다. ③ 남편과 아내는 도리에 맞게 서로 조언하여 바른길로 이끌어야 한다. ④ 유교 사상에서 제시하는 부부유별은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서열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325 제시된 가상 편지에는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이 담겨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효를 실천할 때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하게 하는 불감훼상,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입신양명 등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전통 사회에서는 물질적 봉양만으로 효가 충분히 완성된다고 보지 않았다. 효를 실천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내면의 공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ㄴ.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뜻이 도리에 명백히 어긋날 때는 부드러운 말로 간언하는 것이 참된 효라고 보았다.

326 갑은 싱어, 을은 칸트이다. 동물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싱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속한 인간 종의 이익을 다른 종에 속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옹호하는 종 차별주의도 배척해야 한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로,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하므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칸트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인간성을 약화한다고 보았다. 그는 간접적 의무로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주장하였으므로 ㄱ의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ㄴ. 싱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ㄴ의 질문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327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테일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 모두 인간이 생존을 위한 식량 등 자원으로 동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테일러가 제시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로, 테일러만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32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건이다. 동물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진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는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복지 등을 지닌 존재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는 인간이 삶의 주체를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레건은 생명 공동체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보다 삶의 주체인 개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체론적 입장을 지닌다. ④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공리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동물 중심주의를 제시한 싱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29 갑은 베이컨, 을은 노자이다.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기반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인간이 도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자는 베이컨에게 인위적인 욕망을 버리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라고 보았으며, 자연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베이컨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③, ④ 노자는 인과 예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과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노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330 갑은 오늘날의 기후 위기가 선진국들의 과거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누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반면에 을은 과거의 배출량보다는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무거운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을은 개발 도상국 역시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갑의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⑤ 갑, 을 모두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06 과학기술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74쪽

331 파놉티콘 332 지상주의 333 가치 중립성 334 외적(사회적)
335 공포의 발견술 336 혐오주의 337 야스퍼스 338 외적
339 빅 브라더 340 요나스

난이도별 필수 기출 74~79쪽

341 ④ 342 과학기술 지상주의 343 해설 참조
344 ① 345 ④ 346 ④ 347 ⑤ 348 ① 349 ③
350 ⑤ 351 갑: 야스퍼스, 을: 하이데거 352 ② 353 ③
354 ③ 355 ⑤ 356 ③ 357 ① 358 ④ 359 ⑤
360 기술 영향 평가 제도 361 ⑤ 362 ② 363 ②
364 해설 참조 365 ③ 366 공포의 발견술 367 ②
368 ③

34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는 기술 지배 현상과 비인간화 현상, 대량 생산 및 소비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생명의 존엄성 훼손 및 인간 정체성 혼란 문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있다.
바로알기 | ㄷ.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는 생태계의 온전성이 파괴되어 동식물 종이 감소한다는 것이 있다.

342 제시된 글은 베이컨이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한 '뉴 아틀란티스'를 묘사하고 있다. 베이컨은 과학기술로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3 **모범 답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빅 브라더가 출현하거나 전자·정보 파놉티콘 사회가 도래하는 등 개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44 제시된 글에서는 인간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 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345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생산과 소비로 자원이 고갈되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치 추적 기술, 감시 카메라 기능 등이 발전하여 거대 감시 체제인 파놉티콘 사회가 등장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346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본다.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347 갑은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고, 을은 과학기술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과학자가 과학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과학 연구 결과의 진위 여부는 두 입장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② 과학 연구 대상을 설정할 때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다고 보는 관점은 과학기술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만의 주장이다. ③ 과학 연구의 관찰과 실험 과정에서 객관성 유지는 두 입장 모두 강조한다. ④ 두 입장 모두 과학적 사실은 주관적 가치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48 갑은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았고, 을은 과학기술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 배제를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Y)'와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 개념 보충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관한 논쟁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	과학기술이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강조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부정	과학기술은 가치 판단을 통한 윤리적 규제의 대상

349 제시된 편지를 쓴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탈은폐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ㄹ. 하이데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하면 인간이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3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도구주의적 관점이나 가치 중립적 시각을 경계하였으며, 기술을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그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보지만 이는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표현은 아니며,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ㄴ. 하이데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며, 기술이 인간의 삶과 존재 방식에 깊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51 야스퍼스는 과학기술을 선도 악도 아닌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반면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을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긴다면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하였다.

352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을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며, 공허한 힘과 같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③ 하이데거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자연을 자원으로,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자로 기능하도록 닦달하는 것과 같이 탈은폐의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하이데거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기술에 지배받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의 위험성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35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를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았다.

354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현대인이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술을 단순한 가치 중립적 수단으로만 고찰해서는 안 된다.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하이데거는 기술이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탈은폐의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ㄷ.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보았다.

35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연을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하고 기술을 통해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하이데거는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② 하이데거는 기술이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탈은폐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④ 하이데거는 기술을 인간의 의지에 종속된 도구로 보는 관점이 인간을 기술에 더욱 종속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부자유스럽게 붙들려 무방비하게 내맡겨진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356 갑은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을은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자가 연구 윤리 준수와 같은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보았다.

357 (가)는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나)는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ㄷ.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ㄹ.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 개념 보충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내적 책임 (개인적 책임)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예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금지
외적 책임 (사회적 책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358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과학자가 연구의 사회적 영향과 위험을 고려하고, 연구의 위험성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359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입장

과학기술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와 긴밀히 상호 작용한다. 따라서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접근은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키워 대중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과학기술이 자연의 반영이고 사회적 요인에 오염되지 않은 합리성의 산물이므로, 과학기술은 전문가들의 독점적 영역으로 남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가) 고 본다.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입장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입장에 대해 비판할 내용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시민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360 기술 영향 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361 갑은 과학기술자가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을은 내적 책임 이외에 외적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362 갑은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을은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 대해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간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과장하는 것은 과학기술 혐오주의이다. ③ 연구 과정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은 을의 핵심 주장이므로, 이를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갑은 과학자가 내적 책임을 넘어서 외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을이 '내적 책임만을 져야 함'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연구 과정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을의 입장이며, 갑은 연구의 목적 설정 단계부터 윤리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63 그림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가 주장한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가 지니는 상호적 책임이 아닌 일방적인 책임이다.

364 **모범 답안** 현대사회의 새로운 윤리 문제는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파급 효과가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365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적 전통 윤리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과학의 힘을 통제할 새로운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66 윗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주는 혜택보다는 그에 따른 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예방책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불렀다.

367 윗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가 주장하는 현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호혜적인 것이 아니며, 인류의 존속이라는 당위적 요청에 근거한 일방적 책임이다.

36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요나스의 입장에서는 A에게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과학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7 정보사회와 윤리~인공지능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82쪽

369 정보 자기 결정권 370 저작권 보호론 371 정보 공유론
372 사이버 폭력 373 쌍방향성 374 편향된 375 뉴미디어
376 초인공지능 377 책임성 378 사회의 공공선

난이도별 필수 기출 82~87쪽

379 ①	380 ④	381 해설 참조		382 ③	383 ③
384 ③	385 ②	386 ②	387 ①	388 ⑤	389 ④
390 ⑤	391 ②	392 ①	393 ②	394 ④	
395 해설 참조		396 ③	397 ⑤	398 ③	399 ①
400 ①	401 ③	402 ①	403 해설 참조		404 ④

379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 정보의 노출 또는 악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바로알기 | ② 표현의 자유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③ 저작권 침해 문제는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이라고 보장하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공유하는가의 문제이다. ④ 사이버 폭력 문제는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⑤ 디지털 과의존 문제는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하여 발생하는 수면 장애, 체력 감소, 사회적 고립감 증가 등의 문제를 뜻한다.

380 (가)는 정의, (나)는 해악 금지이다.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 중 존중은 타인의 인격, 재산권, 저작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책임은 정보를 이용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381 **모범 답안** 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와, 사람들 간에 정보 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382 제시된 글에서는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등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될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여 행동하는 책임 의식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383 갑은 정보 공유론, 을은 저작권 보호론의 입장이다. 정보 공유론에서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였다. 반면 저작권 보호론에서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정보 생산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론만의 입장이다. ㄷ. 소프트웨어를 인류의 공공재라고 보는 것은 정보 공유론만의 입장이다.

384 갑은 잊힐 권리를 강조하였고, 을은 알 권리를 강조하였다. 잊힐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반면 알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잊힐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ㄹ.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은 잊힐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385 그림의 강연자는 저작권 보호론의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론은 정보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높은 수준의 지적 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면 정보의 독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ㄷ. 저작물에 대한 과도한 권리 행사가 새로운 창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 개념 보충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권리

저작권 보호 (copyright)	• 정보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 → 창작 의욕을 높여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정보 공유 권리 (copyleft)	• 정보 저작물은 개인의 자산인 동시에 인류 공동 자산이라고 보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 저작물을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38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ㄹ. 밀은 소수의 의견도 진리를 포함할 수 있어 존중해야 하며, 토론 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387 제시된 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이다. 밀은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A의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ㄷ. 밀은 틀린 정보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밀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였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지 않았다.

388 칼럼은 정보 주체가 원할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과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④ 칼럼에서는 요청시 사이버 공간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 주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② 칼럼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③ 칼럼에서는 개인 정보가 원치 않게 공유되는 경우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89 뉴미디어는 쌍방향성, 능동화, 비동시성, 탈대중화, 종합화 등의 특징이 있다.

바로알기 | ㄷ. 뉴미디어는 다양한 매체들이 단일한 정보망으로 통합된다는 특징이 있다.

390 (가)는 뉴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나)는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달리 (나)의 입장은 뉴미디어가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

391 그림의 강연자는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슷한 정보만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증 편향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바로알기 | ㄴ. 강연자는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말고 미디어 문해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이며, 강연자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함으로써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2 (가)에 들어갈 말은 뉴미디어이다. 뉴미디어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쉽게 유통될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바로알기 | ② 뉴미디어는 송수신자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③ 뉴미디어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④ 뉴미디어는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 이용자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⑤ 뉴미디어는 송수신자의 정보 교환이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개념 보충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구분	레거시 미디어	뉴미디어
의미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매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
사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특징	정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높고,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함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낮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짐

393 제시된 글의 입장에서는 뉴미디어 시대에 대중 매체와 개인 미디어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입장에 따르면 대중 매체에서는 정보의 소비자인 개인이 개인 미디어에서는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바로알기 | ㄴ. 제시된 글에서는 뉴미디어 시대에서 비판적 읽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ㄷ. 제시된 글에서는 뉴미디어 시대에서 정보의 참과 거짓의 구분이 어렵지만, 이를 해내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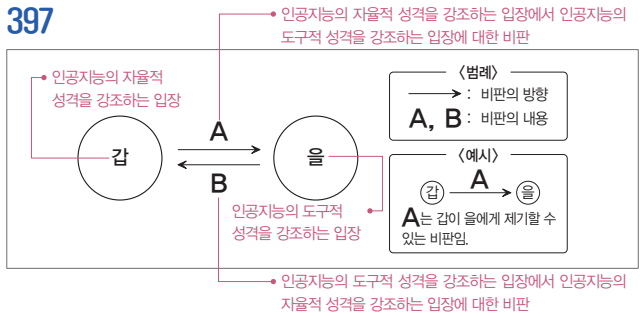
394 (가)는 약한 인공지능, (나)는 강한 인공지능, (다)는 초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은 둘 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이론상의 개념이다.

395 **모범 답안** ㉠에 들어갈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킨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반복적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396 갑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입장, 을은 인공지능이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갑과 달리 을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위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②, ⑤ 갑은 인공지능을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④ 을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397



갑은 인공지능의 자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을은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을은 갑에게 인공지능이 인간이 설계한 기능을 넘어설 수 없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인공지능을 입력된 명령만 수행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을이다. ② 인공지능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설계된 도구로 보는 것은 을이다. ③ 인공지능을 인간과 같이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보는 것은 갑이다. ④ 인공지능을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은 갑이다.

398 (가)는 인공지능이 대량 실업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지만, (나)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단순 노동에서 해방시켜, 다른 영역에 집중하게 해 줄 것이라고 본다.

399 제시된 글에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가 나타나 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에서 인간의 선입견이 반영되거나 인공지능의 정보 수집 단계에서 편향된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바로알기 | ③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임성 문제는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피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말한다. ④ 인공지능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나 의사 결정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 개념 보충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
책임성 문제	• 개발자: 윤리적 절차 준수하기, 사회적 책임 이행하기 • 공급자: 인공지능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하기 • 사용자: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하기
투명성 문제	• 개발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도입하기 • 사용자: 인공지능이 인권과 보편 윤리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기
편향성 문제	• 개발자: 편향되지 않은 정보 수집하기, 알고리즘을 수정 및 개선하기 • 사용자: 인터넷 검색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400 (가)에 들어갈 내용은 '투명성 문제'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

바로알기 | ② 편향성 문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성 문제이다. ④ 인공지능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편향성 문제이다. ⑤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투명성 문제이다.

401 (가)는 책임성 문제, (나)는 투명성 문제이다. 책임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급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투명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발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로알기 | ㄱ. 블랙박스 문제라고도 불리는 것은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가 아니라 (나)의 투명성 문제이다. ㄷ.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이 불분명하여 발생한다.

402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란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이나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를 말한다.
바로알기 |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투명성 문제이다.

403 모범 답안 인류의 번영을 위한 도구

404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10대 핵심 요건 중 데이터 관리는 인공지능이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6~07강 | 88~89쪽

405 ① 406 ③ 407 ④ 408 ④ 409 ② 410 ③
411 ② 412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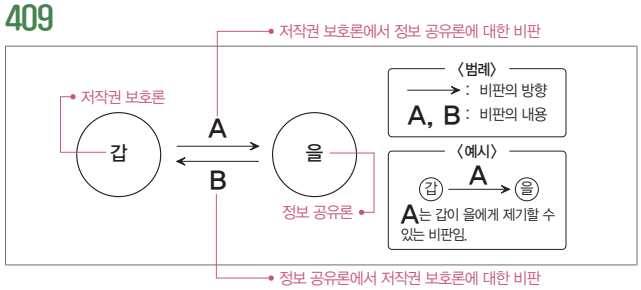
405 (가)는 정보 공유론의 입장, (나)는 저작권 보호론의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정보를 공공재로 보는 정도(X)'는 낮고,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도(Y)'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정도(Z)'는 높다.

406 갑은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고, 을은 과학기술을 가치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보며, 병은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발견과 활용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연구와 활용에 윤리적 책임과 가치 개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407 (가)는 과학기술 지상주의, (나)는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입장이다. 과학기술 혐오주의 입장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여러 가지 성과를 부정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408 ㉠에 들어갈 말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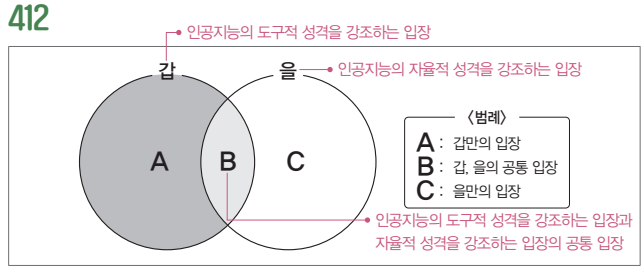
갑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을은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갑은 을에 대해 정보가 사적 자산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고, 을은 갑에 대해 정보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ㄴ. 갑은 정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야 정보 창작 촉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ㄹ. 정보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갑, 을 모두의 공통 입장이다.

41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의도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과학기술의 힘이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이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요나스는 행위를 하도록 일깨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보았다. ㄴ. 요나스는 인간이 가진 힘이 커질수록 책임의 범위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411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기술의 활용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강조하는 것은 하이데거이다. ㄹ.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기술에 부자유스럽게 붙들려 있다고 보았다.

412



갑은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 을은 인공지능의 자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을은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행위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인간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갑이다.

08 직업 생활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92쪽

413 정명 414 생업 415 정의 416 소명 417 분업 418 맹자
419 예 420 정의 421 칼뱅 422 청렴

난이도별 필수 기출 92~99쪽

423 ② 424 ④ 425 ① 426 해설 참조 427 ③
428 ① 429 ② 430 ⑤ 431 순자 432 ② 433 ②
434 ② 435 ② 436 ① 437 (가) 분업, (나) 상호 보완
438 ③ 439 ⑤ 440 ④ 441 ⑤ 442 ④ 443 ④
444 ④ 445 ⑤ 446 ④ 447 해설 참조 448 ①
449 ④ 450 ② 451 ④ 452 ① 453 ③ 454 ②
455 ③ 456 ⑤ 457 해설 참조 458 ② 459 ②

423 제시된 글은 직업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경제적 가치는 직업을 통해 얻는 보수나 소득 등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가치이다. ③ 심리적 가치는 직업을 통해 얻는 만족감, 성취감, 자아실현과 관련된 가치이다. ④ 직업 안정 가치는 직업의 지속성, 고용 안정성 등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과 관련된 가치이다. ⑤ 자기 개발 가치는 직업을 통해 능력과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과 관련된 가치이다.

424 인간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감과 보람을 느낌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과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므로,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한 독립적 삶이라는 설명은 직업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다.

425 제시된 글은 직업이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개인이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만족감을 얻는 자아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바로알기 | ② 여가 생활은 직업 활동과 구별되는 휴식과 취미 활동을 의미한다. ③ 경제적 안정은 직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글은 내적 보람과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사회적 안정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⑤ 사회적 책임은 개인의 만족감과 가능성 발휘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아니다.

426 제시된 글은 직업이 생계유지와 경제적 기반 마련(경제적 가치), 사회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체 유지·발전(사회적 가치), 적성과 흥미에 따른 자아실현과 행복(심리적 가치)에 기여함을 설명하고 있다.

427 제시된 글은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과 공정을 지켜 가며, 재료 선택과 작업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술과 완성도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장인 정신에 해당한다.

428 제시된 글은 직업이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개인이 적성과 흥미를 발휘하고 삶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직업이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② 직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제시된 글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③ 직업의 가치를 경쟁의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은 직업의 내적 의미와 보람을 간과한 설명이다. ④ 제시된 글에서는 명예나 사회적 평판이 아니라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직업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직업에서의 만족을 지위와 보수에만 의존하는 관점은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29 제시된 글은 각자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이름과 책임을 지니고, 그에 걸맞은 덕을 실천할 때 사회 질서가 바로 선다고 보는 공자의 정명 사상이다. 공자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행위와 덕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인간다움을 뜻한다. ③ 덕치(德治)는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뜻한다. ④ 중용(中庸)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의미한다. ⑤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자신의 인격을 먼저 수양한 뒤 타인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통치자의 도덕적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430 제시된 글은 임금, 신하, 부모, 자식이 각각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이름과 지위에 상응하는 행위와 덕의 실천을 요구하는 공자의 정명 사상이다. 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역할과 행위의 불일치에서 찾았으며, 각자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은 서양의 자본주의이다. ② 한비자를 대표로 하는 법가 사상의 관점이다. ③ 묵자의 겸애 사상이다. ④ 순자의 직업관에 해당한다.

431 순자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성악설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禮)에 따라 사람들의 덕과 능력에 맞게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가 맡은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3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을 강조하며 통치자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순자의 입장이다. ③ 맹자는 통치자가 도덕성 실현보다 백성들의 항산(경제적 생계)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④ 맹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⑤ 맹자는 통치자에게 있어 인의(仁義)가 무조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33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에 따른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다. ③ 묵자의 겸애 사상과 관련된다. ④ 순자의 직업관과 거리가 멀다. 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직업 배분은 현대적 직업관에 가깝다.

4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을 구분하며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람마다 수행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백성이 도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모든 사람의 소득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관점은 맹자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ㄹ. 인위적인 제도를 최소화하고 자연에 맡기자는 주장은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과 관련이 있다.

43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적성과 능력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그는 예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순자는 사회적 역할은 능력, 지식, 덕 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ㄹ. 순자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의 목적은 욕구 충족이 아니라 예(禮)에 따른 조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 개념 보충

공자, 맹자, 순자의 직업관

구분	핵심 개념	주요 내용
공자	정명 사상	각자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업의 귀천보다 도덕적 책임과 덕의 실천을 중시해야 함
맹자	항산과 항심, 민본 사상	백성이 도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업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는 역할에 따른 분업으로 유지됨
순자	성악설, 예(禮)에 따른 분업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에 따라 덕과 능력에 맞게 직분을 나누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함
공통점	• 사람마다 맡은 역할과 직분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봄 • 직업의 가치는 재물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사회적 기능과 도덕적 의미에 있다고 봄	

436 (가)는 불교의 입장으로, 직업 생활 속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고 선행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직업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도덕적 삶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나)는 맹자의 입장으로, 맹자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이 보장될 때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며, 직업과 도덕적 삶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한다.

바로알기 | ② 불교와 맹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세속을 떠난 수행자의 경제 활동 제한은 불교 수행자에 한정된 논의로, 맹자의 입장과 공통되지 않는다. ④ 상벌을 통한 강제적 질서 유지는 법가 사상에 해당한다. ⑤ 순자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불교나 맹자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437 맹자는 인간의 역할을 사유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과 직접 노동을 수행하는 육체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며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43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인의 일을 모두 맡는 것은 사회 전체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과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인위적인 제도나 역할 구분을 최소화하려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에 해당한다. ㄹ. 차별 없는 생산 노동과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묵자의 노동관에 해당한다.

43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농군, 상인 등이 각각 자신의 일에는 능숙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관리가 될 수는 없으며, 도에 정통한 사람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무질서를 막기 위해 예(禮)에 따라 능력과 역할을 구분하고, 각자의 직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인위적 제도를 최소화하자는 관점은 도가의 입장이다. ② 차별 없는 사랑과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은 묵자의 겸애교리 사상이다. ③, ④ 순자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440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고 예와 제도를 통해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백성이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성인군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도덕적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타고난 본성이나 차이에 따라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禮)에 따른 규범과 질서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순자는 예에 따라 직분을 구분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이 도덕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⑤ 순자, 맹자 모두 도덕적 삶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는 입장이 아니다.

441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과 혼란을 제어하기 위해 예를 제정하고, 덕과 능력에 따라 서열과 관직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안정적인 생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다만 성인군자 같은 예외적 존재만은 항산 없이도 항심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역할 구분의 필요성은 순자, 맹자 모두 인정하였다.

바로알기 | ㄱ.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442

> 우리가 언제나 준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것 또는 그것의 일종이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주장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던 것은,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 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나라가 정의롭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이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서로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음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라는 각 계급은 타고난 성향과 능력에 따라 구분되며,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 다른 직분에 개입할 경우 국가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았다. 플라톤에게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분을 분화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사적 소유 금지는 주로 수호자(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에 한정된 주장이다. ② 플라톤은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적대적 관계로 보지 않고 조화로운 기능 분담 관계로 보았다. ③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다. ⑤ 노력에 따른 직업 이동 가능성은 플라톤이 경계한 입장으로, 타고난 성향에 따른 직분 구분과 배치된다.

443 플라톤은 수호자(통치자와 방위자)가 금은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호자가 다른 구성원보다 더 큰 능력과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소유할 경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⑤ 공직자의 권위나 지위를 물질적 기반에서 찾는 입장은 플라톤의 주장과 배치된다. ③ 플라톤은 농민, 상인 등 생산자 계층의 사유 재산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44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칼뱅이다. 칼뱅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증표로서 인식하고,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자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뱅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칼뱅은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이해하고 세속의 직업에서도 신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칼뱅은 현실의 직업이 신이 주신 소명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다. ③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보고, 성실한 직업 수행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보았으므로, 직업을 원죄 속죄의 수단으로만 의미를 가진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⑤ 칼뱅은 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무조건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445 제시된 글은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업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직업 활동이 타인과 분리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을 통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② 도가 사상의 입장으로, 무위와 도에 따른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③ 순자의 입장이다. ④ 인의와 직분을 중시하는 유교의 관점이다.

446 갑은 플라톤, 을은 칼뱅이다. 플라톤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과 능력이 다르므로 각자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업이 실현될 때 국가의 조화와 정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각 개인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하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신의 뜻을 실현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플라톤과 칼뱅은 모두 직업을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실현이나 신의 뜻 실현과 같은 더 높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였다.
바로알기 | ㄴ. 플라톤은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447 모범 답안 칼뱅, 신의 은총에 따른 것이므로 죄악이 아니다.

44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업과 사적 소유 구조로 노동이 인간의 자아실현과 분리된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자는 노동 착취를 당해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ㄹ. 마르크스는 분업으로 노동자가 소외되었다고 비판하였다.

449 갑은 칼뱅, 을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노동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보고 각자가 맡은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신의 뜻을 실천하는 길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노동 윤리는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고,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기여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적 활동이 아니라 외적인 강제 활동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특히 분업과 사적 소유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동 과정과 결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는 현실을 겪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① 칼뱅은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에 따른 것이므로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직업 생활에 충실한 것은 신의 명령을 이행하고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것은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이다. ③ 소명에 따른 노동을 강조한 것은 칼뱅의 입장이다. ⑤ 칼뱅의 사상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450 제시된 글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일부이다.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자들은 모든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하고, 직업 활동 속에서 신의 명령을 실천하며 신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 노동에서의 성실성과 성공은 신의 선택과 구원의 증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겼다. 베버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였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현세의 부와 경제적 성취를 세속적 가치로만 보고 경계하는 측면과, 노동을 원죄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면서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중세 그리스도교적 관점에 해당한다.

451 제시된 글은 베버가 설명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이다. 프로테스탄트(특히 칼뱅주의)는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하며,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성실히 임하고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보았다. 또한 직업 활동에서의 성실성과 경제적 성취는 신에 의한 구원의 증표로 해석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② 중세 그리스도교의 관점에 해당한다. ③, ⑤ 플라톤의 입장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플라톤은 각 계층이 자신이 타고난 성향과 덕에 맞는 역할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보았다.

452 (가)는 칼뱅, (나)는 순자의 직업관에 해당한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하였다. 순자는 예(禮)를 바탕으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칼뱅과 순자는 모두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① 칼뱅은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보고, 성실한 노동과 절제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453 칼뱅은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고,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증표이자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맹자는 백성은 항산(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어야 항심(도덕적 선)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군자는 항산이 보장되지 않아도 항심이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예(禮)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 근면한 직업생활이 자본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③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은 노동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45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이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활동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는 분업과 생산 과정의 세분화로 인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산물과 노동 과정, 나아가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된다.

바로알기 | ㄴ. 칼뱅의 입장이다. ㄷ. 플라톤의 입장이다.

455 갑은 프리드먼, 을은 애로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본질적 책임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으며 도덕적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고 본다. 애로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복지나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프리드먼은 기업이 공익을 위해 이윤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기업의 책임을 이윤 극대화로 한정한다. ㄹ. 프리드먼은 기업의 목적을 이윤 극대화로 보고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애로는 시장 실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456 갑은 프리드먼, 을은 애로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익 극대화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기업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개인의 몫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애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프리드먼은 기업이 공익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프리드먼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57 **모범 답안** 공직자는 검소하고 청렴한 자세로 사익 추구를 경계하며, 백성을 위한 공직 수행에 힘써야 한다.

45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잘 다스리는 공직자는 자애로움을 바탕으로 청렴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절용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경계하고, 재물을 절제하여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뜻한다.

바로알기 | 정약용은 공직자를 백성을 섬기는 존재로 보고, 청렴과 절약을 핵심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사익 고려, 효율성이나 이익 우선의 태도는 정약용의 공직관과 배치된다. 정약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의로움을 중시해야 한다.

459 정약용은 공직자의 역할이 사적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이나 사익에 휘둘리지 않고, 백성 전체의 이익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뜻한다.

바로알기 | ① 예외적 편의는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백성을 위한 행정과 거리가 멀다. ③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④ 인의(仁義)를 '개인적 친분 우선'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민관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 ⑤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09 국가와 시민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02쪽

460 비도덕적 461 공동선 462 아리스토텔레스 463 루소
464 이익 465 민의 466 저항권 467 홉스 468 공유된 정의관
469 양심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2~107쪽

470 ④	471 해설 참조	472 ④	473 ②	
474 해설 참조	475 ①	476 ③	477 ③	478 ④
479 해설 참조	480 ②	481 ①	482 ②	483 ④
484 ④	485 ③	486 ③	487 ②	488 ③
489 해설 참조	490 ③	491 ①	492 ③	
493 갑: 싱어, 을: 롤스		494 ⑤	495 ⑤	496 ③

470 (가)는 개인선, (나)는 공동선에 해당한다. 개인선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가치, 공동선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가치를 말한다.

바로알기 | 최고선이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완전한 선을 말하고, 최대선이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선을 말한다.

471 **모범 답안** 정치적 강제 수단 활용,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

472 제시된 글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에 대한 내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즉 국가는 인간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바로알기 | ① 국가는 인간의 계약이나 자연적 발전이 아니라, 하늘(天)의 뜻에 의해 세워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개인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보호·질서·복지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위에 복종할 정당한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이론이다. ③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국민(구성원)의 동의나 합의에서 찾는 이론이다. ⑤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 형성한 정치적 합의에서 찾는 이론이다.

47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집단은 개인보다 도덕적으로 둔감하며, 순수한 사랑이나 무욕의 도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과도한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힘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집단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강제력과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일반 의지에의 복종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본 것은 루소의 입장이다. ③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실현된다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다. ④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선의만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사회 전체의 고통 감소와 행복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474 **모범 답안**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개인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47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개인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연고적 존재로 보았다. 그는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적 판단이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 역할, 의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ㄹ. 개인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476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모든 공동체 중 최고 단계의 공동체로 보고, 인간이 사회적·정치적 동물로서 국가 안에서 최고의 좋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없어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므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정부가 이러한 신탁을 위반할 경우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선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보았다. ② 국가가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고 본 것은 로크의 입장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⑤ 자연 상태의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절대 권력을 인정한 것은 홉스의 입장이다.

47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분쟁과 불안으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계약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자연권 중 일부를 위임하고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았다. ㄷ. 자연권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위임한다고 보았다.

478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공통의 권력이 없어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고, 자기 보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한다.
>
>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와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며, 다툼을 해결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

로크는 불확실한 자연 상태에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권 일부를 양도하여 시민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음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고 절대 권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이 모든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홉스와 로크 모두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홉스와 로크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홉스, 로크 모두 국가 성립 이후에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자연법 집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홉스와 로크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홉스는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홉스는 부정, 로크는 긍정할 질문이다.

479 **모범 답안**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의 산물이다.

48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이며, 인간은 최상의 공동체인 국가 안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지만, 국가는 상호 동의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유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홉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81 갑은 루소,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루소는 인간이 공동선과 참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선의 공동체로 보고,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인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루소, 로크, 홉스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이다. ㄹ. 루소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국가의 성립을 인간 본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48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홉스는 전제 군주정을 옹호하였고, 인간이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83 갑은 맹자, 을은 로크이다. 맹자는 인과 의를 저버린 군주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고 보며, 폭군은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왕도정치를 실천하지 못한 군주는 정당성을 잃으며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는 민본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로크는 정부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신탁을 위반할 경우 시민은 입법부를 변경하거나 해산할 권리를 가진다는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과 덕치를 강조하였다. ㄷ. 자연 상태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홉스의 입장이다. 로크는 일부 권리만을 위임한다고 보았으며,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 개념 보충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인간관	성악설(이기적 존재)	성무선악설(백지 상태)	성선설(자유롭고 평등)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전쟁 상태)	평화롭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음(불안정한 평화)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사유 재산으로 불평등 발생
저항권	부정(국가는 절대적 권위임)	긍정(신탁 위반 시 정부 교체 가능)	부정(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곧 자유임)

48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고, 이기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로크의 입장과 관련 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관련 있다. ③ 맹자의 입장과 관련 있다. ⑤ 홉스는 윤택한 생활 수준의 보장이 아니라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을 주장하였다.

48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그는 시민불복종을 체제 전복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시민이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여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는 행위로 보았다. 사회 전체가 극단적으로 부정의하다면 정의감에 호소할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부정의한 경우가 아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는 시민불복종을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위법적인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법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의를 교정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시민불복종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과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롤스의 입장과 다르다. ㄹ.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헌법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체제를 변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당한 체제 안에서 심각한 부정의를 교정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48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시민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로 인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얼마나 약화될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결과의 비교와 사회적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A에게는 불복종으로 얻을 이익이나 유용성을 신중히 따져 보라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비폭력과 민주주의 질서의 존중을 전제로 하므로,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② 개인의 양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소로의 입장이다. ④ 싱어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⑤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은 롤스의 견해이다.

487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행위의 결과(사회적 효용과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결과 평가

> 갑: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국가의 법보다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양심주의적 시민불복종

갑은 싱어, 을은 소로이다. 싱어는 시민불복종을 결심할 때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약화될 가능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 등을 저울질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 정당성을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에서 찾았으며, 법에 대한 존경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민은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서 불의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다수의 행복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정의감에서 찾는다. ㄹ.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하고 법에 대한 충실성 범위 내에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롤스의 견해이다.

488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행위로,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를 받기도 하며,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위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민불복종의 예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마틴 루서 킹의 흑인 민권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바로알기 | ③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변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위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489 **모범 답안**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을 먼저 세워, 국민이기 이전에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서 부정의한 법이라고 판단되면 협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시민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불의에 저항하는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세요.

490 갑은 롤스,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소로는 불의한 법보다 양심을 우선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상가 모두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개인의 양심을 직접적 근거로 삼지 않고,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에서의 체제 변혁은 시민불복종의 범주로 보지 않았다.

491 그림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대체로 정의로운 경우, 모든 부정의한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전제로 하며, 정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헌법의 근본 원칙에 호소하는 행위로 보았지, 이를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③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개인의 종교적 교설이나 사적 신념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체제 전복이 아니라 법이나 정책의 부분적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⑤ 개인의 양심을 불복종의 직접적 근거로 보는 것은 소로의 입장이다.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을 중시하였다.

49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법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이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며, 체제를 전복하기보다는 정의로운 제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롤스는 체제 자체가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를 개인의 양심으로 드는 것은 소로의 입장이다.

493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법 존중의 감소 정도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평가한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敎說)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94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싱어의 입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낳는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롤스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만을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싱어와 롤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④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95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행위로 보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이 공공연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수 시민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는 사소한 부정의가 아니라, 기본적 자유의 침해와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부정의가 있을 때 정당화된다.

바로알기 | ⑤ 모든 부정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롤스의 입장과 어긋난다.

496

• 소로는 시민은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서 불의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함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을: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할 최후의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기준을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공적 정의관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음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시민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로와 롤스는 모두 시민불복종이 정의 실현을 위한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위반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소로의 입장에 해당한다.

✓ 개념 보충

시민불복종에 대한 사상가별 입장

구분	소로	롤스	싱어
정당화 근거	개인의 양심	공유된 정의관(정의의 원칙)	공리(이익과 손해 계산)
대상	부당한 법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질서 정연한 사회)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이 잘못된 사회
주요 특징	법보다 정의(양심)에 대한 존경심 중시	법에 대한 충실성 내에서의 저항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
행동 지침	양심에 어긋나면 즉각 불복종해야 함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 행함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과 부작용을 고려함
핵심 주장	국민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정의의 원칙에 달려 있다.	발생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
공통점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임		

10 사회 정의와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10쪽

497 분배적 498 무지의 베일 499 노직 500 칸트
501 복합 평등 502 차등 503 마르크스 504 노직
505 공리주의 506 베카리아

난이도별 필수 기출 110~121쪽

507 ③ 508 (가) 일반적 정의, (나) 분배적 정의, (다) 교정적 정의
509 ⑤ 510 ④ 511 ⑤ 512 해설 참조 513 ③
514 ④ 515 ① 516 ① 517 ⑤ 518 ⑤ 519 ⑤
520 ④ 521 ② 522 해설 참조 523 ① 524 ④
525 ⑤ 526 ⑤ 527 해설 참조 528 ① 529 ④
530 ④ 531 ⑤ 532 ① 533 ② 534 ⑤ 535 ③
536 ⑤ 537 ④ 538 해설 참조 539 ② 540 ④
541 ② 542 ④ 543 ⑤ 544 해설 참조 545 ④
546 ① 547 ⑤ 548 ② 549 ② 550 ② 551 ①
552 ① 553 ② 554 ④ 555 해설 참조 556 ④
557 ⑤ 558 ④ 559 해설 참조 560 ① 561 ④

507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기하학적으로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손해를 입힌 만큼 보상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만큼 반환하게 하여 산술적 동등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법률을 준수하는 행위는 일반적 정의의 범주에 해당한다. ②, ⑤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고, 이익을 준 만큼 보상받는 것이다. ④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508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를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분배적 정의를 각자의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교정적 정의를 손해를 입힌 만큼 보상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만큼 반환하게 하여 산술적 동등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50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에 따르면 옳음은 균등이며 이는 분배 과정에서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실현된다. 또한 그는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여, 각자의 가치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른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510 (가)는 업적, (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 기준이다. 업적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때 개인이 이룬 객관적인 실적을 중시하는 분배 기준이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필요는 개인의 기여도보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집중하는 분배 기준이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알기 | ㄷ. 시험 점수나 외국어 능력 등은 개인이 지닌 전문적 자질이나 잠재력에 해당하므로 능력에 따른 분배 기준에 해당한다.

✓ 개념 보충

분배의 다양한 기준

분배 기준	의미 및 핵심 가치	구체적 사례	장점(효과)	한계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양을 분배함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동일 지급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위화감 해소	개인의 노력 경시로 인한 생산 의욕 저하 우려
필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과 처지를 우선 고려함	저소득층 기초연금, 퇴사자 실업 급여	실질적 평등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경제적 효율성 저하 및 필요 기준의 주관성
능력	전문 지식, 자격, 잠재적 역량을 기준으로 삼음	수능 점수에 따른 대학 입학, 외국어 우수자 채용	개인의 잠재력 계발 및 전문성 향상 동기 부여	타고난 재능·환경 등 우연적 요소 개입 가능
업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와 기여도 중시	메달 종류별 포상금, 판매 실적 성과급	결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생산성 극대화 및 객관성 확보	과도한 경쟁 유발 및 사회적 약자의 소외 초래

511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실제로 성취한 결과물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에 근거하여 분배한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알기 | ① 개인의 잠재적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선천적 요소와 업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중시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에 대한 설명이다. ④ 기여나 성과와 무관하게 동일한 몫을 분배하는 '절대적 평등'에 대한 설명이다.

512 **모범 답안** 능력 형성 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이 개입하여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513 제시된 글은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욕구 충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설명하고 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바로알기 | ① 능력은 개인이 지닌 잠재력이나 전문적인 지식, 재능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② 업적은 개인이 사회나 조직에 기여한 성과나 성적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④ 절대적 평등은 기여도나 필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을 분배하여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⑤ 사회적 기여도는 업적과 유사하게 사회에 끼친 기여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514 제시된 글은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왈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하므로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② 롤스의 입장이다. ③ 소유의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은 노직이다. ⑤ 왈처에 따르면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515 ㉠은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은 자신의 직업, 성별, 국가 등의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황이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지만, 타인에게는 상호 무관심하여 질투나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ㄷ.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 소질과 능력, 지능, 체력, 심리적 성향, 직업, 성별, 국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ㄹ. 원초적 입장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들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516 갑은 벤담,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재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는 권력이나 명예, 재화 등이 각자의 기여도와 가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ㄷ.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ㄹ. 모든 구성원의 부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평등을 기준으로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두 사상가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51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개인에게는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고 보았으며,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최초 취득이 정당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견되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노직은 재화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외에도 교정의 원리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518 제시된 관점은 사회 차원에서 고통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여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이는 벤담의 공리주의적 분배관에 해당한다. ⑤ 한정된 의료 자원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이후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체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려는 판단이므로 공리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제비뽑기 방식은 결과의 유용성 극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③ 업적에 따른 보상으로, 행복 총량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적 분배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절대적 평등의 관점으로, 공리주의적 판단과 다르다.

519 마르크스의 분배 정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과 국가가 소멸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였다. 이 사회에서 인간은 소외된 노동에서 벗어나 자아의 개성을 실현하는 자발적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기여도와 관계없이 각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평등한 삶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 마르크스는 기여도(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가 아닌,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공산주의적 분배 정의를 주장하였다.

520 제시된 글에서는 경제적 부라는 가치가 교육 기회라는 다른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왈처의 복합 평등론에 따르면 한 영역의 재화나 가치를 소유한 것이 다른 영역의 재화나 가치를 소유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왈처는 한 영역에서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전제'라 칭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① 왈처는 모든 가치를 동일하게 균등 분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② 제시된 글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⑤ 왈처는 가치 영역의 다원성을 강조하였다.

521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한 차등의 원칙과 같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를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라며 비판하였다. 롤스는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노직은 양도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두 사상가 모두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소유권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②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개입을 통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522 **모범 답안** 원초적 입장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의 정의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 상황을 의미한다.

52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원초적 입장을 토대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바로알기 | ㄷ.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되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보았다.

524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제거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지위의 기회가 개방되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롤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리주의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525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따른 정당한 소유를 강조하며 강제적 재분배와 원초적 입장 모두를 부정하였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부정, 노직은 긍정할 질문이다.

526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의 재분배를 전부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부의 재분배 정책이 부당하다는 질문과 국가의 역할을 치안과 안전 보장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롤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ㄱ.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27 **모범 답안**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 부정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528 왈처는 단일한 기준에 따른 분배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사회의 각 영역마다 다양한 정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왈처는 사회적 재화가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므로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다원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9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노직은 최소 국가를 정당화하면서도 취득·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 경우 교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② 롤스, 노직 둘 다 부정할 질문이다. ③ 롤스는 재산권 자체를 차등 분배하자고 하지 않는다. 대신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차등의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관한 질문으로, C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530 갑은 노직, 을은 마르크스이다.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리를 비판하고 소유 권리론과 최소 국가를 강조하였다. 그는 취득과 이전의 정당한 과정을 거친 소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강제적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보았다. 한편 마르크스는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며,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최소 국가를 지지하며 강제적 재분배를 비판하였다.

531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제2원칙(차등의 원칙)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사회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본적 자유가 다른 원칙보다 우선한다(자유의 우선성)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동정심이 아니라, 합리적 자기 이익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 ② 공리주의적 사고이며 롤스는 이에 반대한다. ③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차등 분배 대상이 아니다. ④ 롤스는 결과의 평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532 갑은 롤스, 을은 벤담,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유용성의 극대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가한다면 불평등 역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기여나 공적 등의 차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존재를 세 사상가 모두 인정한다.

바로알기 | ② 세 사상가 모두 분배의 정의를 결과의 평등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③ 개인의 필요에 따른 균등 분배는 마르크스의 분배 원칙에 해당하며 제시된 세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④ 세 사상가 모두 부정할 질문이다. ⑤ 분배의 옳고 그름을 쾌락과 고통의 총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만의 입장이다.

533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정의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가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ㄹ. 롤스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자연적 재능에서 나온 이익은 공동의 관점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므로 자연적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534 (가)는 롤스의 입장이다. 롤스는 자연적 우연성, 즉 재능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여 그 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우연성의 영향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 정의하였다. ② 롤스는 자발적 양도라고 하더라도 정의의 원칙을 해친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분배를 시장 경제에 맡겨 두면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④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35 노직은 개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거나 양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소유물에 대한 취득과 양도의 역사적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 노직은 국가가 복지나 사회적 유용성을 명분으로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노직은 오직 교정의 원칙을 이행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최소 국가만을 옹호하였다.

536 갑은 루소, 을은 벤담이다. 루소는 생명 보존을 위한 사회 계약을 근거로 사형 제도에 찬성하였다.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스스로 사회 구성원임을 포기한 자이며,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여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처벌 그 자체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악이지만, 처벌을 통해 더 큰 악이 줄어들거나 공리를 증진한다면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벤담은 사형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② 형벌이 가능한 한 가혹해야 한다는 것은 벤담의 입장이 아니다. 벤담은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형벌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③ 형벌을 응보로 보는 것은 칸트의 응보주의 입장이다. 벤담은 예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④ 루소의 입장이다.

537 루소는 사회 계약을 파기한 살인범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며 사회 방위를 위해 사형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그는 형벌을 단순한 비례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 벤담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적 효용 증진에 두었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에 대한 보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또한 비례적 보복으로만 가해져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바로알기 | ① 살인범을 공공의 적으로 보는 루소의 입장에는 해당하지만 벤담의 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형을 인격 존중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칸트의 응보주의에 해당한다. ③ 벤담의 입장에는 해당하지만 루소의 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루소의 입장에는 해당하지만 벤담의 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38 **모범 답안** 처벌로 더 큰 악이 줄어들거나 공리를 증진한다면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

53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형벌의 정당성을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응보에서 찾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이나 범죄 예방과 같은 목적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그는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칸트는 형벌을 사회적 이익이나 유용성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죄자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제할 수 없다.

540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 인간의 생명을 희생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사회 전체에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형벌의 목적을 응보가 아니라 범죄 예방에 두었으며,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비추어 형벌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라고 보았고, 살인자는 보복법에 따라 동일한 해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응보주의적 형벌관에 따른 것이다. 그는 범죄자를 단순히 사회적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이성적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더 중시하였다. ② 베카리아는 과도한 형벌과 사형에 반대하였다. ③ 칸트는 오직 범죄 그 자체에 상응하는 응보를 주장하였다. ⑤ 베카리아는 사형 자체를 부정하므로 해당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칸트도 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인격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사형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범죄자를 책임 능력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541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다. 그는 형벌의 지속성이 강도보다 더 큰 공포를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칸트는 형벌을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형이 살인범을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며,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형벌을 도덕적 응징 그 자체로 보는 응보주의 입장으로, 이는 베카리아가 아닌 칸트의 주장이다. ㄹ. 형벌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베카리아에게만 해당된다.

54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에 따르면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 계약에 따라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루소의 입장에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회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그를 처벌할 수 있고, 사형도 정당화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루소는 살인범은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로서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54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보복법의 원리에 따라 그의 내적인 해악성에 상응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사형은 범죄자를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형벌이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을 자기 행위에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칸트는 형벌의 근거를 응보와 정의의 실현에서 찾는다. ③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④ 칸트는 형벌의 목적을 미래의 효용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보았다.

544 **모범 답안**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545 갑은 칸트, 을은 루소이다.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보았으며, 사형의 정당성을 계약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에서 찾았다. 이는 형벌을 범죄에 상응하는 응보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형이 오직 범죄자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응보로서 가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를 일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로 보았으며, 사형을 공동체의 생명 보존이라는 사회 방위의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 그는 사형을 단지 응보로만 보지 않았다.

바로알기 | ①, ③ 공리주의적 형벌관에 해당한다. ②, ⑤ 사회 계약과 사회 방위의 관점으로, 루소의 입장에 해당한다.

546 갑은 베카리아, 을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면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스스로도 가질 수 없으므로 그것을 국가에 양도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고 효과를 지닌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법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은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므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칸트의 입장이다. ㄹ. 베카리아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54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카리아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았으며, 형벌은 잔혹하기보다는 확실하고 신속하여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베카리아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②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과 고문을 비판했다. 형벌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③, ④ 형벌에 대한 응보주의의 입장이다.

548 (가)는 벤담의 입장이다. 벤담은 처벌로 입는 손해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하며,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가혹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유용성에서 찾는 것이다. ②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 교화와 일반 예방에 둔다는 질문에 벤담은 긍정의 대답을 하므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다.

바로알기 | ①, ③ 형벌을 응보나 도덕적 보복 그 자체로 이해하는 칸트적 응보주의를 묻는 질문이므로, 벤담은 이를 부정한다. ④, ⑤ 형벌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므로 벤담은 이에 긍정한다.

549 칸트의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효용 증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또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의 무게와 형벌의 크기는 대등해야 하며,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범죄자도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닌 목적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였다.

550

칸트는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보았음(응보주의)

(가)	갑: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어떠한 동등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는 오직 사형만 부과되어야 한다. 을: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종신 노역형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형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보다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종신 노역형이 더 큰 경고가 되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음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형벌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보고, 살인에는 사형만이 동등성의 원리에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형은 살인자를 이성적·도덕적 존재로 보아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고, 생명 박탈권은 시민이 국가에 위탁한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형에 반대하였다.

바로알기 | ㄴ. 칸트와 베카리아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ㄹ. 형벌의 정당성이 범죄자가 저지른 도덕적 해악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칸트의 응보주의에 해당한다.

55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사형 제도를 보복법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형벌이라고 보았으며, 형벌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동등성을 유지하는 비례 관계에 따라 엄격히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형이 살인범을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존재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유용성에서 찾지 않고, 범죄자가 저지른 악행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과하는 응보 자체에서 찾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형벌을 유용성의 도구로 보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오직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552 가상 대담 속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동등성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사형을 규정한 형벌의 법칙은 일종의 정언 명령이며, 사형은 살인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응보적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에 따라 사형 제도에 찬성하였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사형이 범죄자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칸트는 형사적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처벌이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⑤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해서가 아닌, 응분의 보복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

553 갑은 베카리아, 을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고, 처벌은 그로써 막을 수 있는 범죄의 해악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한편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의 보존에 필요한 권리를 일반 의지에 맡긴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유용성에서 찾는다. ㄹ. 칸트의 응보주의에 해당한다.

554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형벌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형벌을 정언 명령에 따른 도덕 법칙의 실현으로 이해한 것이다. 칸트에게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며, 사형보다 지속적인 형벌이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베카리아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처벌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응보주의는 가혹함이 아니라 동등성을 강조한다. ② 베카리아의 사회 계약론적 사형 반대 논거에 해당한다. ③, ⑤ 형벌의 목적을 사회적 효용과 범죄 예방에 두는 공리주의 입장으로, 베카리아의 관점이다.

555 **모범 답안** 칸트는 인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응보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56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더 큰 해악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커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형벌을 범죄 예방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로 이해하였다. 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에는 사형이 내려져야 하며, 이는 정의를 실현하는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형벌의 목적을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두는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칸트의 응보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5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카리아이다. 그는 법이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 일부를 모아 만든 것이며,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를 비판했는데, 사회 계약의 목적이 생명 보존에 있으며, 생명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한순간의 강렬한 형벌보다 지속적인 형벌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시민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진술은 베카리아가 부정한 내용이다. 또한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 이해하는 응보주의는 칸트의 입장이다.

558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구성원들의 생명 보존에 두었으며, 이를 파괴하는 살인범은 사회 계약을 어긴 자로서 공동체의 적이 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범죄에 따른 해악만큼의 고통을 형벌로써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응보주의의 입장이다. ②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강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에 루소는 동의하지 않는다. ③ 형벌을 공리의 원리로 정당화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⑤ 칸트가 긍정할 질문으로, 루소나 베카리아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559 **모범 답안**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더 큰 사회적 악을 예방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56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벤담은 형벌 그 자체는 악이지만 형벌을 통해 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필요악이라고 보았다. ③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④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벤담은 범죄자에게 있어 형벌로 인한 손실이 위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커야 형벌이 범죄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561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형벌을 통해 더 큰 해악을 제거할 수 있을 때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 벤담에게 형벌은 오직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만 정당화되며,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⑤ 칸트의 입장이 아닌 벤담을 포함한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8~10강 | 122~125쪽

562 ③	563 ①	564 ④	565 ③	566 ④	567 ①
568 ③	569 ⑤	570 ②	571 ④	572 ①	573 ⑤
574 ④	575 ④	576 ②	577 ⑤		

562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과 혼란을 제어하기 위해 예를 제정하고, 덕과 능력에 따라 서열과 관직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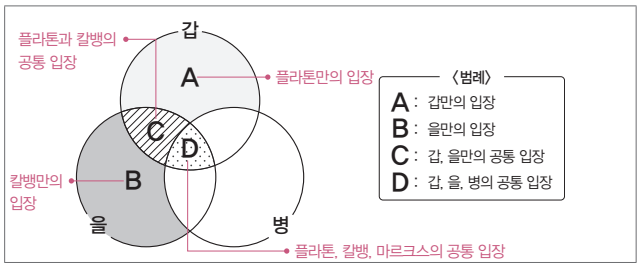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맹자는 성선설에 근거하여 통치자가 타고난 덕을 바탕으로 통치해야 하며, 백성들이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으므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통치 질서가 확립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ㄴ.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입장이다.

563 제시된 글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이윤 추구를 통해 경제 성장과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자본주의 옹호 논리를 보여 주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올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가 자본가에게 귀속되면서, 노동이 노동자의 본질적 활동이 아니라 외적인 강제 활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분리되고,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알기 | ②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에 해당한다. ③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가는 자본주의의 긍정적 효과이다. ④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⑤ 경쟁 억제에 따른 노동 의욕과 생산성 저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이다.

564



갑은 플라톤, 을은 칼뱅, 병은 마르크스이다. 플라톤은 사회 정의가 각 계급이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고유한 덕을 발휘하며 직분에 충실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ㄱ은 플라톤만의 입장이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하였고, 직업 활동에서의 성실성과 금욕적 절제를 신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ㄴ은 칼뱅만의 입장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면서도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서 노동이 강제된 활동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노동이 생계유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 존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ㄹ은 갑, 을, 병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다.

바로알기 | ㄷ. 마르크스만의 주장이므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565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키고 노동의 본질을 훼손하며, 노동자의 주체성을 잃게 만든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이 아니라, 사적 수단을 철폐하고 계급이 소멸되어야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④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이 노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분업에 반대하였다. 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와 계급이 지속되는 한 노동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566 갑은 마르크스, 을은 칼뱅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이 아니라 노동 수단으로 전락하여 노동이 강제된 활동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노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공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보고 각자가 맡은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신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존 사회 질서 속에서의 직업 수행을 중시하므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노동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신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마르크스나 칼뱅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② 마르크스와 칼뱅 모두 부정할 질문이다. ③ 마르크스가 부정할 질문이며, 칼뱅 또한 직업에서의 성공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표로 보았다. ⑤ 마르크스는 부정, 칼뱅은 긍정할 질문이다.

567 갑은 칼뱅, 을은 플라톤이다. 칼뱅은 직업이 신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소명(召命)이라고 주장하며,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직업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급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탁월함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탁월함에 부합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칼뱅은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의 의지로써 미리 예정되어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ㄹ. 플라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탁월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568 갑은 롤스,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하고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의관에서 찾았으며, 시민불복종은 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정당한 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의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로는 부정의한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으며, 시민불복종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실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시민불복종의 목적을 묻는 일반적 질문으로 소로와 롤스 모두 동의할 수 있다. ㄹ. 소로가 부정할 질문이다.

56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로이다. 소로는 다수결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개인의 양심에 두었다. 또한 그는 법에 대한 존경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사회적 합의나 공공적 정의관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서 찾았다. 그는 부정의한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으며, 시민불복종을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실천 행위라고 이해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롤스의 입장이다. ② 공리주의자인 싱어의 입장이다.

570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하였으며,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율하는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시민불복종이 정의의 원칙, 예컨대 평등한 자유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사회적 이익의 여부로 판단하는 싱어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불복종으로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는 정의 원칙의 형식적 위반 여부만을 강조하고 결과 계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롤스를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시민불복종은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즉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위법 행위이므로 맞지 않는 진술이다. ㄷ. 롤스는 처벌 수용을 통해 법에 대한 충실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시민불복종의 특징으로 보았으며, 싱어 또한 법적 책임(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571 갑은 마르크스, 을은 벤담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계급이 소멸된 공산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적 행복이 감소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기 위해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입장에 비해 벤담의 입장은 '공리의 원칙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정도(X)'와 '빈부 격차를 용인하는 정도(Y)'는 높고,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정도(Z)'는 낮다.

572 갑은 롤스, 을은 왈처,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 즉 무지의 베일 뒤의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특정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하는 것이다.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며, 서로 다른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이다.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았으며,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왈처에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보편적 기준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왈처는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노직의 입장이 아니라 롤스의 입장이다. ④ 노직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⑤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은 왈처의 입장이다.

57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개인에게는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고 보았으며,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남을 강조하였다. 노직은 최초 취득이 정당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과정에 부정의가 발견되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노직은 재화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외에도 교정의 원리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574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에 입각하여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와 사회 계약론에 기초하여 사형에 반대하였다. 그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며, 사형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의 입장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으므로 국가도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고 없다. 베카리아는 사형 대신 종신 노역형 등 다른 형벌이 더 효과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C에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② 칸트는 사형을 시민의 생명 보존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지 않았다. ③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를 형벌권의 기초로 보는 것은 사회 계약론의 입장이다. ⑤ 사형을 시민 자격 상실과 연결하는 것은 루소의 입장에서 긍정할 질문이다.

57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고,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와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으며, 사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지속적 고통을 주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② 칸트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칸트는 형벌을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며,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사형을 정당화하였다. ③ 베카리아가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칸트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576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하는 효용 가치가 큰 형벌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형벌이 국가의 존속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칸트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 루소는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범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⑤ 세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 아니라 칸트만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77 갑은 칸트, 을은 루소이다. 칸트는 형벌이 사회 안전이나 행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공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위반하여 국가 공동체와 대립하게 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처벌을 인정한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형벌이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고 보았다. ②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③ 루소는 처벌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④ 루소는 살인자가 사회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으므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28쪽

578 모범 579 미적 580 와일드 581 순자 582 상업화
583 칸트 584 묵자 585 도덕주의 586 벤야민
587 순수 예술론

난이도별 필수 기출 128~133쪽

588 ③ 589 ⑤ 590 ① 591 ③ 592 ① 593 ②
594 ② 595 ⑤ 596 해설 참조 597 ⑤ 598 ③
599 해설 참조 600 ④ 601 ⑤ 602 ① 603 ⑤
604 해설 참조 605 ⑤ 606 성 상품화
607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608 ② 609 ⑤ 610 ②
611 ⑤ 612 ⑤ 613 해설 참조 614 ②
615 해설 참조

588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의 목적을 사람들이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이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ㄹ. 예술이 사회 규범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도덕적 기준에 의해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미주의 입장이다.

589 제시된 글은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심미주의 입장이다. 심미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예술이 도덕이나 정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이 이데아의 모방을 다시 모방한 것이므로 진리에서 멀어지고, 감정을 자극해 이성을 흐릴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인식과 도덕적 삶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상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시인과 예술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예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②, ③ 예술이 도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도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예술을 도덕적·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도덕주의이다.

590 제시된 글은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심미주의 입장이다. 심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예술의 사회 비판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심미주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③ 예술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은 도덕주의 입장이다. ④ 중세 기독교적 예술관에 가까운 주장으로, 심미주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⑤ 예술이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은 도덕주의 입장이다.

591 (가)는 심미주의, (나)는 도덕주의 입장이다. 심미주의에 비해 도덕주의는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X)'는 높고, '미적 가치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정도(Y)'는 낮으며, '예술을 도덕적 교훈의 수단으로 보는 정도(Z)'는 높다.

✓ 개념 보충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심미주의와 도덕주의의 입장

구분	심미주의	도덕주의
예술과 도덕의 관계	예술과 도덕은 서로 독립적임	예술과 도덕은 밀접하게 관련됨
핵심 주장	예술은 미적 가치 자체를 목적으로 함	예술은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함
예술의 평가 기준	미적 가치 중심	윤리적 가치 우선
예술의 역할	아름다움과 예술적 자율성 추구	올바른 품성과 도덕적 교훈 제공
예술가에 대한 관점	외부의 도덕적 간섭 없이 자유롭게 창작해야 함	도덕적 이상과 삶의 모범을 제시해야 함
대표 사상가	스핑건, 와일드	플라톤
대표 주장	• "예술은 예술 자체로 가치가 있다." • "예술을 윤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과 품성에 영향을 준다."
장점	예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 강조
한계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음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592 (가)는 도덕주의, (나)는 심미주의 입장이다. 도덕주의는 부도덕한 작품에 대한 윤리적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덕주의는 심미주의 입장에 대해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정당한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즉 (나)에서 (가)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예술의 자율성을 무제한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즉 (나)에서 (가)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예술은 오직 미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즉 (나)에서 (가)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예술이 도덕적 교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즉 (나)에서 (가)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593 갑은 와일드이다. 와일드는 심미주의 입장에서 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예술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심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을 낮게 본다. ③ 예술이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은 도덕주의 입장이다. ④ 심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며 예술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⑤ 심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594 갑은 와일드, 을은 칸트이다. 와일드는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그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윤리적 공감은 예술가의 독창성을 잃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미가 도덕성의 상징으로서 도덕성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칸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는 모두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와일드는 '아니요', 칸트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ㄷ. 와일드는 심미주의 입장이므로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59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묵자는 민생에 쓰여야 할 재물과 노동력이 악기 제작과 음악 감상에 낭비된다고 보아

음악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백성의 이익을 위한 절약을 중시하며 음악을 통해 사치와 낭비를 일삼던 당시 지배층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묵자는 음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비악론을 주장하였지만 음악이 주는 즐거움 자체는 인정하였다.

바로알기 | ① 유교에서는 음악을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며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②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것은 심미주의 입장이다. ③ 공자는 "예(禮)에서 사람이 서고 악(樂)에서 사람이 완성된다[立於禮 成於樂]."라고 하면서 예술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음악이 도덕과 질서(예)를 실현하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카타르시스를 통해 정서적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고 보아, 예술이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묵자는 음악이 즐거움을 주지만, 노동력과 재화가 낭비되어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았다.

596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고,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음악

경박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질서와 위엄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의를 지키고 행동을 삼가게 만드는 음악

갑: 노래와 음악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사람들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따라서 옛 임금들은 음악의 형식을 신중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음악이 중정하고 화평하면 백성들은 서로 화합하여 그릇됨에 빠지지 않으며,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백성들은 질서를 지켜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을: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 일을 처리한다. 만약 대신들이 음악을 즐기느라 국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음악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즐기는 것은 옳지 않다.

모범 답안 갑은 순자, 을은 묵자이다.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아 음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묵자는 민생에 사용되어야 할 재물과 노동력이 악기 제작과 연주, 감상을 위해 낭비된다고 보아 음악을 비판하였다.

597

제시된 가상 대화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 모두 자유를 전제로 성립하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 모두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았다. ②, ④ 칸트는 미는 도덕성의 상징으로, 미적 체험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98

갑은 순자, 을은 묵자이다. 순자에 따르면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교화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 반면 묵자에 따르면 음악은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② A에는 순자가 묵자에게 비판할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묵자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예(禮)와 결합되어 백성을 교화하고 질서를 세우므로 음악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묵자가 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④, ⑤ B에는 묵자가 순자에게 비판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묵자에 따르면 음악은 백성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악기 제작·연주 등에 재물과 노동이 낭비된다. 따라서 음악은 백성의 이익(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판·절제해야 한다(비악론). 또한 음악의 목적은 욕망 충족과 즐거움 제공에 그칠 뿐이며, 재물과 노동을 낭비하고 백성의 이익에 도움 안 되므로 금지·절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순자가 묵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599

모범 답안 갑은 플라톤, 을은 톨스토이로, 모두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하여 도덕주의 입장을 지닌다. 현대사회에서 도덕주의는 참여 예술론으로 나타나므로 갑, 을의 입장에서는 A에게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 개념 보충

플라톤과 톨스토이의 도덕주의적 예술관

사상가	입장
플라톤	• 예술은 도덕적 가치(선·덕)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예술은 현실(이데아의 모방)을 다시 모방한 것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함 • 예술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님 • 국가가 예술의 내용을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규제해야 함 • 이상 국가에서는 예술을 통해 청소년의 인격과 품성 함양을 도모해야 함
톨스토이	• 예술은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공감을 형성하는 활동임 • 예술의 가치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음 – 형제애, 사랑 등 도덕적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 → 좋은 예술 – 성적 욕망, 허영 등 부도덕한 감정을 퍼뜨리는 예술 → 나쁜 예술 • 예술은 인간 간의 도덕적 연대와 공감 형성에 기여해야 함

600

예술은 현실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함

모방자로서 시인은, 과거나 현재에 처하고 있는 사물의 상태를 모방하거나, 사물이 과거나 현재에 처하고 있다고 말하여지거나 생각되어지는 상태를 모방하거나, 사물이 마땅히 처하여야 할 상태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의 성품과 영혼은 무시케(시와 예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무시케는 쾌락의 범주에 속하며, 도덕적 덕성은 올바르게 기뻐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며 올바르게 미워하는 것에 관계한다. 올바른 판단만큼 배워야 하고 습관화시켜야 하는 것이 없으며, 고상한 인품과 훌륭한 행위에 대해 기뻐하는 것만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으로 보았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수동적인 모방이 아니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능동적인 모방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음악과 예술이 인간의 품성, 의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무시케(시와 음악)는 휴식과 긴장 해소, 카타르시스,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과 자유로운 정신 활동의 고양을 중시하였으며,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술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가 사물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모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감정의 정화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성품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모방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움과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모방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카타르시스는 개별적 감정의 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60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예술이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도덕주의 입장에서 예술이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예술이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심미주의 입장이다. ②, ③ 플라톤은 도덕주의 입장에서 예술과 도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④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다. 그는 예술 작품이 불완전한 현실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리를 인식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602 공자에 따르면 음악과 인간의 성품은 관련되어 있으며, 어질지 않으면 예와 음악을 할 수 없다.
바로알기 | ② 공자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인격을 닦음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仁]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③, ⑤ 음악은 즐거우나 낭비이며 백성의 삶에 유해한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본 것은 묵자이다. ④ 공자는 "인간은 시(詩)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禮)에서 사람이 서며, 악(樂)으로써 자기를 완성한다."라고 하며 음악의 도덕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603 자본과 결합한 대중문화는 제작과 유통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질적 향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수준이 낮은 작품이 대중의 선택을 받기 어렵고 외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04 **모범 답안** 대중문화는 동물 학대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개인과 사회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대중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여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한다.

605 제시된 사례는 영화를 본 가해자가 모방 범죄를 저지른 사례이다. 이처럼 대중문화에 담긴 폭력적 요소는 폭력을 자연스럽거나 정당한 행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나아가 모방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닌다.

606 제시된 글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 문제 중 선정성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대중문화는 자극적인 요소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성 상품화는 대중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60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이다. 이들은 문화 산업이 대중의 비판적 사유를 막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608 제시된 글에서는 자본에 종속된 대중문화가 획일적인 형태로 생산되며, 대중의 사고까지 획일화·규격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경계한다. 나아가 대규모 자본에 의존하는 문화 산업은 대중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알기 | ② 예술의 아우라 붕괴가 예술의 대중화·정치화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본 벤야민의 입장에 가깝다.

609 벤야민은 예술 작품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와 현존감을 '아우라'라고 보았으며, 이는 원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가치라고 봄

오늘날 복제 기술은 원작과 구별하기 힘든 완벽한 복사본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술 작품이 특정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뿜어내는 일회적 현존성, 즉 '아우라'이다. 과거의 예술이 신성한 숭배의 대상으로서 고유한 기운을 지녔다면, 현대의 기술적 복제 시대에서 이 아우라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복제 기술은 단 하나의 원작이 가졌던 '여기와 지금'의 가치를 무한한 '대량적 현존'으로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원본의 권위가 해체된 자리에 예술의 일상화와 민주화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적 복제로 예술 작품이 소수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 누구나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됨

제시된 글은 벤야민의 입장을 보여 준다. 벤야민에 따르면 복제 기술은 예술의 '일회적 현존(아우라)'을 '대량적 현존'으로 전환하여 대중이 언제 어디서나 예술 작품을 쉽게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복제 기술은 대중의 예술적 감각을 발달시키고 비판적 인식을 높여 집단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바로알기 | ① 벤야민에 따르면 복제 기술은 예술의 아우라를 약화·해체한다. ② 벤야민에 따르면 예술의 가치는 작품 자체보다 특정 시간·공간에 존재하는 방식(아우라)에 의해 결정된다. ③ 벤야민에 따르면 복제 기술은 예술의 대중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시킨다(정치적 기능 강화). ④ 벤야민에 따르면 과거 예술은 제의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 주술·종교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대에는 전시 가치가 중심이 되면서 대중에게 보여지고 소비되는 새로운 기능의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61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사회나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되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A국 정부에 대중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대중문화가 사회에 실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규제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⑤ 밀은 해악 여부를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한다. 그는 경제성이나 다수결의 원칙을 기준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③ 밀은 타인과 사회에 실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규제를 인정한다. ④ 밀은 국가의 권위적 개입을 주장하지 않는다.

611 (가)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가, (나)에는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중문화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대중의 문화 선택권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⑤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 해당한다.

612 제시된 칼럼은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제도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13 **모범 답안** 대중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대중문화의 가치와 예술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를 향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14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건전한 문화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 즉 수익 창출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며,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창작하고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바로알기 | ㄴ. 단순히 관심을 끌고 흥행을 목적으로 한 선정성 강조는 대중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ㄹ. 대중문화의 상업성에 편향된 입장으로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반대된다.

615 **모범 답안**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고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12 의식주 및 경제생활의 윤리~다문화 사회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36쪽

616 볼노브 617 과시적 소비 618 역설 619 다문화주의
620 대화 621 불교 622 윤리적 623 동화주의
624 국수 대접 모형 625 관용

난이도별 필수 기출 136~143쪽

626 ③ 627 ③ 628 ③ 629 ② 630 해설 참조
631 ② 632 ③ 633 ③ 634 ② 635 ⑤
636 베블런 637 ④ 638 ⑤ 639 ② 640 ④
641 ⑤ 642 ④ 643 ② 644 ④ 645 ④ 646 ②
647 ② 648 ① 649 ④ 650 ② 651 해설 참조
652 해설 참조 653 ① 654 해설 참조 655 ④
656 ⑤ 657 국수 대접 모형 658 해설 참조 659 ⑤

626 공자는 의복을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검소함을 바탕으로 예(禮)에 맞게 갖추어 입음으로써 내면의 덕과 도덕성을 외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모습을 중시하는 정명 사상과도 연결된다.

바로알기 | ①, ②, ⑤ 공자가 의복과 관련해 중요시하는 것은 예(禮)에 맞는 절제이다. ④ 노자의 도가 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627 제시된 글에서는 패스트 패션 현상이 환경 오염과 노동 착취를 일으킨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가)에는 패스트 패션 현상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패스트 패션 현상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량 생산·소비 중심 구조에서 환경과 노동자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로 전환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패스트 패션 현상을 강화하여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⑤ 노동 집약적인 공장 확대는 개발 도상국에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를 강화해 기존의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패스트 패션을 강화한다.

62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멜이다. 그에 따르면 유행은 집단에 대한 동조 욕구와 개인의 차별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상류층에서 시작되어 하위 계층으로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바로알기 | ③ 지멜은 유행을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독특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또한 유행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 계층 구조와 긴밀히 연관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

629

인간의 쾌락을 위해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현실을 비판함

우리는 고기라는 사치품을 즐기기 위해 공장식 사육으로 동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식습관을 바꾸기 싫다는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진정 윤리적인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이제는 육식 위주의 식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종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함

그림의 사상가는 싱어이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은 종(種)의 차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이익은 차별 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싱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며, 육식 중심의 식습관을 반성하고 채식 확대나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 등 윤리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30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의 입장에서는 A의 식습관에서 음식을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여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631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단순하고 소박한 음식도 충분한 쾌락을 제공하며, 건강에 이롭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입장

사상가	입장
에피쿠로스	•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 진정한 쾌락과 행복이 성립함 • 욕구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자연적·필수적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함 – 자연적·필수적 욕구: 식욕, 수면욕 – 자연적이지만 비필수적 욕구: 성욕 – 비자연적·비필수적 욕구: 명예욕, 권력욕 •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한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가져다주며, 삶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게 해 준다." → 검소한 삶과 욕망의 절제를 통해 평정심과 행복에 이를 수 있음
아리스토텔레스	• 행복은 인간 삶의 최종 목적이자 최고선으로, 덕(아레테)에 따른 이성적 활동을 통해 성립함 • 덕은 두 종류로 구분됨 – 지성적 덕: 이성 활동(지혜, 논리, 사유) – 품성적 덕: 감정과 행동의 중용(용기, 절제 등) → 품성적 덕은 중용과 습관 형성으로 완성됨 • "적당량 이상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폭식가이며, 노예적인 사람이다. 절제하는 사람은 쾌락과 관련해서도 중용을 지킨다." → 과도한 욕망(폭식)은 행복을 해치고, 절제를 통한 중용의 실천이 행복으로 이어짐

632 (가)는 로컬푸드 운동, (나)는 슬로푸드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음식 정의 운동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일종의 인권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질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운동이다.

633

인간은 외부 세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회복해야 하며, 이러한 중심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형성해야 함

인간이 자신의 공간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인간의 본질 실현이 그런 중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중심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중심에 서서 모든 외부 공격을 막아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인간이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집과 내적인 관계를 구축해 집이 우리에게 든든한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의 영역이고 뒤로 물러나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집과의 정서적·실존적 유대가 중요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볼노브이다. 그는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존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집과 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얻고,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볼노브는 집을 지위를 과시하거나 물리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안정과 평화를 얻는 실존적 공간으로 보았다. ④ 볼노브는 인간을 자신의 공간을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하는 공간의 책임자로 보았으며, 집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거주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공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⑤ 볼노브에 따르면, 인간은 집과 같은 공간과 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과 평화를 얻고, 이러한 안정된 삶의 기반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따라서 안정된 삶의 기반 형성은 본질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 조건이다.

634

하이데거는 집의 본래적 의미를 휴식과 평화를 누리고 내적으로 안정을 찾게 해 주는 것이라고 봄

> 당신은 지금 단순히 건물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함이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본질을 소중히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거 공간은 고유한 역사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규격화되어, 우리는 마음 둘 곳 없는 '고향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을 넘어, 삶의 근본 요소가 숨 쉬는 진정한 거주를 회복하여 당신의 본질을 지켜 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게 되면서 내적 공간으로서 집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현대를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그에 따르면 본래적 의미의 거주 공간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내적 공간, 즉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러한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채 고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하이데거에 따르면 집은 사회적 지위의 과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 속에서 거주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본질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ㄹ 하이데거에 따르면 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인간이 거주하고 존재를 형성하는 열린 실존적 공간이다.

63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볼노브이다. 그는 집을 인간이 거주하는 삶의 중심 공간으로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안정의 장소로 보았다. 또한 그는 집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보다 집과 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볼노브에 따르면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삶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안정과 평화를 얻으며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거주 공간이므로,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인간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여 불안정한 외부 세계 속에서도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외부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안정된 공간이므로,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636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그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하는 핵심 기준이 재력이라고 보았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드러내고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과시적 소비를 행한다고 주장하였다.

637 베블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소비 양식인 과시 소비를 하위 계층이 모방하며 이러한 소비 양식이 확산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소비의 목적을 실용적 가치로 본 것은 베블런이 아니라 전통적 경제학적 관점이다. ② 절제의 덕과 명성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윤리관에 가깝다. ③ 환경·인권 중심 소비는 현대의 윤리적 소비 개념이다. ⑤ 타인의 시선과 무관한 소비는 베블런의 과시 소비와 반대된다.

63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그는 유한계급인 부유층이 명성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지속하며, 이러한 과시적 소비가 다른 계층, 특히 하위 계층으로 모방·확산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베블런은 거의 모든 사회 계층이 유한계급의 소비 방식을 모방한다고 보았다. 또한 과시적 소비는 상류층에서 시작되어 하위 계층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소비의 핵심 목적을 과시성에 두었으며,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낭비적인 소비가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639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보드리야르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빵이 상징하는 세련됨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기호를 소비함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는다.

바로알기 | ㄴ. 보드리야르는 소비의 본질을 소유나 만족이 아니라 기호의 소비와 사회적 의미의 획득으로 본다. ㄷ. 보드리야르는 현대 소비가 기능보다 상징적 의미와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640 ㉠에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소전제로서 '과시 소비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과시 소비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내용이 알맞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④가 적절하다. ④는 과시 소비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동적 모방 행위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641 합리적 소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윤리적 소비는 환경과 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합리적 소비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윤리적 소비의 기준에 해당하며, 합리적 소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효용과 비용 대비 만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최소 비용 대비 최대 만족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인권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③ 윤리적 소비도 충분히 도덕적 만족, 가치 실현의 만족 등과 같은 개인적 만족을 준다. 단지 그 만족의 기준이 경제적 효용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④ 타인에게 부를 과시하려는 소비는 과시적 소비(베블런적 소비)에 해당한다. 이는 합리적 소비와도, 윤리적 소비와도 모두 거리가 있다.

642 (가)는 합리적 소비, (나)는 윤리적 소비의 입장이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윤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합리적 소비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가)에서는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간과'는 (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합리적 소비는 소비를 개인의 효용과 비용 절감 문제로 본다. 즉 공동체의 안녕이나 사회적 영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입장에게 '소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③, ⑤ (가)에서는 소비는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효용성과 만족감만을 높이는 수단임을 간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임을 간과'한다는 내용은 (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643 갑은 동화주의, 을은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화주의에서는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고 동일한 문화 규범을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다문화주의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공존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ㄴ. 상호 존중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특징이다. 동화주의는 존중·공존이 아니라 동화(흡수)를 강조한다. ㄷ.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문화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

644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대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화의 공존을 지향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동화주의에 대하여 이주민에게 주류 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며,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문화가 공존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이주민이 주류 사회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②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③ 단일 문화 형성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⑤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645 그림의 강연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자국 문화를 중심에 두었던 태도를 반성하고, 문화 간의 위계적 인식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보며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연자는 문화 간의 위계를 부정하고 수평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관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강연자는 오히려 문화 존중과 공존을 강조하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강연자는 위계 자체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타 문화를 존중하더라도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것은 여전히 위계적 관점이다. 강연자는 이러한 태도를 반성하고 내려놓자고 말하고 있다. ⑤ 소수 문화를 흡수해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므로 강연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646 갑은 동화주의, 을은 다문화주의 입장이다. A에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B에는 갑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C에는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동화주의는 사회 통합을 위해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할 것을 제시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 또한 대등하게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 ㄹ. 다문화주의는 자문화와 타 문화를 대등하게 인정하고 공존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문화주의 입장이다. 따라서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문화주의 입장이다. 따라서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47 갑은 다문화주의, 을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화주의는 이주민이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동화주의는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을 통한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알기 | 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별하고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ㄹ. 주류 문화가 중심 역할을 하되, 비주류 문화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 다원주의 입장이다.

648 (가)는 국수 대접 모형, (나)는 용광로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특징은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문화 간의 우열을 강조하는 정도(Y)'와 '문화 단일화를 전제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도(Z)'는 높다.

649 (가)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문화 상대주의는 타 문화와의 접촉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접촉 속에서 이해와 존중을 강조한다. ②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절대적 평가 기준 정립은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절대주의(보편주의)의 입장이다. ③ 문화를 발전 단계로 나누고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각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와 반대된다. ⑤ 타 문화를 자문화의 틀로 재해석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입장으로, 문화 상대주의는 이를 비판한다.

650 문화 상대주의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마저 존중하게 될 경우 보편 윤리적 성찰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알기 | ①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는 주체성 상실이 아니라 보편 윤리 판단의 어려움이다. ③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리는 절대적 기준 제시를 거부한다. ④ 자문화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지,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가 아니다. ⑤ 문화 상대주의는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651 **모범 답안** (가): 윤리적 상대주의, (나): 문화적 차이를 근거로 보편적 윤리 규범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문화 속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도덕 기준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어 비도덕적 행위조차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652 **모범 답안**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보편 윤리에 위배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65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포퍼이다. 포퍼는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관용이 사라지게 된다는 '관용의 역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관용 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억제와 거부가 필요하다.

바로알기 | ② 포퍼는 관용을 특정 집단 내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 전반에서의 관용을 강조하였다. ③ 포퍼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폭력과 억압으로 자유 체제를 파괴하려는 불관용 세력까지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④ 포퍼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였다. ⑤ 포퍼는 모든 반대 의견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을 통해 관용 자체를 파괴하려는 '불관용 세력'에 한해 제한을 정당화하였다.

654 **모범 답안** 이 사례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의 윤리 문제는 이주민 차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문화적·종교적 이질감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 상대방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자기중심적 태도 등이 있다.

655 제시된 글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기준으로 대접한 결과 새가 죽게 된 사례이다. 이는 자신의 기준을 타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의 문제를 보여 준다. 이러한 태도는 이주민 차별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이해나 동화 시도는 오히려 소외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 문화에 대한 일방적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관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간 이해와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656 제시된 글은 이주민 차별이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보편적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모든 구성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657 국수 대접 모형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조화시키려는 모형을 의미한다.

658

종교적 열정이 배타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관용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함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회들 가운데 어느 한 교회가 종교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정통 교회에 정통이 아닌 다른 교회를 파괴할 권력을 더해 주지는 않습니다. …… 자신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사인이거나 공화국을 이끄는 사람이거나 간에, 자비와 온화함, 관용을 향하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영혼의 모든 혐오와 열심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리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크는 어떤 종교가 진리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종교를 억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관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모범 답안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59

종교 간 이해와 대화를 위해서는 상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함

>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한 정확하고도 사실적인 지식 없이 진지한 종교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인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종교들이 공유하는 모든 윤리적 근본 원칙들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퀑은 종교 간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보편적 윤리(세계 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퀑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바로알기 | ① 퀑은 종교 문제가 단순한 신학 논쟁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세계적 평화와 긴밀히 연결된다고 보았다. ② 퀑은 단일 종교 창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공통의 윤리 원칙(세계 윤리)을 발견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퀑은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중시하였다. 자국 종교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배격한다. ④ 퀑은 맹목적 관용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대화를 강조하였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11~12강 | 144~145쪽

660 ④ 661 ③ 662 ③ 663 ③ 664 ④ 665 ③
666 ① 667 ④

660 갑은 순자, 을은 묵자이다. 순자는 우아한 음악이 백성의 마음을 선하게 교화한다고 보았으나, 묵자는 음악이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묵자는 음악이 즐겁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묵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묵자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묵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며, 음악과 예를 통한 교화·규범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는 순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순자는 모든 음악을 무조건 긍정하지 않았으며, 예에 맞는 '올바른 음악'만 교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순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661 갑은 플라톤, 을은 칸트이다. 플라톤은 우아한 예술이 도덕적 품성 함양에 기여한다고 보았고, 칸트는 미적 즐거움이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았다. A에는 플라톤이 긍정,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B에는 플라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C에는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은 예술은 영혼과 품성을 형성하므로 도덕성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미적 체험은 도덕 판단과 구별되지만, 도덕으로 나아가는 계기·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구별되지만, 상징 관계는 인정하였다(미는 도덕의 상징). 따라서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6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그는 문화 산업이 규격품을 만들 듯 인간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소비자에게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바로알기 | ①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창의성을 증진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상상력과 자발성을 마비시킨다고 비판하였다. ③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인간을 규격품처럼 재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재생산한다고 비판하였다. ④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지배 질서를 유지·강화하며,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획일화로 대중을 수동화한다고 보았다.

663 (가)는 패스트 패션으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를 비판하며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는 패스트 패션으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는 소비자의 자발적 태도 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패스트 패션이 소비자 만족을 높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본다. ④ (나)는 정부 개입을 비판하고, 소비자의 자발적 변화를 해결책으로 본다. ⑤ (가)와 (나) 모두 단순히 유행만을 의류 소비의 가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가)는 환경적 공익을 강조하고, (나)는 윤리적 가치 소비를 강조한다.

66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볼노브이다. 그는 거주를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삶의 중심으로 형성하는 존재 방식으로 보았다. 그는 집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휴식을 얻는 공간이자 인간 삶의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바로알기 | ① 볼노브는 집을 인간 삶의 중심 공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볼노브는 집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긴장 완화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볼노브는 인간은 거주를 통해 삶의 중심(공간적 중심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볼노브는 거주를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참다운 삶과 연결된다고 보고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665 갑은 베블런, 을은 보드리야르이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인은 사물을 사용 가치를 위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는 기호로서 구매한다.
바로알기 | ① 베블런은 소비를 단순한 생존 욕구 충족이 아니라 과시와 명성 획득의 수단(과시적 소비)으로 보았다. ② 베블런은 상류층(유한계급)의 소비를 하위 계층이 모방한다고 보았다. ④ 보드리야르는 소비자가 사용 가치보다 기호·차이를 중시한다고 보았다. ⑤ 베블런은 소비를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로, 보드리야르는 타인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호로 보았다. 즉 두 사상가 모두 소비를 타인의 시선·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66 (가)는 용광로 모형, (나)는 국수 대접 모형이다. 용광로 모형에 비해 국수 대접 모형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소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정도(Y)'와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공존을 중시하는 정도(Z)'는 높다.

667 (가)는 문화의 상대성을, (나)는 보편 윤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보편 윤리를 중시하는 입장은 다양성을 존중하되 인권이나 생명 존중과 같은 인류 보편의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가)는 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사대주의처럼 무조건 우수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객관적 우열 기준을 부정하므로, 자문화 기준으로 타 문화를 등급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③ (나)는 문화 특수성보다 보편 윤리(인권 등)를 더 중시한다. ⑤ (가)는 도덕 판단의 상대성을 강조하지만, (나)는 보편적 도덕 원리의 존재를 인정한다.

13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남북한 평화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48쪽

668 세대 669 계층 670 담론 671 화쟁 672 정당성
673 포퍼 674 화이부동 675 분단 676 제도 677 정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148~155쪽

678 ③ 679 ② 680 해설 참조 681 ④ 682 ③
683 ① 684 해설 참조 685 ① 686 ⑤ 687 ③
688 ④ 689 나딩스 690 ⑤ 691 ① 692 ①
693 하버마스 694 ③ 695 ② 696 ② 697 ①
698 ⑤ 699 해설 참조 700 ① 701 ⑤ 702 ①
703 ② 704 ① 705 ⑤ 706 ④ 707 해설 참조
708 ⑤ 709 ⑤ 710 ⑤ 711 ① 712 ① 713 ③
714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 정의

678 제시된 글은 벨기에의 지역 갈등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 갈등은 지역의 상황과 결부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바로알기 | ① 이념 갈등은 사회 구성원 간에 생각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이다. ② 세대 갈등은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④ 계층 갈등은 계층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혜택,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이가 커질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⑤ 노사 갈등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679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만큼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ㄷ.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80 모범 답안 (가)에 들어갈 용어는 갈등이다.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대립,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681 제시된 글에서는 갈등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갈등이 사회의 해악이라고만 보는 입장에 대해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갈등으로 사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갈등이 사회 분열 현상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682 제시된 글에서는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입장에 따르면 세대 갈등은 세대 간 소통과 상호 양보, 기성세대의 관용과 양보, 청년들에 대한 비전 제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ㄱ. 제시된 글은 세대 갈등이 경제 영역에서 두드러진다고 본다. ㄴ. 제시된 글에 따르면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가족의 역할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683 제시된 칼럼에서는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호 비난을 지양하는 것과 같은 시민들의 의식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노력과 사회 구조적 방안의 구축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② 칼럼은 세대 간 부정적 인식이 세대 갈등을 심화한다고 본다. ③ 칼럼은 정부가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④ 칼럼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고정 관념이 세대 갈등을 심화한다고 본다. ⑤ 칼럼은 양보와 존중의 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684 **모범 답안**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선을 실현해야 한다.

685 (가)에는 이념 갈등, (나)에는 자원 배분, 개발 이익, 편견 등, (다)에는 세대 갈등이 들어간다. 계층 갈등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소득 불평등 현상의 심화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686 갑은 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을은 난민 수용의 현실성과 사회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검증된 난민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과 을의 대화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 판단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① 갑, 을은 국제적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②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은 세대 갈등이다. ③ 갑, 을은 난민 문제라는 동일한 사회 현상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④ 근로 조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은 노사 갈등이다.

687 제시된 글에서는 사회갈등의 순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집단이나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사회 발전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제시된 글에서는 사회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ㄷ. 제시된 글에서는 외부 집단과 갈등이 커질수록 집단 이탈은 감소하고 내적인 응집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본다.

68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A에게 해당 문제와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하버마스는 모든 합의 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하버마스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을 담론에 참여해야 하는 합의 당사자로 볼 것이다.

689 나딩스는 상대가 겪는 경험에 몰입하고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된 상태인 '전념'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69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화쟁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두 단체에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를 포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원효는 모든 종파와 사상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원효는 어긋나 보이는 주장이나 해석을 조화롭게 포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원효는 회통과 화회를 강조하므로 이분법적 접근을 적절하다고 보지 않았다. ④ 원효는 모든 교리와 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마음, 즉 일심(一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691 그림의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692 그림의 사상가는 포퍼이다. 포퍼는 불관용까지 관용하는 무제한적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이른바 '관용의 역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69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중시하였다.

69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이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문제 상황이 변했다면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통해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ㄴ.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

이해 가능성	대화 참여자들의 표현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진리성	표현은 참이어야 함
정당성	표현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야 함
진실성(진정성)	진실한 태도로 참여해야 함

69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포퍼이다. 포퍼는 인간이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적 논의를 통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였다.

바로알기 | ㄴ. 포퍼는 인간이 언제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ㄷ. 포퍼는 자유로운 비판과 담론이 가능한 사회, 담론이 정책의 수정과 결정에 반영되는 사회인 열린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696 갑은 유교, 을은 원효이다. 유교에서는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강조하였다. 원효는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화쟁(和諍) 사상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공자가 강조한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동일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지닐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화뇌동은 다른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ㄹ. 원효에 따르면 참과 거짓은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이다. 원효는 이를 일심(一心)이라고 하였다.

697 분단 비용은 분단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을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통일 편익은 통일로 얻게 되는 혜택을 의미한다. 분단 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에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개념 보충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분단 비용	• 분단에 따른 갈등 때문에 지출되는 유무형의 소모성 지출 비용 • 군사·외교적 경쟁, 이산가족의 슬픔 등 통일하면 소멸하는 비용
통일 비용	•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부담해야 할 비용 •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생산 비용
통일 편익	•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보상과 혜택 •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

698 제시된 글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제시된 글에서는 통일 비용은 유한하지만 통일 편익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무한하다고 보았다. ③ 제시된 글에서는 통일 비용을 통일 회피의 근거로 삼기보다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제시된 글에서는 구체적인 통일 전략을 제시해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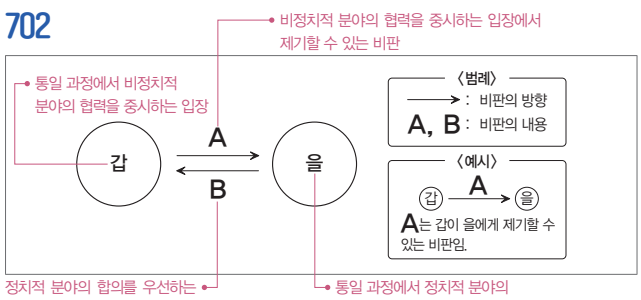
699 **모범 답안**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이 해소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하게 되면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다.

700 갑은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을은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통일의 방식으로 정치 체제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X)'는 낮고, '통일을 통한 민족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정도(Y)'와 '통일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경제, 예술 교류를 우선시하는 정도(Z)'는 높다.

701 갑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을은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 정도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바로알기 | ① 갑과 을 모두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본다. ② 갑과 을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갑과 을 모두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④ 갑과 을 모두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된다고 본다.

702



갑은 통일 과정에서 비정치적 분야인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을은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게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협력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갑은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갑과 을 모두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④ 갑과 을 모두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통일에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은 남북한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질성을 제거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703 제시된 글에서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통일 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③ 통일 이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통합하는 통일 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④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누적된다. ⑤ 통일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통일 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 편익에 비해 통일 비용이 막대하다는 통일 반대론자의 주장은 옳지 않다.

704 갑은 통일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 을은 통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통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통일이 세계 평화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는 정도(Y)'와 '통일이 북한 인권 문제의 해법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705 제시된 기사에서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바로알기 | ① 기사에서는 인권이 국가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인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② 기사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기사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④ 기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706

갑: 나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 한민족의 과제이기 때문이야. →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
을: 하지만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 통일보다는 현재와 같은 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
갑: 그러나 통일로 얻게 되는 평화와 이익에 주목해야 할 필요도 있어.
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커져서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무척 클 거야. →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통일로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갑: (가)

갑은 통일에 적극적 입장, 을은 통일에 소극적 입장이다. 갑은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하며, 통일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통일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⑤ 모두 통일에 대한 찬성 논거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707 **모범 답안**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으로, 국방비, 외교 경쟁 비용과 같은 경제적 비용과 이산가족의 고통, 전쟁 가능성의 공포 등 비경제적 비용이 있다.

708 갑은 북한을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을은 평화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상대로 인식한다. 갑과 달리 을은 남북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라본다.

709 북한 주민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 한국은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710 제시된 글에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열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통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 준비해야 한다. ② 분단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일을 서두르는 것은 통일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 ③ 정치적 통합 이전에 사회·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사 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글에 나와 있는 사회 분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711 제시된 글에서는 남북 분단의 구조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통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회와 개인의 삶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②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 구조이다. ③ 통일은 개개인에게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제공할 것이다. ④ 분단 구조는 남북한의 소모적 경쟁과 대결을 초래한다. ⑤ 제시된 글의 입장에서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은 분단 구조가 아니라 통일이다.

712 제시된 글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발생한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ㄷ.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ㄹ.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이 서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부터 통일 이후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이류 시민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713 제시된 칼럼에서는 독일 통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사회적·문화적 통합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체제 통일을 위한 안보 강화는 칼럼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② 칼럼은 외적 통합보다 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흡수 통일 지향은 칼럼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⑤ 칼럼은 통일 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714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 정의 등이 있다.

14 국제 사회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58쪽

715 현실주의 716 적극적 717 국제 연맹 718 겸애
719 질서 정연한 720 이상주의 721 구조적 722 예비
723 노직 724 공리주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158~165쪽

725 ⑤ 726 ① 727 해설 참조 728 ③ 729 ③
730 해설 참조 731 ③ 732 ⑤ 733 겸애 734 ⑤
735 ② 736 환대권 737 ③ 738 해설 참조
739 ① 740 칸트 741 ③ 742 ① 743 ④
744 해설 참조 745 ① 746 ② 747 ① 748 ⑤
749 ⑤ 750 해설 참조 751 ④ 752 ① 753 ②
754 ③ 755 롤스 756 ⑤ 757 ① 758 ① 759 ①
760 ② 761 ④ 762 ① 763 해설 참조 764 ⑤
765 ②

725 제시된 글과 같은 주장을 대표하는 사상가는 모겐소이다. 모겐소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726 제시된 글의 입장은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에 합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위의 중앙 권위 기구가 없으므로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 것과 같이 국가도 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③ 보편적 도덕규범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④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분쟁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727 모범 답안 제시된 입장은 이상주의이다. 이상주의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나 불합리한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고, 국제 규범으로 국가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728 제시된 글은 현실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평화란 힘의 논리에 따른 세력 균형으로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본질이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며,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므로 영원한 우호국은 없음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타국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국제 협약으로 국가 상호 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729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세력 불균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세력 균형 및 동맹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주의는 분쟁이 무지, 오해, 잘못된 제도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국제법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개별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상위의 중앙 권위가 없다고 보았다. ㄹ. 현실주의에서는 자국의 이익 실현을 가장 중시하였고, 이상주의에서는 자국의 이익 실현도 중요하지만 국제 평화의 실현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30 모범 답안 현실주의에서는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유일한 행위 주체라고 보지만, 이상주의에서는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731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분쟁의 원인을 제도적 결함에서 찾는 정도(X)'는 높고,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Y)'는 낮으며, '윤리를 국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Z)'는 높다.

732 갑은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의 관점이다. 국제 평화와 국제 관계를 도덕적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733 묵자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애'를 강조하였다. 묵자의 입장에 따르면 겸애를 실천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면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734 (가)에 들어갈 말은 문화적 폭력, (나)에 들어갈 말은 적극적 평화이다. 갈퉁은 적극적 평화를 위해 직접적 폭력을 비롯하여,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등의 간접적 폭력까지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갈퉁이 제시한 폭력의 개념

직접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사회 제도나 관습, 정치, 법률 등에서 생기는 폭력
	문화적 폭력	종교, 언어, 예술 등의 이면에 내재한 폭력으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함

735 (가)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는 갈퉁이다. 갈퉁은 물리적 폭력만이 사라진 상태는 소극적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36 칸트는 평화로운 방문자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인 환대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평화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7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갈퉁이다. 갈퉁은 오직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

바로알기 | ㄱ. 갈퉁은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ㄹ. 갈퉁은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38 모범 답안 갈퉁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적 폭력은 행위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은 사회 제도나 정치 구조 내에 존재하는 폭력이며,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종교, 언어, 예술, 교육 등을 의미한다.

73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갈퉁이다. 갈퉁은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갈퉁은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갈퉁은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소극적 평화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갈퉁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 등에 문화적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소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이다. ⑤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등의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740 칸트는 영구적인 평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다.

74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칸트는 국제법이 이성의 명령에 바탕을 둔 보편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칸트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국가나 세계 정부가 아니라 여러 독립된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 연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개념 보충

칸트가 주장한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3.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74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대내 권력이 전제적일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로운 방문자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칸트에 따르면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에 의해 공통으로 규제될 수 있다. ③ 칸트에 따르면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청한다. ④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국가나 세계 국가가 아닌 여러 독립된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 연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칸트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한 환대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해 있는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743 그림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세계시민법이 보편적 우호의 조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744 **모범 답안** 칸트의 확정 조항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이 확립해야 하는 규범 체계를 제시한 것이며, 예비 조항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금지하고 전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745 제시된 글의 '나'는 현실주의, '어떤 사람들'은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 관계에서 도덕적 고려보다는 자국의 이익 고려가 우선한다고 보며, 힘의 균형을 통해 일시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주의에서는 국가 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협력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주의에 대해 국제 관계에서 도덕은 무력하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나'와 '어떤 사람들' 모두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제기할 비판에 해당한다. ④ '어떤 사람들'은 국가 간에 이성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746 노직은 해외 원조는 좋은 일이지만, 이를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747 (가)는 법에 따라 정당한 제재를 가하는 형사적 정의이고, (나)는 가치나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이다.

748 제시된 글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프랜차이즈와 해외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전통문화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749 제시된 기사에서는 세계화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750 **모범 답안** 공적 개발 원조로 선진국이 빈곤 국가에 경제적 지원과 기술 협력을 제공하여 가치나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751 (가)는 세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반면 (나)는 세계화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가)는 세계화가 빈곤 문제를 완화한다고 본다. ② (나)는 세계화가 국가 간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③ (나)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가)는 세계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을, (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752 그림의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원조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선적 행위이므로 국가가 과세와 같은 강제 수단을 통해 원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리 증진에 있다고 본 것은 싱어이다. ③ 노직은 원조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④ 노직은 국가가 과세와 같은 강제 수단을 통해 원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을 원조의 목표로 본 사상가는 롤스이다.

753 기아와 빈곤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며, 국제 사회의 분배적 정의를 저해한다. 세계화 시대 지구촌은 생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빈곤 문제 해결에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알기 | ㄴ. 절대적 기아와 빈곤 문제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 깊다. ㄹ.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원조 의무를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다.

754 (가)는 형사적 정의, (나)는 분배적 정의이다.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이다. 국제 정의에서 형사적 정의는 전쟁, 집단 학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는 정의이고, 분배적 정의는 특정 국가나 계층이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국제 정의는 세계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그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755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75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의 증진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개선이 원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질서 정연한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라고 보았다. ②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롤스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는 아니라고 보았다. ④ 롤스는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도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57 갑은 세계화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을은 세계화가 선진국에 유리하며, 국가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세계화가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한다고 보는 정도(X)'는 낮고, '세계화가 글로벌 빈부 격차를 심화한다고 보는 정도(Y)'와 '세계화가 국가 간 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보는 정도(Z)'는 높다.

✓ 개념 보충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함 •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를 갖게 되고,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됨 •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짐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교류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경쟁에서 유리해져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됨 •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는 등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됨 • 세계적 문화 교류는 각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문화를 획일화함 • 특정 국가의 권리와 보편 윤리로서 인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짐 •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이 빈번해짐

758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을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② 싱어는 원조 대상자의 인종, 거리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차등의 원칙은 국제적 분배 정의 문제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롤스는 원조를 통해 무법 국가가 아니면서 독재나 착취로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싱어와 롤스는 모두 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759 (가)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고, ㉠에 들어갈 말은 (해외) 원조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원조 대상국에 사회 정의 실현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경우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원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때 경제적 평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ㄹ. 자기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도 남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본 것은 싱어이다.

76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을 인류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원조 대상의 인종, 국적, 거리 등과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원조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로 보았다. ③ 싱어는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원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싱어는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하여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하였다. ⑤ 싱어는 원조하는 사람의 손해가 원조를 통한 이익보다 더 크다면 원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761 제시된 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원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동포애적 감정에 따른 자선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지만, 국가가 강제로 재화를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노동과 같다.

바로알기 | ① 겸애 사상을 제시하여 서로 도울 것을 의무로 제시한 것은 묵자이다. ②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하여 국가 간의 원조를 확대하고자 한 것은 칸트이다. ③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본 것은 싱어의 입장이다. 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 것은 롤스이다.

762 (가)는 형사적 정의, (나)는 분배적 정의이다. (다)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들어갈 수 있고, (라)에는 공적 개발 원조가 들어갈 수 있다. 형사적 정의의 침해 사례로는 전쟁, 집단 학살, 테러, 납치 등 무고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들 수 있고, 분배적 정의의 침해 사례로는 특정 국가나 계층의 부의 편중으로 말미암은 빈곤과 기아를 들 수 있다.

✓ 개념 보충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구분	형사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의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실현되는 정의	재화의 공정한 분배로 실현되는 정의
침해 사례	전쟁, 집단 학살, 테러, 납치 등 무고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특정 국가나 계층의 부의 편중으로 발생하는 빈곤과 기아
실현 방안	국제형사재판소로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국제 범죄 수사에 공조함	공적 개발 원조로 선진국이 빈곤 국가에 경제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부의 격차를 줄임

763 **모범 답안**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가 편중되어 국제 갈등이 심화되거나, 서구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 전 세계의 문화가 동질화될 수 있다.

764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통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이 질문에 대해 롤스는 부정의 대답을, 싱어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④ 이 질문에 대해 롤스와 싱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76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한다고 본 것은 롤스이다. ㄷ. 해외 원조에 대해 개인이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 것은 노직이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13~14강 | 166~167쪽

766 ④ 767 ⑤ 768 ③ 769 ③ 770 ② 771 ⑤
772 ④ 773 ⑤

766 갑은 갈등의 순기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갈등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조직의 통합성과 사회적 기능을 파괴하며 상대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을은 갈등의 역기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갈등이 상호 간 자기주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단의 내적 통합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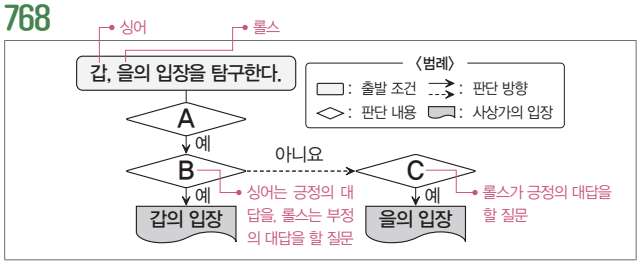
바로알기 | ㄴ. 을은 갈등이 조직이나 집단의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았다.

767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려면 공화 정체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평화 연맹의 결성과 세계시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영구 평화를 위해 상비군은 조만간 폐지되어야 하지만, 자국민의 자발적 무기 사용 훈련이나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은 가능하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 폭력(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중 세 번째 조항의 내용이다. ② 칸트는 각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갈퉁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평화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④ 갈퉁은 폭력이나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사회 정의, 평등, 인간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가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라고 보았다.

768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의 개선을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여전히 빈곤하더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원조의 의무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원조의 의무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싱어만의 입장이다. ㄷ. 싱어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적 소속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769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원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선적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770 (가)의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기 위해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싱어는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원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직은 개인의 자발적 원조는 윤리적으로 훌륭한 행위이지만 국가가 과세를 통해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된 이후에는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에 대해 싱어는 당장 기아로 죽어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방치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지리적 위치나 사회적 소속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에 대한 롤스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노직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원조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롤스와 싱어에 대한 노직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이나 손해보다 클 경우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직에 대한 싱어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노직은 국가가 과세를 통해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노직에 대한 롤스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771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의 입장에서는 롤스에게 원조의 대상을 고통받는 사회로 한정하는 것이 빈곤한 국가에서 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들을 직접 돕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원조의 강요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노직이다. ②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를 의무로 보았다. ③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인류 복지의 향상이라고 보았다. ④ 싱어는 원조를 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클 경우에만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772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롤스뿐만 아니라 노직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지만, 노직은 이러한 원조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노직은 원조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 ㄷ.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773 갑은 노직, 을은 싱어이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으며,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반드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국가가 원조의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② 원조의 대상이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싱어이다. ③ 노직은 원조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았지만, 싱어는 윤리적 의무로 보았다. ④ 노직과 싱어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원조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실전 대비 해설

실전 대비 Ⅰ. 현대 생활과 윤리 1회 170~172쪽

774 ③ 775 ⑤ 776 ③ 777 ㄱ, ㄴ, ㄷ 778 ②
779 ③ 780 ② 781 ④ 782 ③ 783 ④ 784 ③
785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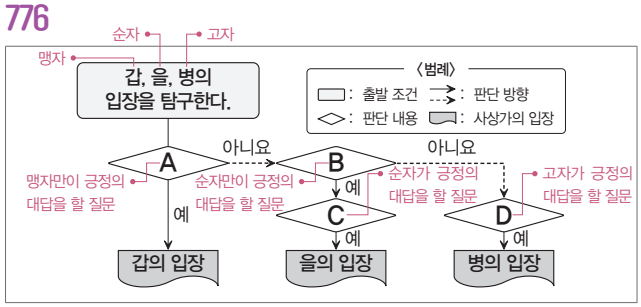
774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언어와 정당화를 분석하고,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① 도덕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를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② 특정 사회의 도덕 관습을 조사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④ 도덕 개념을 정의하여 도덕 판단의 객관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⑤ 인간이 도덕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도덕 과학적 접근이다.

775 제시된 글의 '나'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 탐구를 윤리학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주장은 도덕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윤리학의 역할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윤리학이 규범을 제시하는 학문임을 강조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다. ② 도덕적 규칙과 관습이 당위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은 규범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③ 도덕 추론의 형식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도덕 개념과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776



갑은 맹자, 을은 순자, 병은 고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며, 누구나 사단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악으로 흐른다고 보았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욕구로 보았으며, 선악이 이후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맹자, 순자, 고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순자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777 현대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쟁점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세대를 비롯하여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알기 | ㄹ.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복잡하고 다양해져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

778 (가)에 들어갈 사상은 유교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삶의 기준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며, 군자의 덕과 인간관계의 도리를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ㄴ 차별 없는 사랑과 이익, 공공의 유용성을 강조한 것은 묵가 사상이다. ㄹ. 법과 제도로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법가 사상이다.

779 제시된 글에 나타난 사상은 도가이다. 도가는 성스러움과 지혜, 인위적인 도덕규범과 이익 추구를 버릴 것을 강조하며, 인위가 사라질 때 오히려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학문 연구와 도덕적 수양으로 덕을 갖춘 군자가 될 것을 강조한 사상은 유교이다. ② 도가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⑤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확충하여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유교이다.

780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며, 타고난 도덕적 마음을 보존하고 실천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예와 도덕이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과 학습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선한 행동이 교육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 것은 순자이다. ㄹ. 통치자가 선한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은 맹자이다.

781 제시된 글에서는 불교의 연기설을 설명하고 있다. 연기설에 따르면 괴로움을 포함한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에서 비롯되거나 외부의 초월적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생겨난다. 연기 사상은 모든 현상과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고정불변의 실체를 전제하는 관점으로, 연기설과는 거리가 있다. ② 괴로움을 초월적 존재의 작용으로 보는 입장은 불교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고통이 사라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연기설에 의하면 모든 현상과 존재는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78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쾌락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파급 범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는 쾌락의 계산법을 제시하였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쾌락의 총량을 가져오는 선택이 옳다.

바로알기 | ① 질적으로 높은 정신적 만족을 중시하는 입장은 밀의 공리주의이다. ②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인품과 덕의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덕 윤리에 해당한다. ⑤ 보편적 도덕 원칙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는 관점은 칸트의 의무론이다.

783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인간의 행위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부과해야 하며,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동기와 의무 의식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칸트는 정언 명령을,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78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감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를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는 사회적 승인이나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칸트가 중시한 도덕적 동기와는 다르다. ② 칸트는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 ④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중시하였다.

78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도덕 원리를 아는 데서 찾지 않고, 절제와 용기 같은 덕을 실제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습관화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행위의 결과나 규칙, 의무보다 행위자의 품성과 덕의 형성을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자연법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연법 윤리이다. ②, ③ 행위의 동기가 보편적인 정언 명령에 따른 것인지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한 것은 칸트이다. ④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실전 대비 Ⅰ. 현대 생활과 윤리 2회 173~175쪽

786 ④	787 ⑤	788 ①	789 ④	790 ①	791 ②
792 ⑤	793 ④	794 ⑤	795 ④	796 ③	
797 ㄱ, ㄷ					

786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 사회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고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바로알기 | ①, ② 윤리학을 인과 관계에 따라 설명하고, 사실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다. ③ 도덕 언어와 개념의 의미 분석은 메타 윤리학의 탐구 대상이다. ⑤ 도덕 판단의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도덕 과학적 접근에 해당한다.

787 (가)는 진화 윤리학, (나)는 신경 윤리학, (다)는 실천 윤리학의 관점이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도덕적 의무를 유일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무론의 입장이다. ③ 도덕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현실의 문제 해결에 기반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788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순자의 입장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 입장으로 볼 수 없다. ㄹ. 순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자연적 욕구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성인의 예로 이를 교화하여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78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예와 도덕 규범이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산물이며 학습과 노력으로 습득된다고 보았다. 순자의 입장에 따르면 성인의 예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바로알기 | ④ 타고난 수오의 마음을 보존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에게 선한 도덕 감정이 본래 존재한다고 보는 맹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순자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790 제시된 글은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도가에서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크고 작음, 귀함과 천함의 구분이 상대적이며, 만물이 본질적으로 차별 없이 하나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만물의 위계와 질서에 따른 평가를 긍정하는 것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같은 위계적 인간관계와 각자의 역할에 따른 평가를 중시하는 유교의 관점에 해당한다.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도 유교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791 제시된 글에서는 유교의 이상 사회인 대동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대동 사회에서는 천하를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의 것으로 여기며, 어진 사람과 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공적인 역할을 맡긴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신뢰를 중시하고, 도덕적 덕에 기초한 통치를 이상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①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 것은 장자이다. ③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아닌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 것은 노자이다. ④ 고통의 근원을 깨닫고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소승 불교 사상에 해당한다. 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묵자이다.

792 (가)에 나타난 사상은 유교이다.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불교이다.
바로알기 | ① 인위적 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가 사상이므로 유교에서 부정의 답을 할 것이다. ② 소국과민은 노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유교에서 부정의 답을 할 것이다. ③ 유교에서는 인간관계의 질서인 오륜의 수양을 중시하므로, 유교에서 긍정의 답을 할 것이다. ④ 유교의 인과 예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유교에서 긍정의 답을 할 것이다.

793 제시된 글에서는 불교의 연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연기설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사물의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찾으며, 이러한 무지를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불교에서는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불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794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동기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다. 벤담은 행위나 정책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을 얼마나 증대시키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상은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모두 개인적 감정이 아닌 일정한 도덕 원칙을 통해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려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①,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③, ④ 행위가 보편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칸트이다.

795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

갑(칸트):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가치를 자기 안에 지니며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을(벤담):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에 관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에 따라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이다. 쾌락은 강도와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쾌락의 계산 기준에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가 있음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함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도덕적으로 무조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며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자의 동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과 불행의 증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쾌락은 강도와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상 모두 도덕 판단을 개인적 감정에 맡기지 않고, 일정한 기준이나 원리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려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ㄱ.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하여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ㄷ.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행위의 동기에서 찾는 것은 칸트이다.

796 갑은 밀,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양쪽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확실히 선호하는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윤리의 입장으로, 도덕적 판단의 핵심을 쾌락의 크기나 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덕과 품성, 구체적 실천의 맥락에서 찾았다.

바로알기 | ① 쾌락에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는 것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② 행위자의 성품을 토대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덕 윤리의 입장이다. ④, ⑤ 도덕적 행위를 행위의 동기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칸트이다.

797

갑(밀): 행복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 쾌락의 최대화와 고통의 최소화를 추구함

을(아퀴나스):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을 지향하는 성향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서 나온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자연법

갑은 밀, 을은 아퀴나스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행복을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감소로 이해하며 쾌락 사이에 질적인 우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퀴나스는 자연법 윤리의 입장으로, 인간에게는 선을 지향하는 본성이 내재해 있으며 인간 이성은 그 본성에 담긴 자연법을 인식하여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다수에게 유용한 결과가 도덕적이라고 본 것은 공리주의이다. ㄹ.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개인의 감정으로 본 것은 공리주의와 자연법 윤리 모두와 관련이 없다.

실전 대비 Ⅱ.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1회 176~178쪽

798 ④ 799 ③ 800 해설 참조 801 ⑤ 802 ②
803 ④ 804 ⑤ 805 ④ 806 ④ 807 ④ 808 ④
809 ③ 810 ④

79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그는 사후 세계나 죽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더욱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하이데거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불교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도가 사상가인 장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79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실존주의 사상가인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하여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볼 때 일상성에 매몰된 비본래적 삶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하이데거는 죽음을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 ② 불교 사상의 죽음관에 가깝다. ④ 하이데거는 절대자에게 의지할 때 죽음의 공포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도가 사상의 죽음관에 가깝다.

800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그에게 죽음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지고 모든 감각이 상실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801 갑은 선택 옹호주의, 을은 생명 옹호주의이다. 선택 옹호주의는 여성의 신체 소유권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한다. 반면 생명 옹호주의는 태아를 무고한 생명체로 보고 생명권을 가장 우선시하여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한다. 생명 옹호주의 입장에서는 선택 옹호주의 입장에 대해 여성의 자율권을 강조하느라 태아의 절대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선택 옹호주의 입장에서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802 갑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찬성하지만,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한다. 반면에 을은 환자의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③ 을은 환자의 자율성을 전제한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환자의 자율성보다 늘 우선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을은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행위라고 본다. ⑤ 을은 환자가 이성적 판단을 하여 죽음을 원한다면 약물 투여와 같은 인위적 개입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803 갑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을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지닌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심장과 폐가 기능하는 상태를 죽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지만,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80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이 필요한 기술이자,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타인과 하나가 되는 능동적 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진정한(성숙한) 사랑이 이해, 책임, 보호, 존경이라는 필수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프롬은 사랑이 단순히 우연히 빠져드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통념을 거부하였다. ② 프롬이 강조한 존경은 상대를 지배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고유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아는 성숙한 능력을 의미한다. ③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지배와 소유가 아닌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④ 프롬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 역시 인내와 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805 갑은 보수주의, 을은 중도주의의 관점이다. 보수주의는 성적 행위의 정당성을 종족 보존과 사회적 질서 유지에서 찾았으며, 성적 행위가 혼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중도주의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랑이 전제된다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자발적 동의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②, ③ 중도주의는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⑤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가 사회적 질서 유지와 직결된다고 보았다.

☑ 개념 보충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구분	핵심 가치	성적 관계의 도덕적 정당화 조건
보수주의	생식적 가치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함
중도주의	인격적 가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진실한 사랑이 전제될 때 정당함
자유주의	쾌락적 가치	자발적 동의가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적 관계는 정당함

80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배려 윤리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문제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타인에 대한 책임 및 배려의 관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길리건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을 뿐이지 여성의 도덕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② 보편적 도덕 원리나 규칙을 적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배려 윤리가 아닌 정의 윤리의 특징에 가깝다. ③ 길리건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공감, 동정심 등 정서와 감정을 중요시한다. ⑤ 정의 윤리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배려 윤리는 독립적 자아관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자아관을 강조한다.

807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이익 관심을 가지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없는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③ 싱어는 동물을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보지 않았다. ⑤ 을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808 갑은 칸트, 을은 레건이다. 칸트는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동물 학대가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약화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삼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레건은 일부 동물도 믿음, 욕구, 지각 등을 지닌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동물이 이성적 능력이나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레건은 칸트에게 ④와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인간을, 레건은 '삶의 주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배려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②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인물이므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칸트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가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약화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인간이 동물에게 지니는 의무는 간접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809 갑은 슈바이처, 을은 레오폴드이다.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식물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나아가 레오폴드는 슈바이처와 달리 토양, 물 등 무생물까지 포함한 대지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겼다.

바로알기 | ㄱ. 슈바이처와 달리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전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을 위해 개별 생명체의 희생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지닌다. ㄴ. 슈바이처에 따르면 식물은 생명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810 (가)는 불교, (나)는 도가 사상이다. 불교 사상은 만물이 그물망처럼 얽혀 상호 의존한다는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비를 강조하였다. 도가 사상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물의 덕을 최고의 선으로 바라본다. 도가 사상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중단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알기 | ① 불교 사상은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비와 불살생을 강조하므로 동식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불교 사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으며,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도가 사상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보았다. ⑤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므로 자연을 인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실전 대비 Ⅱ.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2회 179~181쪽

811 ④ 812 ① 813 ⑤ 814 ② 815 해설 참조
816 ④ 817 ② 818 ① 819 ① 820 ① 821 ⑤
822 ① 823 ① 824 ⑤

811 제시된 가상 편지는 불교 사상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 아래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불교에서는 수행으로 연기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도가 사상의 죽음관이다. ② 불교 사상은 세상에 영원하고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실체는 없다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불교 사상은 죽음을 고통으로 보았다. 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실재인 이데아 세계로 향하는 계기로 보았다.

812 갑은 플라톤, 을은 장자이다. 플라톤은 죽음이란 영혼의 해방이며, 인간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통해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즉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순수한 진리인 이데아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장자는 죽음을 기(氣)가 흩어지는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장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므로 기뻐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없다고 보았으며, 죽음에 대한 초연함을 강조하였다. 예(禮)를 갖추어 마땅히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고 본 것은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ㄹ. 두 사상가 모두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813 ㉠에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미래 세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의료 행위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에 대한 반론으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미래 세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므로 그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④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이다. ②, ③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현세대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초점을 두는 진술이므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814 제시된 칼럼에 따르면 태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며 연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인공 임신 중절에 관하여 생명 옹호주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와 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선택 옹호주의의 논거이다.

815 모범 답안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에는 자율권 논거와 정당방위권 논거가 있다. 자율권 논거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방위권 논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논거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화될 수 있다.

816 (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고, (나)는 모든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는 (가)에 비해 '인위적 개입을 통한 죽음을 허용하는 정도(X)'가 낮고,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안락사에 반대하는 정도(Y)'가 높으며, '연명 치료의 중단을 통한 죽음을 허용하는 정도(Z)'가 낮다.

817 갑은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다. 이 입장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뇌사 찬성의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가)에는 ②와 같은 진술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 심폐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 개념 보충

죽음의 판정 기준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구분	심폐사	뇌사
판정 기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	인간의 인지 및 생명 활동을 총괄하는 뇌 전체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
핵심 주장 및 논거	• 뇌 기능이 멈추어도 심폐 기능이 인위적으로 유지된다면 살아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함 • 뇌사 인정 시 생명 경시 풍조 확산 및 판정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함	• 뇌가 멈추면 인간 고유의 유의미한 활동이 불가하므로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장기 이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이용할 수 있음

81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며, 하나의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ㄷ. 프롬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이 사랑 역시 학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계발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ㄹ. 사랑의 구성 요소로 친밀감, 열정, 헌신을 제시하며, 이 요소의 관계로 사랑을 구분한 사상가는 스턴버그이다.

819 제시된 글은 사랑과 성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바로알기 | ② 보수주의는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적 관계를 강조한다. ③ 자유주의에서는 상호 간의 자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해악 금지를 충족할 때 성적 관계가 정당하다고 본다. ④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⑤ 중도주의에 가깝다.

820 제시된 글을 강조한 사상은 유교 사상이다. 유교 사상에 따르면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며, 서로를 손님처럼 존중하며 예를 다해야 하는 관계이다.
바로알기 | ② 유교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도리를 다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 자체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 실천과 직결된다고 본다. ③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 ④ 부부는 부모 자식처럼 날 때부터 핏줄로 맺어진 천륜 관계가 아니라 후천적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다. ⑤ 유교 사상에서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복종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8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타자의 고통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삼가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생명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다. ②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은 허용되기 어렵다. ③ 싱어는 동물을 기계와 같다고 보지 않았다. 동물을 기계와 같다고 본 사상가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닌 데카르트이다. ④ 싱어는 공리주의자이므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단이 없고, 동물 실험이 결과적으로 산출하는 전체 쾌락의 총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을 정당화할 여지를 지닌다고 보았다.

822 테일러는 의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유한 선을 지닌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갑: 모든 생명은 의식이 있든 없든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선(善)을 지닌다.

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해 버리려는 성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또한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더욱 대립한다.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이성이 없어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지만 자연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를 인정함

갑은 테일러, 을은 칸트이다. 테일러는 식물이나 하등 동물처럼 의식이 없는 유기체라 하더라도 생존, 성장, 번식이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을 지향하므로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서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한편 칸트는 무생물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칸트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유정성이 아니라 오직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성이 없는 동물은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 ㄹ.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테일러와 같은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이다.

823 갑은 유교 사상가인 맹자, 을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이다.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에서는 하늘의 도덕적 품성을 본받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하였으며, 도가 사상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지향하였다. 유교 사상가와 도가 사상가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② 베이컨, 데카르트 등의 근대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도가 사상은 하늘과 자연을 어떠한 목적이나 도덕적 의지가 없는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을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도가 사상은 인위적 제도가 자연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유교와 도가 사상 모두 인간의 모든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824 제시된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의 입장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세대의 필요를 조화롭게 충족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 윤리를 간과하고 오직 현세대의 생존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이다. ② 제시된 글은 재생 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일방적으로 생존과 필요 충족을 온전히 희생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④ 지구 환경을 한계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자는 주장은 제시된 글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실전 대비 Ⅲ.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 1회 182~184쪽

825 ④ 826 ③ 827 ③ 828 ⑤ 829 ② 830 ③
831 ④ 832 ⑤ 833 ④ 834 ㄴ, ㄷ 835 ② 836 ①

825 (가)는 과학기술 지상주의, (나)는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입장이다.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가 무한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을 낙관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였다. 반면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악이라고 보았으며, 과학기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가)는 과학기술을 낙관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② (나)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③ (가)는 과학기술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였다. ⑤ (가), (나)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된 극단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826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야스퍼스는 기술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②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탈은폐 방식 때문에 현대 과학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다. 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이라고 보았다.

8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주장하였다. 베이컨은 과학을 이용하여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베이컨은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②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베이컨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⑤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을 인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달성하는 데 두었다.

828 제시된 글을 주장한 '나'는 하이데거의 입장이고, '어느 사상가'는 야스퍼스의 입장이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이라고 보았지만,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면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하이데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가 최악의 경우라고 보았다. ②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다. ③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④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면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829 제시된 자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대응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사이버 폭력 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정서적 가해 행위를 의미하므로 자료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③ 저작권 침해 문제는 창작물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④ 인터넷 중독 문제는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 행태에 관한 문제이다. ⑤ 허위 정보 유포 문제는 거짓 정보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로 제시된 정책 사례와 거리가 멀다.

830 (가)의 갑은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인 대상이며, 과학기술을 다루는 과학자에게는 연구 과정 자체에 한정된 내적 책임만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과학자에게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외적 책임까지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①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을에게 제기할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을에게 제기할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학자의 외적 책임에 대해 긍정하는 을이 제기할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과학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에 대해 긍정하는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831 제시된 평가에서는 학생이 연구 부정 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의 부당한 저자 표시는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외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시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개념 보충

연구 부정 행위의 종류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나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과 결과를 사용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중요한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832 칼럼에서는 과학기술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에 대해 깊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칼럼은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② 과학기술의 비윤리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만 바라보는 과학기술 혐오주의이다. ③, ④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인류가 당면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는 입장은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이다.

833 그림의 강연자는 요나스이다. 그는 과학기술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해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요나스는 윤리의 적용 범위를 현세대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④ 요나스는 과학기술을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제한·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834 갑은 정보 공유론(카피레프트)의 입장, 을은 저작권 보호론(카피라이트)의 입장이다. 정보 공유론은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였다. 저작권 보호론은 정보에 대한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보상 체계가 약화될 경우 정보 생산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을만의 입장이다. ㄹ. 정보 접근의 확대가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혁신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갑만의 입장이다.

835 갑은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며, 인간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 인공지능의 자율성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을은 인공지능을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해 작동하는 기술적 도구로 규정하며,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서 나온다고 보며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갑의 입장과 반대로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③, ④ 을은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독자적 목표 설정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⑤ 인공지능을 단순히 유용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을만의 입장이다.

836 제시된 글에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가 나타나 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에서 인간의 선입견이 반영되거나 인공지능의 정보 수집 단계에서 편향된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바로알기 | ② 사용자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투명성 문제'이다. ③, ④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원리나 의사 결정 과정이 불분명한 문제는 '투명성 문제'이고, 이를 블랙박스 문제라고도 부른다. ⑤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성 문제'이다.

실전 대비 Ⅲ.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 2회 185~187쪽

837 ③ 838 ④ 839 ④ 840 ① 841 ① 842 ⑤
843 ① 844 ② 845 (가) 존중, (나) 책임 846 ④
847 ③ 848 ③

8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을 단순히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나 중립적인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기술의 본질이 현대인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틀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기술을 기술적인 것으로만 파악하여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인간은 기술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 논리에 무방비로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수단으로만 보는 태도가 기술에 종속되는 최악의 경우라고 비판하였다. ②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도구화하여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경고하였다. ④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 없이는 기술적 사고에 매몰될 뿐,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하이데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인간이 기술의 지배 아래 놓여 주체적인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838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사회나 인류에 미칠 영향력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학자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래의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미리 내다보아 나중에 더 큰 위험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연구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②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자의 책임과 기술 이용자의 책임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과학자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③ 제시된 글에서는 연구 과정의 객관성도 중시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을 고찰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 ⑤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자가 초기 단계에서 미래의 위험을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영향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제시된 글의 입장과 다르다.

839 갑은 과학자가 기술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외적 책임은 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은 과학자가 기술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갑은 과학자가 내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연구 과정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내적 책임은 갑과 을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84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의 기술 발전이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기존의 인간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윤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의 윤리를 정립하였으며, 우리의 행위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역설하였다.

바로알기 | ② 요나스는 인류가 지구상에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생존 조건까지 배려하는 책임을 요청하였다. ③ 요나스는 전통 윤리가 다루지 못했던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 과제로 격상시켰다. ④ 요나스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절대적 도덕 의무라고 보았다. ⑤ 요나스는 기술의 파괴적 위력을 고려할 때,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41 ㉠에 들어갈 내용은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과학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윤리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과학기술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은 ㉠의 입장이다. ③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 도덕적 가치 평가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842 제시된 칼럼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개인 정보의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보 자기 결정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칼럼에서는 자녀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자녀 자신의 의사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제시된 칼럼에서는 악의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제시된 칼럼에서는 게시된 정보의 유용성과 무관하게 게시물의 당사자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제시된 칼럼에서는 잊힐 권리가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43 제시된 글에서는 파놉티콘의 문제점이 현대 정보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ㄷ. 제시된 글에서는 감시 체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ㄹ. 감시 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정보 흐름에서 벗어나, 소통의 쌍방향성을 회복하는 민주적인 정보 환경이 필요하다.

844 갑은 저작권 보호론, 을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론의 입장에서는 창작자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입장 모두 수준 높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정보 공유론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빈곤층의 정보 접근 기회를 차단하여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의 사유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볼 것이다. ㄷ.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정보 공유론만의 입장이다.

845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태도로,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의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정의로운 디지털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846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임성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와 사례

문제	사례
(가)	의료용 인공지능이 환자의 질환을 오진하여 잘못된 수술이 진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수술을 집도한 의사, 병원, 인공지능 개발자 중 누구에게 과실을 물어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은행에서 대출 심사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한 신청자가 대출을 거절당해 그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은행 측은 인공지능의 연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

(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임성 문제, (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는 결과가 도출된 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현상 때문에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ㄱ. (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임성 문제, (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이다. ㄴ.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

847 인공지능의 자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

> 갑: 인공지능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조력자나 친구 역할도 할 수 있다.
> 을: 인공지능은 인간이 원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도구이며, 우리가 인공지능에 기대하는 기능은 인간이 설계한 역할에 한정된다.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 하는 입장

갑은 인공지능의 자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을은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갑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설계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하는 자율성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②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을이다. ④ 인공지능을 자율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갑이다. ⑤ 인공지능의 행위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을만의 입장이다.

848

편향된 정보의 문제

>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평소 선호하던 정보와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다른 견해나 가치관은 점차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인식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며,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신만의 정보 거품에 갇히게 되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닫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필터링된 정보 안에 갇히는 현상

제시된 글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반영한 편향된 정보가 만들어지는 편향된 정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책임의 분산 문제는 다양한 매체 발달로 특정 저작물이 여러 공간에 저장됨으로써 정보가 다양한 곳에 분포하게 되어, 문제 발생 시 책임 의식이 약화되는 문제이다. ② 디지털 과의존 문제는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하게 되면 수면 장애, 체력 감소, 사회적 고립감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사적인 정보 노출 문제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⑤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일어나는 문제이다.

실전 대비 Ⅳ. 민주시민과 윤리 1회 188~191쪽

849 ③	850 ③	851 해설 참조		852 ④	853 ③
854 ④	855 ④	856 ③	857 ②	858 ②	859 ⑤
860 ①	861 ③	862 ③	863 해설 참조		864 ④
865 ①					

849 제시된 대화에서 갑, 을은 전문직 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전문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독점성],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율성] 직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직은 사회에 도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고,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사회적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바로알기 | ㄱ. 전문직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ㄹ.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직업은 공직자이다.

85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이 일정한 생업, 즉 항산이 보장되어야 도덕적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성이 개인의 의지나 강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 조건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생계가 불안정하면 도덕적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진술과, 직업 생활이 인격 함양과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진술이 맹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바로알기 | ㄱ. 순자는 인간이 본래 욕망을 지닌 존재라고 보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욕망을 조절하기 위해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함으로써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순자는 인간이 욕망을 따라 행동하면 다툼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禮)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분과 직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851 모범 답안 공직자가 절약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 부정부패하게 되기 때문이다.

852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A에 들어갈 질문은 순자는 긍정하고 맹자는 부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혼란을 낳기 쉽기 때문에 예와 제도를 통해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ㄱ은 A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이다. ㄷ은 순자가 긍정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다. ㄹ은 항산이 항심의 조건이라고 본 맹자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C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바로알기 | ㄴ. 사회 구성원 각자의 역할 수행은 순자와 맹자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다.

85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칼뱅이다. 칼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삶의 자리와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소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직업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칼뱅은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성실하고 절제된 직업 수행이 신 앞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을 통해 정당하게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종교적 죄악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면과 절제를 바탕으로 얻은 부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칼뱅의 종교적 소명 개념과 거리가 멀다. ④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신이 예정한 것이고 이를 인간이 바꿀 수는 없지만, 금욕을 실천하면서 성실히 노동하여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854 갑은 홉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주권자를 세운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를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로 형성된 인위적 인격체로 보며, 국가 설립의 목적은 자기 보존과 안전의 확보에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국가라는 최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삶, 즉 선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ㄴ.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지만 자유의 향유가 불안정하다는 내용은 로크의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855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본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와 분업 구조로 인해 노동이 인간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된 활동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생산물과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며, 노동은 인간의 욕망과 본질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자는 노동 착취를 당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노동 소외 현상이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다. ⑤ 마르크스는 분업과 생산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 인간 소외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856 갑은 맹자, 을은 로크이다. 맹자는 백성에게 항산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갖기 어려우므로, 군주가 백성들을 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의 생계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민심을 잃은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로크는 개인들이 자연 상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를 세우는 데 동의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하고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 계약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857 그림의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각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고, 그 결과 형성된 일반 의지에 스스로를 복종시킨다고 보았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동체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사회 계약이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로크의 견해이다. ③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강조한 홉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국가를 인간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윤리적 공동체로 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루소는 국가는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⑤ 루소는 통치자를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존재로 보았고,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858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공공적 정의관에 호소하여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공적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공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책이라도 정의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 행위가 초래할 사회적 손해를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불복종을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로 본다.

85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 체계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는 시민불복종이 사적인 양심이 아니라 사회 성원들이 공유하는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례〉의 A는 소수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정의(평등한 자유의 원칙 위배)에 맞서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며,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롤스의 관점에서 A의 행위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행위이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사적인 양심의 표현인 양심적 거부와 구분한다. ②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싱어의 입장이다. ③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혁명에 해당한다. 롤스는 시민불복종과 혁명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④ 롤스는 모든 법적 오류에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시민불복종은 법과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86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특수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특수적 정의 중 분배적 정의는 명예나 재화 등을 각자의 가치나 공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이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지향한다. 즉, 가치가 큰 사람에게는 더 큰 몫을, 가치가 작은 사람에게는 더 작은 몫을 주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본 것이다.

바로알기 | ② 교정적 정의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교섭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의 양을 따져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고 이익을 얻은 만큼 환수하여 산술적으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분배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가 아니라 가치에 따른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⑤ 교정적 정의는 손익의 차이를 균등하게 바로잡는 것이므로 산술적 비례에 따른다.

86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과거의 취득이나 이전 과정에서 절도, 사기 등의 부정의가 있었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는 교정의 원리를 필수적인 정의의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가의 교정적 개입이 정당하냐는 질문에 노직은 긍정한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분배가 어떤 정형화된 기준(공적, 필요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② 노직은 분배의 정의가 오직 과거의 역사적 경로(정당한 취득과 이전)에 달려 있다고 보므로 부정한다. ④ 소유 권리론의 핵심 원리인 소유권에 근거하여 긍정할 질문이다. ⑤ 취득과 이전의 역사적 과정이 이미 정의로웠다면, 별도의 교정 단계 없이도 그 결과는 정의로운 소유가 되므로 노직이 긍정할 질문이다.

862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각기 다른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 영역은 저마다의 고유한 분배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보편적이고 단일한 정의의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다원적 정의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왈처는 단일한 보편적 기준에 의한 분배를 비판하였으며, 가치마다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왈처는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침범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④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은 노직의 소유 권리론에 가깝다. 왈처는 절차 자체보다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각 영역의 자율성을 중시하였다. ⑤ 노직이 주장하는 최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863 모범 답안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864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재화가 정당하게 취득되고 이전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정의롭다고 보았다. 그는 특정 패턴에 맞춘 재분배(정형적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사회 제도가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ㄹ. 노직은 동의하지만, 롤스는 천부적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고 그 재능을 통한 이익은 최소 수혜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개념 보충

주요 사상가별 분배 정의 비교

사상가	핵심 개념	주요 내용 및 특징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차등의 원칙 등)에 따른 분배 중시
노직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취득, 양도(이전), 교정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로움
마르크스	공산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평등 사회 지향
왈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사회적 가치마다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의 독립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

865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고, 사형 제도에 찬성하였다. 또한 형벌이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범죄자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고,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형 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ㄹ. 칸트는 긍정, 벤담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866 갑은 순자, 을은 공자이다. 순자는 선왕이 예를 제정하여 귀천과 빈부의 분별을 세웠다고 보고, 예에 의해 사회 질서와 직분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군주는 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맡은 직분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는 모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각자가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직분에 맞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인간의 도덕성과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보았다. ② 순자는 직분을 자율적 선택에 맡기면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③ 법과 형벌을 앞세우는 통치는 공자의 덕치와 배치된다. ④ 친소의 차별을 부정하는 평등한 사랑은 묵자의 겸애이다.

867 갑은 공자, 을은 플라톤이다. 공자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하였다. 한편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급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탁월함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보고, 자신의 탁월함에 부합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ㄹ.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직분의 덕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868 갑은 플라톤, 을은 칼뱅이다. 플라톤은 사람은 타고난 성향에 맞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타고난 성향과 덕에 맞지 않는 직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보고 각자가 맡은 일에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과 칼뱅 모두 직업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에게 직업은 타고난 성향과 덕에 따라 맡아야 하는 것으로 계급 상승의 수단이 아니다. ㄷ. 삶의 궁극적 목적을 단순한 직업적 성공으로 보는 것은 칼뱅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념 보충

플라톤의 직업관

구분		역할	특징
수호자	통치자	국가의 통치와 정책 결정	이성을 잘 갖춘 계급으로, 지혜의 덕에 가장 뛰어남. 국가 전체의 선과 정의를 기준으로 통치하며 사적 소유를 금지받음.
	방위자(전사)	국가 방어와 질서 유지	기개를 잘 갖춘 계급으로, 용기의 덕에 가장 뛰어나며 통치자를 보좌하고 국가를 외부의 적과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함. 사적 소유를 금지 받음.
생산자		생산과 경제 활동 담당	욕망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나 절제의 덕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계급으로, 농업, 수공업, 상업 등 물질적 재화를 생산함. 사적 소유는 허용되나 통치에는 참여하지 않음.

86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이 안정된 생업, 즉 항산을 가져야 도덕적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의 우선 과제는 도덕적 교화나 규범의 강제가 아니라,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생계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맹자는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뒤에야 비로소 백성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맹자의 입장이지만 문맥상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④ 인간 본성을 악하다고 본 순자의 입장이다. ③ 무항산 무항심의 논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실전 대비 Ⅳ. 민주시민과 윤리 2회 192~195쪽

866 ⑤ 867 ④ 868 ② 869 ⑤ 870 ① 871 ③
872 해설 참조 873 ② 874 ④ 875 ⑤
876 ① 877 소로, 개인의 양심 878 ③ 879 ②
880 ⑤ 881 ② 882 ①

870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며, 그 출발점으로 청렴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청렴하지 않으면 어떤 선한 정치도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통치자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를 청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백성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어야 도덕적 삶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으므로, 백성의 생계 안정은 정치의 중요한 과제에 해당했다.

바로알기 |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 맹목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관점은 정약용의 민본 사상과 배치된다. 정약용은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통치자가 무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87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은 사랑과 정의를 지향할 수 있지만, 집단은 구조적으로 이기주의를 확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 함양만으로는 사회 정의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집단 간 갈등 해결에는 개인의 선의지와 함께 집단 간 힘의 균형과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니부어는 개인 윤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② 니부어는 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니부어는 이성이 완전히 무력하다고 보지 않았다. ⑤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 도덕성의 단순 합과 같지 않다고 보았으며, 집단은 오히려 더 이기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872 **모범 답안**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며,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87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타고난 성향에 따른 직분 분화를 통해 국가의 조화와 질서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즉, 정의를 위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분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③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보는 관점은 칼뱅의 직업관이다. ④, ⑤ 사회 계약론과 관련한 질문으로, 플라톤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87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며, 그중에서도 국가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는 국가를 인위적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하였다.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국가는 인간이 덕을 실현하고 최선의 삶에 이르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 공동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ㄷ. 자연 상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로 국가가 생겼다고 본 사회 계약론의 입장이다.

875 (가)의 갑은 로크,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지만 분쟁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란 개인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족적인 공동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로크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개인은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② 사회 계약론자인 홉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관점 중 동의론에 해당하는 진술로 로크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 해당한다.

876 갑은 롤스,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공유된 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 기회균등)을 근거로 수행하는 공적 행위로 보았다. 그는 불복종이 부정의를 바로잡아 결과적으로 사회 체제를 더욱 공고하고 안정되게 만든다고 보았고,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법 체계 전체에 대한 존중인 법에의 충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불의한 법에 대해 즉시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소로는 다수가 결정한 법이라도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사적 신념이 아닌 공적 정의감에서 찾는다. 소로도 사익이 아닌 정의에 대한 존경심(양심)을 강조하므로 두 사상가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87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로이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하며,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78 갑은 롤스,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소로는 정의롭지 못한 법의 합법성을 존중하기보다 즉각적인 거부를 주장하였다. 또한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다수가 공유하는 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소로는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 개인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심각한 부정의를 교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소로가 시민불복종의 최종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수의 확신이 아닌 개인의 양심이다.

87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모든 시민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롤스는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조건을 우연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불평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불평등을 허용하였다.

880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적 분배 상태도 정의롭다고 보았다. 그는 정형적 분배 원리를 부정하고, 역사적 절차의 정당성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즉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노직에게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정형적 원리를 부정하므로 롤스에게 제기하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롤스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의롭다는 입장에 동의하므로 노직이 롤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③ 노직은 노동뿐만 아니라 교환에 의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노직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였다.

88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분배의 정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부유한 사람의 재산이 늘어날 때 얻는 행복보다,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증진되는 행복의 양이 더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복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빈부 격차를 좁히는 것에 긍정하였다.

바로알기 | ① 벤담은 재산의 완전한 평등이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를 사라지게 하여 사회 전체의 풍요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아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③ 벤담은 효용을 증진시키는 경우 국가가 분배에 개입 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벤담은 사유 재산 제도가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키는 한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⑤ 노직의 입장이다.

882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유용성과 같은 결과에 두었다. 그는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사형보다 지속성을 지닌 종신 노역형이 사람들에게 더 큰 본보기(억제력)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응보여야 한다고 보고,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자에게는 사형만이 유일한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칸트는 형벌을 범죄 예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에게 형벌은 오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ㄹ.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을 사형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았지만,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종신형 처우가 동등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실전 대비 Ⅴ.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1회 196~198쪽

883 ⑤ 884 ② 885 ④ 886 ② 887 해설 참조
888 ④ 889 ③ 890 ⑤ 891 ⑤ 892 ④ 893 ⑤
894 ① 895 (가) 정체성, (나) 공존 896 ⑤ 897 ①
898 ③

883 제시된 글은 예술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술은 본래 물건을 제작하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아름다움과 관련된 미적 활동과 그 산물을 가리키게 되었다.

884 갑은 아퀴나스, 을은 흄이다. 아퀴나스는 미적 판단의 기준을 대상의 완전성·비례성·명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에서 찾는 객관주의 미학의 입장이다. 반면 흄은 아름다움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으며, 미적 판단이 개인의 취향과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주관주의 미학의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① 미적 판단이 주관적 취향과 감정에 근거한다고 본 것은 흄이다. ③ 사물 자체가 지닌 고유한 미적 성질을 규명하려 한 것은 아퀴나스이다. ④ 흄은 미적 판단이 개인의 감정적 반응에 따른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미적 기준을 가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⑤ 흄은 미적 판단의 기준을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에 두었다.

885 갑은 플라톤, 을은 와일드이다.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의 감정과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예술의 도덕적·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며 예술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와일드는 예술을 도덕과 분리된 자율적 영역으로 보고, 예술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부정한다.

바로알기 | ①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는 와일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예술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참여 예술론이다. 플라톤도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였지만, 그는 예술의 사회 비판적 기능보다 올바른 품성의 함양과 국가 질서 유지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는 플라톤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플라톤은 예술을 모방으로 보면서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도덕적 교화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플라톤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플라톤은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는 플라톤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886 갑은 순자, 을은 묵자이다. 순자는 음악[樂]이 사람들을 다 같이 화합하게 하여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화합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반면 묵자는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즐기면 국가는 어지러워지고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비악(非樂)]고 주장하였다. ㄴ. 순자와 묵자 모두 음악이 듣는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ㄹ. 묵자에 따르면 어진 군주는 백성의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 일을 처리하므로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는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순자는 음악이 사회적 화합과 질서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좋은 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ㄷ. 순자는 음악이 도덕적 수양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음악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묵자는 악기 제작에 재물이 낭비되고, 연주와 감상에 노동력이 소모된다고 보아 음악이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887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모두 자유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벗어나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한다.

888 대중문화는 다수가 쉽게 향유하는 문화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며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상업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산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889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그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산물로서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억압하고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하며, 인간을 규격화된 존재로 재생산한다.

바로알기 | ①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마비시켜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② 아도르노는 획일화된 문화 상품이 대중들이 적극적인 사유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④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예술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윤 창출을 우선시한다. ⑤ 아도르노에 따르면, 대중은 문화 소비를 통해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이 조종하는 대로 소비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한다.

890 현대사회의 의복 문화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는 의복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재료로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 문제 등이 있다.

891 고수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일부를 덜어 자연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나누는 의례적 행위로, 인간이 타자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손과 공경의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며, 이 글은 물질적 풍요보다 도덕적 수양과 예의 실천을 중시하는 공자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음

> 갑: 식사하실 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비록 거친 밥과 채소국이라도 반드시 고수레를 하셨으며, 언제나 엄숙하고 삼가는 태도를 보이셨다.
>
> 을: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한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며, 사치스러운 음식과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물고기를 마음껏 먹거나 풍성한 식탁을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은 감각적 향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정(아타락시아)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는 사치스러운 욕망은 충족되기 어렵고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낳기 때문에, 이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함

갑은 공자,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공자는 일상적 실천을 통해 예(禮)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사적 욕구를 절제하고 공동체적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였다. 즉 음식의 풍족함이나 감각적 쾌락보다 예에 따른 절제와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치스러운 욕망을 절제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욕구 충족만을 긍정하였다. 두 사상가 모두 지나친 식욕을 절제하는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엄숙히 예법에 맞게 식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공자는 감각적 쾌락 충족보다 내면의 도덕 수양과 예(禮)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는 정도의 필수적 욕구 충족을 긍정했을 뿐, 배부름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사치스러운 식사가 오히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절제된 식사를 강조하였을 뿐, 욕망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과도한 금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892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볼노브이다. 그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집'을 인간이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중심으로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집과의 내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 삶의 중심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바로알기 | ① 볼노브에게 집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안식처이다. ② 볼노브에 따르면 공간의 중심은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다. ③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내적 안정과 삶의 중심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⑤ 볼노브는 인간이 미리 정해진 본질에 단순히 적응하며 살아간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그는 집을 인간이 세계 속에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존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이해하였다.

☑ 개념 보충

집에 대한 볼노브와 하이데거의 입장

사상가	입장
볼노브	• 인간은 스스로 삶의 중심을 형성함 • 집은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평화·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임 • 집과의 내적 관계 형성을 강조함 → 집은 인간이 스스로 형성하는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임
하이데거	• 인간은 본래 거주하는 존재임('세계-내-존재': 세계 속에서 관계 맺으며 살아감) •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임 • 거주하기 때문에 건축함 → 인간은 거주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

893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그는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재화를 소비하는 과시 소비를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거나, 실용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며, 소득 수준에 맞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 행태에 가깝다. ② 환경과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소비는 타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 행태에 가깝다.

894 (가)는 비용 대비 만족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 소비이고, (나)는 환경, 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이다. 따라서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는 합리적 소비에 해당하며, 공정 무역 제품 구매와 로컬 푸드 소비는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이므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 품질,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격만을 기준으로 충동적으로 일회용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필요성과 장기적 효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비이므로 합리적 소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충동적 구매는 계획성과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소비의 태도와 어긋난다.

895 샐러드 볼 이론은 여러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다문화주의 입장이다. 한편 국수 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의 중심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비주류 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한 채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문화 다원주의 입장이다. 두 입장은 주류 문화의 중심성 인정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바탕으로 문화의 공존과 다양성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896 제시된 글은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 보편 윤리를 지키며 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어떠한 문화적 악습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은 보편 윤리를 인정하는 이 글의 입장과 어긋난다. ③ 제시된 글에 따르면 보편 윤리를 침해하는 문화적 관습은 무비판적으로 계승될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보편 윤리는 인종, 국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이다.

897

> 만약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관용적 사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이를 지켜낼 의지가 없다면, 결국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자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며 타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폭력을 통해 제거하려는 비관용적 집단이나 태도를 의미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포퍼이다. 그는 다양한 사상과 비판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사회를 옹호하였으나, 관용을 파괴하려는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불관용 세력에게까지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 경우 결국 관용과 자유 사회가 파멸할 수 있다고 보았다(관용의 역설). 따라서 그는 자유 체제를 지키기 위해 관용을 파괴하려는 불관용 세력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소수자의 의견을 다수결로 강제 통폐합하는 것은 포퍼가 지향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성격의 닫힌 사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포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위해 일반적인 신념에 대한 관용은 인정하지만, 모든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관용하는 태도는 관용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보편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엄격한 법치만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용과 불관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유 사회를 논의한 포퍼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포퍼는 법치 자체보다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개방 사회의 유지와, 이를 파괴하려는 불관용 세력에 대한 제한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포퍼는 인권 유린과 같은 반인륜적 관습은 자유 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므로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89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퀑이다. 그는 전 지구적 분쟁과 갈등의 배경에 종교 문제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근본 원칙으로서 세계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세계 평화가 오직 군사적 힘의 균형으로만 달성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 입장에 가깝다. 퀑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종교 간 평화와 윤리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ㄷ.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이 종교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은 종교 간 공통 윤리와 대화를 통해 평화를 모색하려는 퀑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

실전 대비 Ⅴ.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2회 199~201쪽

899 ① 900 ③ 901 ② 902 ⑤ 903 해설 참조
904 ③ 905 (가) 자본, (나) 문화 산업 906 ⑤ 907 ②
908 ② 909 ① 910 ④ 911 ⑤ 912 ① 913 퀑
914 ⑤

899 제시된 글에서는 예술이 창작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감상자는 작품을 통해 창작자와 교감하며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② 제시된 글에 따르면 예술이 주는 영감과 카타르시스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③ 제시된 글에 따르면 전문적인 예술 치료는 카타르시스와 정서적 효과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는 예술의 기능적 연장선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취미 활동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시된 글에 따르면 예술 감상을 통한 해석의 공유는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글에 따르면 감상자는 작품에 담긴 의미를 통해 창작자와 교감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타인과 소통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술이 타인과의 소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900 제시된 글은 미적 판단의 기준이 사상가에 따라 다양하게 고찰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대상의 완전성과 비례 등 객관적 기준을 중시하고, 흄은 아름다움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자의 감정과 취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통감에 기반하여 보편적 동의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완전성, 비례성과 함께 명료성을 아름다움의 객관적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② 아름다움이 사물 자체에 존재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본 것은 흄이 아니라 아퀴나스이다. 흄은 아름다움이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감을 통해 타인과 공유될 수 있으며 보편적 동의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와 칸트는 각각 객관적 기준과 공통감을 근거로 미적 판단의 보편적 동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90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톨스토이이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나 형식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인간의 사랑과 선한 감정을 확산시켜 도덕적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톨스토이는 예술이 인간의 윤리적 완성과 인류애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예술을 단순한 쾌락과 심미적 만족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으로, 예술의 도덕적·인류애적 기능을 강조한 톨스토이의 견해와 어긋난다. ③ 예술의 가치를 현실 모방 여부에 두는 입장으로, 예술이 사랑과 선한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고 본 톨스토이의 견해와 다르다. ④ 예술을 도덕과 분리된 자율적 영역으로 보는 심미주의적 입장으로, 예술의 윤리적 역할을 중시한 톨스토이의 견해와 배치된다. ⑤ 예술의 목적을 아름다움 자체의 추구에 두는 입장으로, 예술이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사랑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톨스토이의 견해와 다르다.

90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와일드이다.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적·경제적·사회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아름다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예술을 부와 명예의 수단으로 삼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A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예술은 외적 가치가 아닌 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예술이 유용성 증진이나 대중의 요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나, 예술의 가치를 대중의 취향이나 부의 증명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미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와일드가 경계할 태도이다. ③ 예술의 목적이 현실 문제 고발에 있다고 보는 것은 참여 예술론의 입장에 가깝다. ④ 예술의 역할을 도덕적 교훈 제공으로 보는 것은 도덕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903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그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음악을 비판하고,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악을 절제해야 한다는 비악(非樂)을 주장하였다.

904 제시된 글은 대중문화가 예술 향유의 대중화를 통해 문화의 주체를 확대하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사회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지닌다고 본다. 동시에 상업화가 심해지면 문화의 획일화와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사회의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에서는 예술의 문턱을 낮추어 많은 이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게 했다고 하며 대중문화의 대중성 확대 기능을 강조하였다. ② 제시된 글에서는 자본 투입으로 질적 향상을 이룰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업화가 심화될 경우 수익성 위주의 생산, 다양성 훼손 등 부정적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④ 제시된 글에서는 상업화가 심화될수록 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비자가 획일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⑤ 제시된 글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에 악영향을 주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905 제시된 글은 대중문화가 자본의 영향 아래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며 상업화되는 경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 산업'으로 규정하였으며, 문화가 자본에 종속될 경우 획일화되고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906 제시된 글은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향유하기 위해서 대중이 자본에 휘둘리는 수동적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대중을 수동적 소비자로 보는 것은 제시된 글의 입장과 반대이다. 제시된 글은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② 권력 기관은 문화 생산 구조의 한 요소일 뿐, 대중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제시된 글에서는 대중이 가치와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④ 자본의 소유자는 대중이 아니라 기업·자본가 계층이며, 제시된 글에서는 소비자가 그 영향력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907 갑은 볼노브, 을은 하이데거이다. 볼노브는 집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보았다. 하이데거는 거주를 인간의 본질적 특징으로 보았으며, 현대 주거 공간이 전통과 가치를 담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ㄱ. 볼노브는 집을 외부로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ㄹ. 하이데거는 거주를 인간의 본질을 보살피는 것으로 보고 건축을 그러한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908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그는 유한계급이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형성하며, 다른 계층이 이를 모방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재화를 소비하는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모두 경제적 효용성과 합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를 설명한 것으로, 사회적 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와는 거리가 있다. ④ 과시적 소비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행위임을 간과하고, 사회적 영향과 무관한 소비로 설명하고 있어 부적절하다. ⑤ 인권이나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와는 다르다.

909 제시된 글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910 갑은 동화주의, 을은 다문화주의의 입장이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버리고 이주국의 주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대등하게 공존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동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 ②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문화에 완전히 편입하고 융화시켜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화 다원주의 입장이다. ⑤ 동화주의는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흡수시켜 단일 문화를 형성하려 하므로,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거리가 멀다.

911 제시된 칼럼은 종교적 차이와 이주민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 문화를 이해하고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적 우열 의식을 버리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이주민의 고유한 종교를 강제로 배제하는 것은 제시된 칼럼이 경계하는 배타적 태도와 무지에 해당한다. ②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은 동화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제시된 칼럼은 각 문화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를 강조한다. ③ 문화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문화적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주장은 제시된 칼럼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제시된 칼럼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관용과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존을 중시한다.

912

○○ 교회의 성직자분들에게

로크는 참된 교리라도 타 교회를 억압하거나 강제할 권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함

귀하가 스스로를 신성한 말씀의 종이자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설교단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은 폭력적인 욕망이 아닌 평화와 관용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설령 귀하의 교회가 종교에 관해 가장 올바른 이해를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할 권한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를 억제하고, 그들의 영적 자유를 존중하며 자비와 온화함을 실천하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훗날 평화의 왕 앞에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로크는 신앙이 개인의 내적 확신에 근거하므로, 외적 강제로는 참된 믿음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함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로크이다. 그는 어느 한 교회가 종교에 대해 가장 올바른 이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다른 교회를 억압하거나 강제로 개종시킬 권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신앙이 개인의 내적 확신에 기초해야 하므로 종교적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종교 교리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교적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는 로크의 입장과 어긋난다. ③ 무신론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로크의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이주민의 문화 동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종교적 관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종교적 신념을 강제로 교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제 개종을 부정한 로크의 입장과 반대된다.

913

(가)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한 정확하고도 사실적인 지식 없이 진지한 종교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세계의 종교적·정치적 평화를 위해 세계 여러 종교가 공유하는 보편적 윤리 원칙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 간 공통된 윤리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 퀑의 세계 윤리 사상이 드러남

(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종교적 신념 차이가 인종·정치·경제적 문제와 결합하며 복합적인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적 차이가 사회·정치·경제적 문제와 결합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을 알 수 있음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퀑이다.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종교가 공통적으로 지닌 보편적 윤리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914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퀑이다. 퀑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각 종교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윤리의

근본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주민의 증가로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되는 (나)와 같은 상황에서 큉은 세계 여러 종교가 공유하는 보편적 윤리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종교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진지한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를 강조하는 큉의 입장과 어긋난다. ② 큉은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존하면서 공통의 윤리적 기반을 찾고자 하였다. ③ 큉의 입장에 따르면 종교 간 갈등의 해결은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대화와 세계 윤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큉은 타 종교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대화의 장에서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전 대비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1회 202~204쪽

915 ⑤ 916 ④ 917 ④ 918 ③
919 갑: 세대 갈등, 을: 계층 갈등 920 ① 921 ⑤ 922 ④
923 ③ 924 ③ 925 ③ 926 ⑤

915 (가)에는 이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에서는 이념 갈등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이념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로의 가치관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이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③ 이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안정과 변화, 성장과 분배 등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④ 정치적 지역주의는 연고주의에 기반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정치에 이용하려는 입장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916 (가)는 이념과 국적을 떠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강조하며 대북 지원이 조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나)는 군사적 안보를 우선시하여 대북 지원이 조건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가)는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은 당위의 문제이며,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③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대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은 (가)이다. ⑤ (가)는 대북 지원이 별도의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나)는 대북 지원이 안보적 대립이 중단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17 갑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을은 정경 분리를 원칙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갑, 을 모두 남북 경제 협력이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남북 경제 협력을 정치 상황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을만의 입장이다.

918 갑은 국제 관계에 대해 현실주의 관점을 가진 모겐소, 을은 이상주의 관점을 가진 칸트이다. 모겐소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았고, 이러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국가 또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이며, 국가 간 분쟁은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반면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국제 분쟁의 원인을 국가 간의 오해나 불완전한 제도에서 찾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제법, 국제기구, 규제 규범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칸트는 평화 조약이 조약을 맺은 당사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조약일 뿐이므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 모겐소의 현실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칸트가 제시한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중 세 번째 조항의 내용이다. ⑤ 모겐소와 칸트는 모두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평화 유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919 갑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의 가치관과 경험 차이로 발생하는 세대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을은 소득과 재산의 차이, 빈부 격차로 발생하는 계층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920 배려 윤리에서는 인간을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보았고, 구체적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배려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공자의 화이부동 사상에 해당한다. ③ 원효의 화쟁 사상에 해당한다. ④ 밀의 오류 가능성에 관한 주장이다. ⑤ 포퍼가 주장한 열린 사회의 특징에 해당한다.

92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도덕적 규범의 타당성은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합리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합의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도덕적 규범이 권력이나 강제력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담론 윤리와 거리가 있다. ②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가깝다. ③ 하버마스는 이해 가능성, 진실성, 정당성, 진리성과 같은 이상적 담론 조건에서 도덕규범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922 갑은 북한이 주권 국가이므로 인권을 이유로 국제 사회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을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국제 사회가 인권 기준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갑은 남북한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갑은 인권을 이유로 국제 사회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을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⑤ 갑은 국제 사회의 정치적 압력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을은 국제 사회가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23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칸트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환대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권력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동맹을 수립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각국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 상태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칸트가 주장하는 우호(환대)의 권리는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조건부 권리이다. ㄹ. 칸트와 달리 모겐소는 국제 정치의 영역이 도덕 법칙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보았다.

92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이방인이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이 환대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인간애의 선행이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난민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있는 A에 대해 칸트는 '난민은 세계시민으로서 환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세요.'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환대권은 영구적 체류가 아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방문권에 국한된다. ② 칸트는 난민이 자국민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세계시민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권리인 환대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이방인이 추방되었을 때 즉각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조건부로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난민에 대한 환대를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이방인이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보았다.

925

갑(노직): 취득에서의 정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포함하므로 심각한 문제이다.
└ 개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원조를 반대함

을(싱어): 극단적인 빈곤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다면, 마땅히 이를 막아야 한다. 기부는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다.
└ 극단적 빈곤에 대한 해외 원조를 의무로 제시함

갑은 노직,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았고,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였다. 노직과 싱어 모두 원조의 목적을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 실현에 두지 않았다.

바로알기 | ㄱ. 노직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해외 원조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자발적인 선행의 차원으로는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싱어는 원조를 함으로써 얻는 전체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그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926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통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원조의 목표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경제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정당한 제도를 갖춘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싱어는 원조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두 사상가 모두 모든 국가가 동일한 부의 수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불리한 여건에 처한 고통받는 사회가 빈곤을 스스로 극복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조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④ 두 사상가 모두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전 대비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2회 205~207쪽

927 ② 928 ⑤ 929 (가) 구조적 폭력, (나) 문화적 폭력
930 ① 931 ① 932 ① 933 ② 934 ② 935 ④
936 ③ 937 ① 938 ③

92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쟁론이 일어나는 이유를 각자가 자신의 이론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서로 다른 쟁론도 높은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결국 하나의 마음이므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원효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만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서로 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원효는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시비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일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④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원효는 서로 다른 쟁론도 높은 차원에서 보면 결국 하나의 마음이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928 가상 대화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하버마스는 전문가 집단의 효율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③ 하버마스는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하버마스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929 갈퉁에 따르면 폭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며, 물리적·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모두 제거될 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갈퉁은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의 형태로 주로 드러나는 구조적 폭력이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930

갑(칸트): 영원한 평화는 확실히 하나의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다. 그럼에도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에, 또한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실현될 수 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들 수 있다.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이 따라야 할 규범 ● ● 영원한 평화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금지하는 조항

을(갈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의 어떤 꼭짓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 쉽사리 전달된다. 참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폭력을 자행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이다.
● 사회 제도나 관습, 정치 구조 내에 존재하는 폭력
● 행위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폭력
●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종교, 언어, 예술, 교육 등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칸트는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영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은 예비

조항과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다. 갈퉁은 평화를 물리적 폭력은 물론 폭력을 자행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칸트는 국가 간의 분쟁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정치 체제로서 공화정을 주장하였다. ③ 갈퉁은 범죄, 테러, 전쟁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정의하고,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간주하였다. ④ 갈퉁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폭력의 삼각형으로 정의하고, 어느 꼭짓점에서도 폭력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칸트는 정복이나 침략을 위한 전쟁은 금지하였지만,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갈퉁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31 (가)는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 (나)는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통일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임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통일이 전쟁 불안을 해소할 것임을 강조하는 정도(Y)'와 '통일이 한반도의 경제적 위상을 높일 것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932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 격차 해소와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비용이며, 통일 편익은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의미한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통일 비용 지출 증가가 분단 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② 통일 비용은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③ 한반도의 전쟁 공포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단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④ 통일 이후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한 교역 증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 등은 통일 편익에 해당된다. 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이다. 따라서 분단 비용이 과다 지출될수록 국가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933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현실주의에서는 평화가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하여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주의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이상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덕·여론·법률·제도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힘이 불균형해지면 힘이 우세한 국가가 패권주의로 나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상주의는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맹, 비밀 외교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로알기 | ㄴ.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각국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 상태로 보았다. ㄹ.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보았다.

934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려면 공화 정체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평화 연맹의 결성과 세계시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으로 영구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칸트는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935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절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라고 보았으며, 기부 뒤에 숨겨진 동기보다 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권에 대한 강조가 빈곤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에 두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장기적 목표보다도 더 급박한 문제라고 보았지만,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싱어는 침묵하는 기부보다 과시적 기부가 기부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면서, 과시적 기부가 바람직한 기부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개인적 차원의 원조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만민이 주체가 되는 원조를 강조하였다.

936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해외 원조의 의무가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어 자유주의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기본적 사회 구조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해외 원조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원조 대상국에 분포된 천연자원의 양이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전통이나 인적 자본의 결핍 등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여부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해외 원조의 대상이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고통받는 사회라고 보았다. 무법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인 국가이다. ㄴ. 롤스는 해외 원조의 궁극적 관심사이자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전 지구적 차원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937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타국의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타국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고 보았으며, 공리주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복리 증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우선 순위는 인종적 친화성이나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해외 원조로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에 원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았다. ㄹ. 싱어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해외 원조 의무의 대상이다.

938 갑은 노직, 을은 싱어이다. 노직은 해외 원조가 개인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싱어는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 문제 해결을 도덕적 의무로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해외 원조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노직은 부정, 싱어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노직은 강제적인 해외 원조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자발적인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로 간주하였다. 싱어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노직과 싱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노직은 해외 원조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근거한 자선의 영역으로 보았다. 싱어는 절대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노직은 부정의 대답을, 싱어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존재의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원조의 목적을 개별 유정적 존재의 절대적 빈곤과 고통의 해소에 두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싱어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MEMO